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 설화를 활용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교육 방안 연구

A study on culture education plan for
middle-immigrant adolescents using Jeju folk tales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관태

2022년 8월

제주 설화를 활용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교육 방안 연구

지도교수 송현정

김관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김관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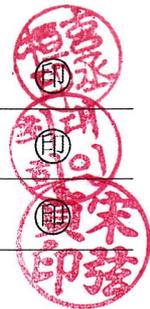
최 승 환

위 원

최 대 희

위 원

송 현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년 8월



A study on culture education plan for
middle-immigrant adolescents using Jeju folk tales

Kim, Kwan-tae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Hyun-ju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022. 0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Song, Hyun-jung, prof.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제주 설화를 활용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교육 방안 연구

김관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송현정

본 연구는 제주 설화를 활용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상호문화주의 교육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외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한국으로 이민, 이주해 온 학생으로 문화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에게 지역 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주의를 교육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를 정의하고 문화교육을 위한 문화 요소를 분류하였으며, 설화의 교육적 가치를 탐구하여 설화 속 문화 요소를 추출하였다. 또한 교육의도에 맞게 제주 지역 일반신화를 선정하고 이를 설화 재구성 원칙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설화를 상호문화주의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상호문화주의 교육 모형을 구성하였고,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안해 보았다. 또한 지역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 성취기준을 만들어보았고 교육 모형에 따라 단계별로 교수-학습 지도안 및 교육 발문을 제시하였다.

지역 설화를 동화주의적 문화교육의 관점에서 하나의 주요한 문화로 여기고 교육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 문화를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소재로 다루었다는 점이 이 논문의 특징이며, 그간 주목받지 않았던 지역 설화를 보편성과 특수성 각 측면에서 분석하고 활용하고자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교육을 실시하면서 문화의 주입식 관점이 아닌 창조 관점에서 시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핵심어: 상호문화주의, 중도입국청소년, 제주설화, <문진본풀이>, 문화교육모형, 문화 교수-학습계획안, 문화 캠프

목 차

<국문 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5
II.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설화의 문화교육적 검토	8
1.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육	8
1) 문화교육의 목표	8
2) 문화교육의 내용	12
2.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	15
1) 설화의 문화적 성격	15
2) 설화 활용의 문화교육적 의의와 다문화 교육적 가치	18
3. 설화 선정과 재구성 방향	23
1) 설화의 선정	23
2) 설화의 재구성 방향	27
III.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을 위한 제주 설화의 내용	31
1. 제주 설화의 문화교육적 의미	31
1) 문화의 분류	31
2) 문화의 요소	33
2. 문화 교육을 위한 설화 내용 분석	49
1) 문화 교육을 위한 대상 설화 구조 분석	49
2) 대상 설화와 문화요소의 관계	50

IV. 제주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의 방안과 실제	53
1. 제주 설화의 문화교육 목표와 내용	54
1) 제주 설화의 문화교육 목표	54
2) 제주 설화의 문화교육 내용	54
2. 문화교육을 위한 제주 설화의 재구성	57
1) 선정 설화의 특징	57
2) 설화 재구성의 실제	58
3. 제주 설화의 문화교육 방법	75
1) 문화교육 모형	76
2) 문화교육 학습활동	81
3) 문화교육 실제	89
V. 결론	112
참고문헌	115
ABSTRACT	121
부록	123

〈표 목차〉

<표 I-1>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1
<표 II-1> 문화교육 내용 요소(박영순)	13
<표 II-2> 본 연구의 문화교육 내용 요소	14
<표 II-3> 설화의 전달 매체와 수용 양상에 따른 특성	17
<표 II-4> 제주 설화 교재화 작품 선정 기준의 예	25
<표 II-5> 본 연구의 제주 설화 교재화 작품 선정 기준	27
<표 III-1> 제주 설화 속 문화 분류에 따른 문화 요소	33
<표 III-2> 존대법에 따른 제주 방언의 종결형	38
<표 III-3> 제주 생활 방언 어휘 및 용례	40
<표 III-4> 제주 속담의 분류와 예시	42
<표 IV-1> 제주 설화 속 문화 유형 및 교육 내용에 따른 설화 내용	55
<표 IV-2> 제주 설화 재구성 예시1	60
<표 IV-3> 제주 설화 재구성 예시2	63
<표 IV-4> 제주 설화 재구성 예시3	65
<표 IV-5> 제주 설화 재구성 예시4	70
<표 IV-6> 제주 설화 재구성 예시5	72
<표 IV-7> 제주 설화 재구성 예시6	74
<표 IV-8> 상호문화적 감수성 발달 단계	77
<표 IV-9> 문화 인식 확장 모형	78
<표 IV-10> 설화 활용 문화교육 모형	79
<표 IV-11> 설화 활용 기사문 쓰기 예시	85
<표 IV-12> 문화교육 학습활동 예시	88
<표 IV-13> 문화교육을 위한 성취 목표	89
<표 IV-14> 제주 설화 교육을 통한 문화교육의 성취기준	90
<표 IV-15> 진단 평가 내용 예시	92
<표 IV-16> 설화 활용 문화교육 차시별 학습목표	93
<표 IV-17> 1차시 수업 과정안 예시	94
<표 IV-18> 1차시 본문 발문 예시	95
<표 IV-19> 2차시 수업 과정안 예시	98

<표 IV-20> 2차시 본문 발문 예시	99
<표 IV-21> 3차시 수업 과정안 예시	102
<표 IV-22> 3차시 본문 발문 예시	103
<표 IV-23> 제주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 캠프(안)	106
<표 IV-24> 제주 설화 교육을 통한 문화교육의 평가 준거	110

<그림 목차>

[그림 IV-1] 직소우 학습법 적용 예시	88
[그림 IV-2] 워크북 구성 예시	11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제주 설화를 활용하여 중도입국 청소년¹⁾ 문화교육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최근 국제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공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이주 배경 청소년의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²⁾ 특히 이 가운데 국내 출생 자녀가 아닌 중도입국 청소년은 태어나면서 배운 언어, 문화와 한국의 언어, 문화가 달라 학습과 또래 집단 간 소속감 형성 및 정체성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으로 이민 온 학생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적응과 학업 향상을 이루어야 하고, 한국 문화를 배워 한국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도록 강요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를 대신해 외국어로서 생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며, 나아가 학업을 위한 학습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또한 단

1)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의 경우를 말한다.(양계민, 조혜영(2011),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연구』, 무지개청소년센터)

2)

<표 1-1>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김현숙, 2021)

부처	정의	현황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로 외국에서 성장하다 한국으로 재입국한 청소년.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 외국 거주 경험 자녀로 분류	외국 주로 성장 자녀	6,478
		외국 거주 경험 자녀	8,905
		합계	15,383
법무부	결혼이민자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만18세 이하 미성년자와 귀화자의 자녀(국내 출생 자녀 포함)	2016.12.	8,031
		2017.4.	8,637
		2018.6.	9,892
		2019.12.	4,112
		2020.12.	3,587
교육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이 국내로 입국한 자녀	2018	8,320
		2019	8,697
		2020	9,151

순히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이해해 한국인과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하는 한 명의 구성원으로 성장해야 할 의무도 지녀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교육은 한국문화를 동화주의적 입장에서 주입하는 방식이었고 그 주입 대상 문화 또한 지방문화는 배제된 수도권 중심 문화였다. 표준 한국어 교육은 한국의 표준 문화 교육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특정 지역문화교육 및 상호문화주의에 따른 문화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상호문화주의에 기초한 문화능력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특히 필요하다. 이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보급되는 교육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 교육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과 가족관계 개선, 또래 관계 개선, 그리고 나아가 학습 한국어의 원활한 습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문화교육 방법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문화를 정의하고자 한다. 문화란 한 인간이 태어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문화가 발생하게 되고, 어울려 살기 위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서 가치문화가 생겨난다. 그리고 삶을 영위하면서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문화가 형성된다.

지역 설화는 이러한 문화 교육에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설화는 언어문화, 가치문화, 사회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화는 오랜 시간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오면서 완성된 이야기이며, 그 안에 구전주체인 지역민의 정신, 가치관, 정서, 사상 등 삶의 총체가 반영되어 있다. 설화는 지역성이 있으면서 보편성을 갖춘 문학 장르로서 공감을 일으키면서도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다. 설화를 활용한 교육은 한국어 학습, 문화교육 재료로서도 가치가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제안된 여러 선행 연구는 지역 설화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광포설화와 민담을 중심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 특히 제주 설화를 바탕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은 연구가 된 사례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상호문화주의적 문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주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의 개념을 활용하여 학습할 문화 요소를 제주 신화 <문전본풀이>에서 찾아보고 이를 통하여 상호문화주의 교육 모형을 설정해 보며, 이 모형에 따라 교수학습지도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설화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초등교육과정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초등학교 과정에 한정되어 설화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고³⁾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화 교육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제안되어 왔다.

그 가운데 신경화(2000)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화를 활용하여 창의력 신장 교육을 시도하였다. 창의력과 설화 교육을 연계하여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창의력을 끌어내어 설화를 가르칠 수 있을지를 제안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구연을 통한 지도, 읽기에 의한 지도, 교수-학습에 의한 지도가 있다. 특히 교수-학습에 의한 지도로서 Glaser 모형을 근간으로 설화 교육 모형을 제시했다.

또한 설화 교육의 실제로 스키마 이론과 발문법을 통한 구토설화 지도 모형, 토의 학습을 통한 동명왕 신화 지도 모형, 마인드 맵을 통한 우렁각시 지도 모형을 보여 주었는데 다만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본 것은 아니고 방안 차원으로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창의력 신장 방법으로 제안된 이런 방법론이 실제 창의력 향상과 연결되는지 의문이 든다. 이는 설화가 갖는 ‘구전성’으로 인해 창의력 신장이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향상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방법론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이 있었다. 설화 교육의 다문화교육에 활용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국내 학생들에게 다문화 교육에 설화를 활용하는 연구와 다문화 가정 배경 학생 및 외국인 교육을 위

3) 장만식, 설화를 활용한 글쓰기 지도 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4) 신경화(2000), 「설화교육을 통한 창의력 신장 방안」,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해 설화를 활용하는 연구다. 설화를 활용하여 국내 학생들에게 다문화적 관점을 교육한다는 발상은 조화연(2006)⁵⁾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콩쥐팥쥐, 신데렐라 비교, 나무꾼과 선녀, 백조처녀 비교로 각 나라의 전래동화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다문화교육을 제안하였다. 전래동화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학습자에게 타 문화를 포용하는 이해심을 얻게 하고 자국 문화에 긍지를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단순히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활동이 다문화 아동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동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의 주장대로 어떤 ‘교육의 가능성 탐구’에서 그쳐버린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혜란(2010)⁶⁾은 아기장수 설화와 필리핀 알리구온 전설을 활용하여 다문화교육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그는 다문화 학생 6명을 선정해 구연을 통한 설화교육, 새로운 유형생성을 통한 설화교육, 텍스트 통합을 통한 설화교육의 실체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한국 설화의 특수성만을 주장해 오던 설화 교육 관행에서 벗어나 설화의 보편성을 교육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설화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장르다. 물론 그 안에는 인간으로서 공통적인 심리와 정서가 들어 있으나 단순히 설화를 ‘보편성’ 측면에서만 교육 도구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알리구온 설화도 아기장수 설화와 비교해 결말 부분이 크게 다른데 이는 단순히 해피엔딩이나 새드엔딩이냐를 떠나 민중 정서가 그 안에 담겨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 설화 교육 방법론을 제안하고 더불어 지역 설화를 교육에 활용한다는 연구도 있었다. 여지영(2005)⁷⁾은 임실군에 전승되어 오는 설화를 중심으로 지역 설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지역 설화 수집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읽기 전, 중, 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임경자(2006)⁸⁾는 부여 지역을 중심으로 설화 교육을 설계했는데,

5) 조화연(2006), 「전래동화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가능성 탐구」, 『論文集』 24, 301-316.

6) 이혜란(2010), 「다문화사회의 설화교육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여지영(2005), 「지역설화의 교육적 활용방안 - 임실군 설화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임경자(2006), 「說話를 통한 創意的 글짓기 能力 研究」,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체록된 설화를 중심으로 수업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과 학생이 직접 지역 설화를 체록해 와서 재구성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의 연구는 실제 수업에서 연구 내용을 적용하여 학생의 능력 향상 정도를 측정하였고, 전후 비교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주도 설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으로는 박희순(2003)⁹⁾이 주목할 만하다. 그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제7차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설화 지도 내용 변모에 초점을 맞췄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말하기 듣기 영역에서 ‘연극하기’ 내용이 추가되었다. 설화는 그 성격상 구전되어 오는 경우가 많고 설화 구연하기는 설화 교육 활동으로 많이 활용되는 활동 가운데 하나다. 말하기, 듣기 수업으로서 설화는 구전 영역을 확장해 연극으로 꾸미기에 적절한 교육 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말하기 듣기 영역에서 교재화를 위해 제주 설화 작품을 ‘구비문학 연구자의 연구 성과’, ‘문학성’, ‘사회적 거부감’, ‘발달단계와 아동 정서와의 부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다섯 편을 선정하는데 작품은 ‘천지왕 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 ‘삼성신화’, ‘설문대 할망’이었다. 또한 이 작품을 구연용 텍스트, 연극놀이용 텍스트로 현실화했고 교수학습 모형까지 제안하였다.

설화를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논의와 제주 설화 교육 방법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다. 또한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 학생 교육 방안, 다문화교육 방안도 제안되었다. 그러나 제주설화를 활용한 다문화 학생 교육 방법론 논의는 아직까지 진행이 된 경우가 없었다. 더구나 대다수의 지역 설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활용하여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을 가르치기 위한 방안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주 지역 설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중심으로 상호문화주의 교육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중도입국 청소년¹⁰⁾ 교육을 위한 제주 설화 활용 문화교육

9) 박희순(2003), 「교육연극 방법을 통한 제주설화의 교재화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방법론'이며, 특히 제주 설화를 활용하여 문화를 교육하고 이 청소년들의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문화능력 향상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외국인 부모 가운데 한 명이 한국인과 재혼한 재혼가정의 자녀이거나 한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자녀를 출산하고 살다가 함께 귀국한 자녀를 말한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이다. 외국에서 온 입장이라는 공통점에서 여성 결혼 이민자와 비교해 보면 중도입국 청소년은 매일 학교생활을 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결혼 이민 여성 가운데 몇 년이 지나도 한국말을 잘 못하고 한국어 학습 자체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는 반면 중도입국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더욱 많은 기회를 가지고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더라도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고 지내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강요되어 온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교육은 동화주의적 입장이 강했다. 하나의 표준 한국어와 문화를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학습자가 주류 문화를 잘 수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일방향 문화교육은 청소년기 학습자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때문에 청소년 문화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상호문화주의 교육이다. 상호문화주의 교육은 여러 문화가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동등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문화의 차이를 탐구하고 인정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먼저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를 어디까지 가르쳐야 할지 정하고자 한다. 어떤 문화 전체를 나열하고 그 세부 내용을 외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문화 자체가 언어로 전달되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부분이 언어로 전달되지 않을뿐더러 문화는 지금도 형성되고 변화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문화의 간략한 정의와 분류를 통하여 일정한 한계 내에서 문화교육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제주 설화를 활용하여 가르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화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한계를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청소년'으로 지칭한다.

또한 교육의 매개체가 되는 제주 설화를 문화를 중심으로 적절히 재구성할 것이다. 제주 설화 가운데 제주 신화는 본풀이로 불리는데 이는 제주에 구전되어 오는 신의 근본 풀이로 제주 신화의 기본이 되는 바탕이다. 본풀이는 제주 무당인 심방에 의해 전승되어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주 연구자들에 의해 채록된 본이 많이 있다. 이 채록본은 대부분이 옛날 말과 제주 방언으로 되어 있어 이를 현대어로 고쳐 쓴 참고도서를 선정하고 또한 이를 재구성한다. 내용상 학습에 부적절한 부분은 삭제하고 이야기 속 대사를 방언으로 적절하게 구성하여 언어문화 학습에 용이한 형태로 바꿀 것이다. 또한 신화 속 문화 요소가 드러나도록 일부 내용을 추가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재구성된 설화를 바탕으로 상호문화주의적 관점 학습을 위한 문화 학습 모형을 정하고 학습 활동, 문화 학습 성취기준, 진단평가, 교수학습지도안, 비교과 학습인 설화 문화 학습 캠프 프로그램, 평가 기준 및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차시별 수업과 문화 학습을 위한 본문 교육 내용의 발문을 만들어 본다. 이 발문은 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 교육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Ⅱ.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설화의 문화교육적 검토

1.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육

1) 문화교육의 목표

문화란 사전적 의미로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¹¹⁾로 정의한다. 즉 문화는 자연적이지 않고 인위적이며 창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물에는 문화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문화는 인류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이루어낸 모든 역사를 통칭한다. 그래서 문화의 의미는 광범위하고 집단마다의 특수성이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다른 나라 문화를 단기간에 학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외국인 학습자가 아니라 대부분 한국에서 정주해 살아가야 하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김소현(2015)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달리 사전 준비 없이 입국한 경우가 많아 초기 한국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육은 교사의 주관적 견해와 한정적인 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해야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교우관계 문제, 일상문화의 낯설음에서 오는 불이익, 학교 문화 부적응 문제 등 문화적 문제를 겪고 있다.¹²⁾ 특히 이 가운데 언어 문제는 지

11) 「문화」,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국립국어원, 2022

12) 김소현(2015),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pp.25-27.

방에 기반을 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표준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과 교육에서 배우는 언어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지방 방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 인생의 어느 특정 시점 문제가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교육 목표에는 지방문화를 반영해야 하며 언어를 포함한 한국적 정서를 이해하는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 이는 문화적응을 통하여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을 갖추기 위한 기반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교육목표는 문화능력 향상에 맞출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능력은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정의가 되어 왔는데 한상미(2008)는 문화적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 중 적절한 언어 사용에 관련된 사회문화적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¹³⁾ 이정민(2009)은 문화능력을 단순히 다른 사회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이를 실행하는 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국에서 습득한 가치 체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사고하며, 상대방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갖는 문화적 태도, 그리고 상이한 문화를 받아들일 때 심리적 거리감이나 충격을 극복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다른 사회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삶의 패턴을 선택하고 영위하는 문화적 생활양식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¹⁴⁾ 이는 오지혜(2013:77-78)가 Lussier(1997:238)의 문화능력 구성요소를 종합하여 말하는 문화이해력(savoir comprendre culturel), 문화비판력(savoir s'engager), 문화적응력(savoir-être culturel), 문화적용력(savoir faire culturel)과 연계되는 개념이다. 문화이해력은 인지적 영역에서 문화 인식 능력과 이해 능력이다. 문화비판력은 문화를 학습하고 비판적으로 기존 지식과 통합해 내는 능력이며, 문화적응력은 정의적 영역의 능력으로 학습자가 타 문화를 수용할 때 관대함을 갖고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용력은 문화 간 접촉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문

13) 한상미(2008).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적 능력의 평가-말하기 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 언어문화학』 5.1. pp.83-111.

14) 이정민(2009).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에 요구되는 문화능력의 교수-학습 문제를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31. p.126

화를 적용하는 능력으로서 인지적 능력에 해당한다. 위 정의를 종합해 보자면 중도입국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문화능력은 자국에서 이미 알고 있던 문화에 더해 새로운 한국에서 배운 문화의 차이점을 알고 인정하며 두 문화를 적절히 융화시키며 자신의 생활양식을 ‘선택’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문화교육 목표는 곧 문화능력 습득을 말한다. 문화교육 목표를 이해영(2000)은 Seelye(1984: 84-58)에서 설정한 문화교육 목표를 한국어 문화교육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행동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것
- 둘째, 언어의 상호작용과 나이, 성별, 사회적 계층, 주거지역 등 사회적 변수를 이해하도록 할 것
- 셋째,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관습적인 행동을 이해하도록 교육할 것
- 넷째, 어구에 나타나는 문화적인 내포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할 것
- 다섯째, 목표 문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것
- 여섯째, 스스로 목표 문화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
- 일곱째, 목표 문화에 대한 태도나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¹⁵⁾

위 문화교육 목표는 앞서 언급한 Lussier의 문화능력과 유사하다. 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비판적 수용을 말하고 있다.

문화능력 향상을 좀 더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한 예는 박영순(2003)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 목표를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목표 언어가 속해 있는 문화의 대략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 둘째, 모(母) 문화와 목표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 셋째,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행동과 언어표현을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행동과

15) 이해영(2000), 「프로젝트 활동을 활용한 한국 문화 학습」, 『Foreign languages education』 7.2. 409-434.

언어적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넷째,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평가할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다른 언어와 문화를 비교, 대조할 수 있다.

다섯째, 목표 언어가 속해있는 문화적 관습이나 가치관에 따라 목표 언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

여섯째, 학습자 자신의 모국어 문화와 목표 언어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이해를 통하여 두 언어문화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와 사용 능력을 향상시킨다.¹⁶⁾

여기서 문화교육 목표는 자기 모국 문화를 잘 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목표 언어(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모국 언어와 목표 언어의 비교, 대조를 통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위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문화 교육 목표를 설정해 볼 수 있다. 먼저 김윤경(2010)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교육 목표를 한국어 능력의 습득, 객관적 문화 이해, 비판적 문화 분석 및 평가로 보았다. 또한 급별로 초급 수준 학습자는 한국문화의 기본 문화 항목과 초급 어휘 문화 관련 항목을 통해 한국문화의 기본적 이해를 목표로 했고, 중급 수준 학습자는 한국문화의 한국문화교육일반 문화 항목과 중급 어휘 문화 관련 표현 항목을 통해 한국문화의 일반적 이해를 목표로 하였다. 고급 수준 학습자의 목표는 한국문화의 특수 문화 항목과 고급 어휘의 문화 관련 표현 항목을 통해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의 이해를 목표로 하였다.¹⁷⁾ 이는 한국문화 가운데서 ‘한국어’에 초점을 맞춘 급별 목표로서 한국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목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의를 발전적으로 전개한 예는 박정미(2012)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한국어 문화교육 목적을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며, 그 문화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모국문화와 목표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며 공동체적 삶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함’에 있다고 하였다. 그 세부 내용으로

16) 박영순(2003),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23. 67-89.

17) 김윤경(2010),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교육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한다’, ‘한국문화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모국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한다’, ‘공동체적 삶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였다.¹⁸⁾ 즉, 한국어 문화교육은 문화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교육을 통해 상호 발전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목표를 종합하여 필자가 논하려는 중도입국 청소년 문화교육 목표를 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행동 양식을 따라할 수 있다.

둘째, 모(母) 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새로운 문화적 관점을 갖는다.

셋째, 문화적 유연성을 획득해 타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다.

넷째, 자신만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해 공동체적 삶에 기여한다.

2) 문화교육의 내용

문화교육 내용¹⁹⁾은 여러 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이해영(2000: 413)은 문화교육 내용을 언어, 생활양식, 가치관, 지리, 역사, 제도, 성취문화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언어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언어 표현, 관용어, 속담, 경어법, 담화 구조 및 표지 등을 말한다. 그 다음으로 생활양식은 구성원의 의식주 일상에 나타나는 집단 특성을 말한다. 가치관은 집단 가치관과 세계관, 종교 등으로 언어와 생활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다. 지리는 지리와 관련된 정보로 특산물, 풍토, 기후나 관광, 여행 관련 정보도 이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역사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을 말하며 그 민족이 겪은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통틀어 역사라 볼 수 있다. 제도는 행정, 교육, 군사, 종교, 경제 등의 제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성취문화는 문화제, 문학작품, 미술, 공예, 음악, 건축, 음식 등을 말한다.

18) 박정미(2012), 「한국어문화교육에서의 다문화적 접근 방안 연구: 문화 간 의사소통 중심 문화 교육」,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2012.1. 113-122.

19) 여기서의 문화교육은 한국문화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인 문화 전체를 이르는 것은 아니다.

문화교육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발전적 방향으로 이끈 논의는 박영순(2003: 70)을 들 수 있다. 그는 문화교육 내용을 정신문화, 언어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제도문화, 과학기술문화로 분류하였다.

<표 II-1> 문화교육 내용 요소(박영순, 2003: 70-82)

문화 유형	내용	
정신문화	가치관, 민족성, 세계관, 정서, 상징체계, 사상 및 종교	
언어문화	언어적 요소	음운, 형태, 통사, 의미, 경어법, 속담, 관용어
	장르	시, 소설, 수필, 희곡
예술문화	대중 예술	음악, 미술, 무용, 영화 연극
	고급 예술	음악, 미술, 무용, 영화 연극
생활문화	의식주 생활, 여가 생활	
제도문화	법,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	
문화재	전통 문화재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현대 문화재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과학 기술문화	-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 요소의 예로는 조항록(2004)²⁰⁾을 들 수 있다. 또한 문화교육 내용 가운데 문화지식, 문화실행, 문화관점이란 개념을 들어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시하고 있는 예로는 김중섭 외(2017)²¹⁾가 있다.

문화교육 요소 구분은 기준도 다양하고 구분 방법도 다양하다. 그러나 문화교육 요소를 정하고 이 전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큰 의미가 없다. 문화란 기후와 같이 살면서 점차 적응하는 것이고 또한 최근에는 국제화로 인한 급격한 문화접변으로 다양한 문화가 한 지역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문화교육 요소 가운데 몇 가지만을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먼저 가치문화를 교육 요소로서 제안해본다. 가치문화란 정신적 가치 요소로서 지역 사람들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공유되는 어떠한 가치 요소를 말한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민족성, 정서, 가치관, 정신문화적 요소 등을 가치문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제주 설화 교육에서는 언어문화도 중요한 요

20) 조항록(2004),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 (試論)」, 『한국언어문화학』 1.1. 199-219.

21) 김중섭 외(2017), 「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국립국어원

소로 다루어야 한다. 어떤 문화는 경험으로 전승되기도 하지만 언어는 문화 전승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면서 대상이다. 이는 앞서 논의한 내용에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화교육 요소 중 ‘언어문화’가 항상 논의된다는 점에서 볼 수 있다. 제주 설화의 적절한 재구성은 제주의 언어문화를 전승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상문화가 있는데 이는 의식주, 종교, 여가 등을 포함하는 생활문화 전반을 말한다. 앞선 문화의 분류에서 기술 문화가 또 하나의 중요한 분류 가운데 하나이나 이를 포괄하여 일상생활 문화로 그 요소를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일상문화 자체가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제주 설화’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상문화 수준에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에서의 문화교육 내용을 가치문화, 언어문화, 일상문화로 나누고자 한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II-2> 본 연구의 문화교육 내용 요소

문화 유형	내용
가치문화	정신 가치 요소로 문화를 향유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공유되는 가치 요소
언어문화	지역의 언어를 기반으로 한 문화요소로 지역 방언과 속담,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을 포함한 언어 요소
일상문화	일상 삶과 연관된 문화요소로 의, 식, 주와 관련된 절차와 행위, 결과를 포함

2.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

1) 설화의 문화적 성격

설화는 민간에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로서 이두현 외(1991)²²⁾에 따르면 설화는 신화(myth), 전설(legend), 민담(folk tale)으로 나뉜다. 이 세 장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가운데 엄밀하게 구분이 어려울 때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체로 지니는 큰 특징을 기준으로 구분하자면, 첫째, 신화는 숭엄한 사실이고 전설은 대체로 사실로 믿어진다. 그러나 민담은 애초 사실과 관계없이 흥미를 위주로 한다. 여기서 ‘사실’이라는 말은 엄밀한 과학적 사실이 아닌 전승물에 의해 사실로 믿어지는 근거가 있음을 뜻한다. 둘째, 신화는 제의의 한 구성요소인 구송물로서 서사무가의 한국적인 양상 중에 하나라고 한다. 전설은 내용의 길이를 비교적 자유롭게 늘이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민담은 시종 고정된 형식을 따르며 모티프별로 구송되기 때문에 전설에 비해 오히려 형식이 엄격한 편이다. 셋째, 전승의 시공성에서 신화는 민족이나 국가 단위로 전승되거나 전설은 일정 시대나 지역 사물에 의존해 전승된다. 민담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유동성이 커 지역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파성이 크다. 넷째, 신화의 주인공은 신적 능력을 타고 나며, 전설의 주인공은 지역, 시대에 실제 있었던 인물이거나 특정 인격에 영격이 혼합된다. 반면 민담은 유형성을 띠는 관념적 존재로 효자나 바보 등이 있다. 그래서 신화, 전설, 민담의 주인공들은 입체적이지 않고 평면적이다. 다섯째, 신화는 신비한 현상을 애초 설명을 하지 않으려 하고 전설은 지형, 지명에 대한 향토 역사성을 띠며, 민담은 흥미를 위주로 한다. 여섯째, 신화는 집단 신앙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 통합적 기능을 하고, 전설은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애향심을 고취하며, 민담은 애초 흥미 위주의 사교적 오락물이기 때문에 민중성이 두드러진다. 즉 민담은 집단성보다는 개별성에 초점을 둔다는 말이다.

이두현 외는 제주 설화를 위의 신화, 전설, 민담과 달리 다른 분류를 적용한다. 그것은 ‘서사무가’인데 이는 무가 제의에 서사성을 띤 이야기가 덧붙여 전승된다

22) 이두현(1991), 장주근, 이광규, 『한국 민속학 개설』, 일조각

는 것이다. 이 서사무가의 신은 본토의 화석화된 신화의 신과 달리 연행 현장에서 살아남아 현세 인간에게 복을 주며 화를 막는데 사용이 된다. 그 때문에 제주 서사무가는 ‘본풀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본풀이는 신의 근본을 푼다는 뜻과 해방에서의 풀려남, 노여움을 풀어낸다는 뜻도 함께 지닌다고 한다.²³⁾

문학으로서 설화는 다른 장르와 차별되는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 설화는 구전되어오는 서사적 양식의 문학이다. 구전의 성격을 띠는 다른 동요, 민요, 민속극과 달리 설화는 서사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문자로 전달되지 않고 구전되어 오면서 가감된다는 점이 소설과 다른 점이다.²⁴⁾ 둘째, 설화는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다. 그럼으로써 설화는 학습자에게 문학적 창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다시 쓰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셋째, 설화는 현장성과 음악성이 강조되는 판소리, 서사 민요와 달리 말로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육적 활용도가 높다. 또한 전승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고 이야기를 들은 누구나가 전승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설화의 특징 중에 하나다.²⁵⁾²⁶⁾

그렇다면 설화를 교육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설화를 포함한 구비문학의 교육적 의의를 김기창(1991)²⁷⁾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구비 문학은 상상력의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 문학을 활용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문학에 등장하는 상상력은 당시 대중의 바람을 담고 있고 그 바람의 간접적인 성취를 전달한다. 이는 상상력을 통해 해방감을 느끼고자 하는 민중의 의지가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상상력의 결과가 단지 구비 문학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둘째, 구비문학은 말로서 전승되기 때문에 독자는 전승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르게 된다. 나아가 말하기, 듣기 등 언어 능력 신장은 미적 인식 능력 향상을 동반할 수 있다.

23) 본고에서는 서사무가를 하나의 장르로 독립시켜 논하지 않는다. 애초 서사무가에는 신화적 요소와 전설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서사무가 장르를 따로 설정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 때문에 서사무가 역시 설화로 칭하고자 한다.

24) 임재해,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지식산업사, 1991

25) 한희정, 「설화의 문학교육적 수용 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1.

26) 여기서 말하는 음악성이나 연행성이 서사무가에는 포함된 개념이지만 본고에서 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주 설화에는 이러한 음악성과 연행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동일한 개념으로 여기지 않는다.

27) 김기창(1991), 「국어과 교육에서의 구비문학 제재수용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셋째, 구비문학은 전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민족 풍속과 습관, 사상, 신앙, 가치관을 배울 수 있다. 구비문학 안에는 선인들의 지혜가 직·간접적으로 담겨 있고 이를 전승하는 과정에서 조상들이 중요시했던 가치관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단순히 자라나는 한국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적인 가치가 세계적인 가치가 되기 위해서 자칫 국수적 민족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인류 전체의 공감적 가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구비문학의 구연성은 청자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적 개선을 이룩한다. 우리나라 전통 구비문학은 충, 효, 우애, 신의 등 윤리적 주제를 전달하고 삶의 교훈을 전승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 도덕 요소를 설화는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 담아 구연자와 청자 사이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설화는 구어적 성격을 띤 문학이다. 이 때문에 설화를 문자화하여 교재로 만든다는 발상은 설화의 성격을 일부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한희정(2001)²⁸⁾은 설화작품을 문어체로 개작하여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은 설화교육의 보편성을 강조한 양상으로 진정한 설화 교육은 형식을 벗어난 데에서 살아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문어체로 구연된 설화의 문자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설화의 전달 매체와 수용 양상에 따른 특성을 여섯 가지로 정리해 제시한다.

<표 II-3> 설화의 전달 매체와 수용 양상에 따른 특성(한희정, 2001: 47)

소통양상	매체적 특성에 따른 전달 방식	수용양상	이야기의 원천
직접전달	구연	듣기	전달자의 이야기 경험
		보면서 듣기	전달자의 이야기 경험, 그림 사진 자료
	읽어주기	듣기	이야기책
		보면서 듣기	그림 있는 이야기 책
간접전달	인쇄 매체	보면서 읽기	이야기책, 그림책, 만화책
	영상 매체	보면서 듣기	영화, 애니메이션
	청각 매체	듣기	구연테이프, 시디
		보면서 듣기	그림책과 같이 나오는 테이프나 시디
전자 매체	보면서 듣거나 읽기	인터넷 웹문서, 시디, VCD, DVD	

28) 한희정(2001), 「설화의 문학교육적 수용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그는 이 가운데 구연에 의한 직접 전달 방식이 설화의 본질을 살리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문학 교육의 정서적 체험에 있다고 한다. 이야기를 통해 화자와 청자의 대면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아동은 생생하게 살아 있는 문학을 접하게 되고 이것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설화가 단지 구연으로 전승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만은 않다. 구연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설화의 교육 콘텐츠로서 변모는 단순히 설화라는 장르의 구어적 성격을 고수하고 이어가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재로 만들어지는 설화는 교재 상 텍스트로 존재하고, 그것이 인류 문화유산 전승이라는 사명감을 떠나 문화 학습의 궁극적 도달점이 아닌 시발점으로서 기능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한 언어 교환을 통한 의사소통 수준이 아니라 감정적, 문화적 교류가 가능한 청소년, 성인 대상 교육 콘텐츠로서 설화 교육은 구연이라는 방식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교육적인 효과를 성취할 수 있다.

2) 설화 활용의 문화교육적 의의와 다문화 교육적 가치

설화를 활용한 문화 교육 의의를 김재수(1988)²⁹⁾는 Northrop Frye의 <The Educated Imagination>을 인용하여 문학이란 곧 상상력의 소산이고 문학 교육은 상상력의 훈련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문학은 신화에 나타난 상상력이 그 원형이기 때문에 신화 교육이 곧 문학 교육이라고 하였다. 또한 신화 속 체계가 현대 사회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문학 교육을 통해 그 나라 신화 체계를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말은 곧 신화 교육은 문학 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며, 신화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체계를 배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이루어진 1988년 당시에는 단군 신화, 주몽 신화조차 초중등 교육에 활용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29) 김재수(1988), 「신화교육(神話教育)의 중요성(重要性) - N·프라이의 문학교육론을 중심으로 -」, 『한국초등국어교육』 6. 101-129.

그러나 이후의 설화 연구는 지속적으로 설화의 가치를 주장하며 교육에서 설화 콘텐츠 활용을 제안하여 왔다. 박미경(2000)³⁰⁾은 설화의 본질, 성격과 관련하여 설화 교육의 효용성과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설화는 구비문학이며 변화된다는 속성을 갖는다. 설화 문학은 구비전승되며 일회성과 현장성을 지닌다. 그 때문에 원형 그대로의 보존성보다는 전승과정에서의 변화가 특징이다. 그러나 설화는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로 풀이하는 서사성을 갖고 이는 곧 서사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설화의 문학성을 배우면서 문학이라는 장르를 이해할 수 있는 메타 콘텐츠로서의 활용성이 높다는 말이다.

둘째, 설화 구연은 화자와 청자의 공존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학의 창조와 수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설화의 구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상적 변용은 문학 창작이 어떻게 되는가를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또한 설화 속 이야기가 재형성 되는 과정을 그려보며 당시의 가치관과 생활 의식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설화를 학습한 학생들이 다시 재연하는 과정을 통해 창작과 향유라는 진정한 문학 교육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는 말이다.

셋째, 설화를 통한 문화교육이 가능하다. 대부분 설화의 성립은 근대 이전이고 이는 우리 민족 문화와 전통 문화가 설화에 반영되었음을 말해준다. 설화는 민족의 정서를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도구라고 한다. 설화에는 민중의 생활 경험과, 의식, 가치관이 있으며 민중들의 지배층에 대한 저항과 풍자가 담겨 있다. 설화는 기득권이 누려온 기록문학의 대척점에서 민중들이 향유해 온 민중 문학의 원형이 담겨 있는 것이다.

넷째, 설화 속에서 다양한 인간상을 배울 수 있다. 이는 설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특정 인물의 성격 대한 학습은 물론이고 인간이 갖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인간성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이다. 설화 속 이야기의 주 인물들은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 안에서 인물들의 상황 대처 양상은 교육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기 힘든 정의적 영역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는 곧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점차 겪고 있는 정서적, 의지적 측면의 인간성 상실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30) 박미경(2000), 「高等學校 說話 教育의 內容 選定·組織·方向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또한 설화는 현재 역사 교육이 갖는 왕조 중심, 정사 중심의 한계를 넘어 민간 서민의 역사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역사 연구 흐름과도 맞다고 한다. 실제 우리가 배우는 국사는 왕조를 중심으로 중앙의 역사를 배운다. 그러나 설화 속에는 당시 서민들의 모습이 매우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제주 설화 문전본풀이에서는 제주도 사람들이 왜 문전신과 조왕신을 모시는가가 나타나 있다. 그 신들이 어떻게 집안 신으로 좌정하게 되었는가를 신화적으로 해설한 것이다. 설화 속에서 문화의 시초와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제주 설화 가운데 <세경본풀이>가 그 특별한 예가 될 수 있다. <세경본풀이>에는 여성 주인공 자청비가 온갖 고난을 헤치고 사랑을 쟁취하는 과정이 드러나는데 이는 왕조 중심의 역사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모습이다. 신화 인물의 영웅적 서사로서도 설명이 가능한 자청비의 행동은 신화상 공간에서 소수자였던 여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여성 학습자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오정미(2006)는 이러한 자청비의 모습을 전통 신화의 틀을 깬 새로운 행동 양식이라고 하였다.

그 세계는 이 사회가 규정해 왔던 여러 규칙들 중 ‘여성은 선택할 수 없다’는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도 남성을 선택할 수 있고 사랑을 완성시키기까지 주도적이고 적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청비는 부모 또는 남성으로 인해 맺어지는 결연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문도령을 선택한다.³¹⁾

이는 주류였던 중앙 왕조 역사 중심 건국 신화나 남성 위주 사회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신화 세계, 즉, 거시적인 일반 이야기 틀을 깨고 지방만이 갖고 있는 미시적 신화 세계를 보여 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설화 교육 가치를 정리하자면 첫째, 설화는 구전을 통해 전승되기 때문에 서사 문학 교육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둘째, 설화는 그 안에 역사와 전통, 사상, 가치관을 담고 있다. 셋째, 설화를 활용한 다양한 교과 통합적 수업 설계가 가능하다. 넷째, 설화 속 다양한 가치관과 인간상을 학습하며 인간을 주제로 한 근본적인 문학 학습목표를 이룰 수 있다.

31) 오정미(2006), 「여성의 환상문학 세경본풀이」. 『겨레어문학』 37. p.208

다음으로 다문화 교육에서의 설화의 가치를 살펴보자. 설화 교육의 가치는 초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전승 문화교육에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태 언급한 여러 설화 교육 대상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 어머니와 아버지를 둔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 가치였다면 설화는 그 이외의 대상 교육에서도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설화 교육은 그 자체로서의 한국인이 되기 위한 어떤 통과의례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화주의적 입장은 최근에 다문화주의 담론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동화주의모델은 한 국가 내에 있는 비주류 문화를 주류 문화에 동화시키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모델이다. 즉 소수 집단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버리고 주류 집단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반면 다문화주의모델은 소수 집단 문화를 버리지 않고서도 주류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수 집단 다양성을 전제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춘 집단이 교류하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³²⁾ 다문화주의는 정의하는 학자마다 의견이 있다. 정상준(2001)³³⁾은 1980년대 미국에서 통용되기 시작한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를 “체계적 이론이나 권위적인 이론가가 없으나 일관성 있는 주장”이라고 하였다. 그는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문화, 인종, 종족, 성적 차이를 인식하고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며 포용할 수 있는 태도, 또한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홍기원(2006)³⁴⁾은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원주의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 민족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문화, 종교 공동체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주의 국가는 다양한 문화집단들의 목소리를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문화적 다양성의 추구가 모든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의 실패를 보완하려는 대안으로서 부각되고 있다고 하였다.

지역 설화 교육이 다문화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 동화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경호(1997: 295-298)³⁵⁾는 Schwartz(1995)를

32) 한승준(2008). 「동화주의모델 위기론과 다문화주의 대안론 프랑스의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23

33) 정상준(2001), 「연구논문 :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미국학』 24. 77-93.

34) 홍기원(2006),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 방안 연구」, 서울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인용하여 다문화교육을 주류 다문화주의와 비판적 다문화주의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주류 다문화주의는 주류 사상을 인정하면서 주변 문화를 다문화 학습 요소로 보았다. 이에 반해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사회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는 곧 문화에 있어서 주류는 없고 현존하는 문화가 재생산되는 과정만이 학습 요소로 남는다는 관점이다. 주류 다문화주의는 본토 주류 문화를 기준으로 소수 문화를 포용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오히려 소수 문화를 타자화하고 소외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결과적으로 이는 다문화교육에서 동화주의적 입장을 버리지 못한 표면적 다문화교육일 뿐이라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 만일 주류 문화가 제주 문화이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요소가 다른 나라의 문화라고 한다면 이는 곧 주류 다문화주의의 시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의 핵심은 학습 대상 문화가 주류이기 때문에 모두 배워야 한다는 시각이 아니라 문화학습 방법론과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의 정의적 영역의 학습 방법이다. 하나의 설화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 문화 요소를 다른 문화권의 설화와 비교하고 다른 문화와 비교해 봄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시각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주의자들이 말하는 문화란 결국 다양한 집단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탄생한 산물이라고 하였다. 설화 교육이 다문화교육의 연장에서 진행된다면 그것은 다문화주의에 반하는 동화주의적 입장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설화 전승자가 된 현대의 학생과 과거 문화와의 문화적 ‘대화’ 속에 재탄생하고 다시 전승되는 문화 재창조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설화 교육에서 ‘구연’이 교육 방법론으로서 주목받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35) 이경호(1997), 「다문화사회의 대두와 시민교육의 과제」, 『시민교육연구』 25.1

3. 설화 선정과 재구성 방향

1) 설화의 선정

설화를 활용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문화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설화를 선정해야 한다. 즉 현재에도 유효한 한국적 정서와 언어, 문화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것이며 다른 문화와 비교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는 보편성과 더불어 흥미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외국인 교육을 위하여 텍스트 선정 기준을 주은정(2002)³⁶⁾은 일곱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먼저,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문학적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학생에게 재미와 흥미를 잃게 되면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외국인에게 목표 언어인 한국어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내용까지 재미가 없다면 수업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로 학생의 언어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문학적으로 흥미가 있고 가치가 있더라도 학생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언어 구조로 돼 있는 작품은 텍스트를 읽는 데 실패 경험을 주게 된다고 한다. 세 번째로 가능한 현대 작품이 좋은데 이는 고전 문학은 고어(古語)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대 작품일수록 언어가 현재 쓰는 언어와 가깝고 실제 생활에 가깝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분량이 길지 않은 작품이 좋으며, 이는 본문 양이 긴 장편은 원어민조차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편은 개인적인 독서로 권하고 교육 현장에서 작품은 단편이 적합하다. 그렇지 않다면 단편을 먼저 제시하고 점차 중편, 장편으로 교육적 위계를 높이는 방안도 권할 만하다. 다섯 번째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설화 주제가 보편적이라면 문화가 다른 배경에서 자랐더라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 우정, 질투, 행복과 같은 인간의 원초적 감정, 부모, 친구, 형제, 자식과 부모, 스승과 제자의 인간관계, 굳은 의지, 강한 정신력, 정직, 성실, 신뢰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녀

36) 주은정(2020),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야 할 가치 등이 풍부하게 담긴 작품이 좋다. 여섯 번째, 문학적 가치가 풍부한 작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문학적 가치는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준다. 문학적 가치는 오랜 시간 기억에 남게 해 주고 인생의 방향성을 정해준다는 점에서 작품 선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국의 모습과 생활을 담은 작품, 즉 한국 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 전래동화나 한국 어린이용 그림 동화책과 같이 한국인의 정사와 한국을 알 수 있는 동화책이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하였다.

여기서 현대 작품일수록 좋다는 기준은 현대에 재창작된 작품을 말한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설화는 구전되어 오면서 현대어로 개작되기도 하였다. 이런 면에서 설화는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 있으며 앞으로의 언어 변화도 반영할 수 있는 열린 문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기준으로 설화 작품 선정 기준을 제시한 예로는 송지혜(2010)³⁷가 있다. 그는 한국어 학습자 요구 분석과 영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 텍스트 선정 기준을 토대로 설화 작품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기준은 첫째,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작품이어야 한다. 둘째, 세계적으로 비슷한 작품이어야 한다. 셋째, 한국 문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넷째, 형식면에서 너무 길지 않고 중복된 사건이 제시되어 학습자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설화 내용이 학습자의 동기유발과 함께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에서 특이한 점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작품을 선정하여 학습자가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점, 반복되는 사건을 패턴으로 제시하여 이야기 변주를 줄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설화 선정 기준에 더해 제주 설화 교재화를 위한 작품 선정 기준을 제시한 예로는 박희순(2003: 57-66)을 들 수 있다. 그는 제주 설화를 교재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교재화되는 작품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구비문학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 속에서 대표성이 드러난 작품

둘째, 문학성이 있는 작품

셋째, 어린이들의 발달 수준과 정서에 부합되며 교육성이 내재된 작품

37) 송지혜(2010), 「한국어교육에서의 설화를 활용한 언어·문화 연계 수업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넷째, 제주인의 생활, 사상, 감정 등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품
다섯째, 사회적 관념으로 볼 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작품
여섯째, 종교 집단이나 특정 이익집단으로 하여금 문제를 제기 받지 않는 작품
이 기준은 특별히 제주 설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선정 기준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제주 설화 교육에서 참고할 만하다. 특히 박희순은 위 기준에 따라 제주에서 전승되는 15가지 본풀이를 분류하여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4> 제주 설화 교재화 작품 선정 기준의 예(박희순, 2003: 57)

신화 구분	본풀이 구분	구비문학 연구자의 연구성과	문학성	사회적 거부감	발달단계와 아동 정서와의 부합	
개벽신화	천지왕본풀이	◎	◎	없음	◎	
	초공본풀이	×	×	종교적 거부감	×(가혹한 징벌)	
	이공본풀이	×	×	간음 등 사회적 거부감	×(가혹한 징벌)	
	삼공본풀이	◎	◎	없음	◎	
	삼승할망본풀이	×	×	조금 있음	임신과 해산이 주를 이루며	
	일반신화	마누라본풀이	×	×	조금 있음	임신과정에 대한 묘사 노골적임
		세경본풀이	◎	◎	없음	◎
		차사본풀이	×	×	조금 있음	×(잔인한 징벌)
		멩감본풀이	×	×	조금 있음	×
문전본풀이		×	×	계모에 대한 나쁜 이미지	×(살해, 계략 등 정서상 안 좋음)	
시조신화	철성본풀이	×	×	조금 있음	×	
	삼성신화	◎	◎	없음	◎	
	설문대할망	◎	◎	없음	◎	
당신화	당본풀이	연구 대상에서 제외				
조상신화	조상신본풀이					

이상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설화 문학 작품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면서 또한 작품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설화 자체가 소설이나 시와 달리 엄격히 정해진 분량이나 글자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플롯만 유지한다면 얼마든지 변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효과적인 문화교육을 위한 제주 설화 선정 조건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상 상식적인 전개와 등장인물 성격이 보편적인 작품을 선정한다.

둘째, 작품의 전개가 직선적이고 단순한 구조의 설화 작품을 선정한다.

셋째, 1~3회 수업 과정안으로 교수가 가능한 적절한 분량의 설화를 선정한다.

넷째, 이야기가 위기와 절정이 있어 흥미로운 작품을 선정한다.

다섯째, 한국적 정서와 언어, 문화가 드러난 작품을 선정한다.

여섯째,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문화요소가 드러나는 설화를 선정한다.

다음으로 제주 신화, 전설, 민담 중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야 마땅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강등학 외(2002: 52)³⁸⁾에 따르면 신화, 전설은 민족, 씨족, 지역 동동체로 그 전승범위가 한정되는 데 반해 민담은 지역적 구속도 없다고 한다. 이는 민담이 갖는 구조적 유사성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말이다. 즉 민담은 문화 비교 차원에서 학습 자료로 가치를 지니지만 특정 지역 문화 학습을 위해서는 신화와 전설이 조금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도 제주에는 독특한 구전 양식이 있는데 이를 ‘본풀이’라 한다. 본풀이는 신의 내력을 근본에서 풀이한다는 뜻으로 제주 신화 구전 양식이며, 제주에서는 무당이 이 역할을 해 왔다. 본풀이는 문화적 요소가 풍부하고 기승전결의 구조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 설화 가운데 일반신화를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제주 일반신화 <차사본풀이>, <세경본풀이>는 중장편으로 볼 수 있다. 차사본풀이는 전반부 과양생이와 삼형제 이야기, 후반부 강림이 저승 기행 이야기로 나뉘는데 흥미로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긴 편이다. <세경본풀이> 역시 문도령과 자청비의 만남, 자청비 고난 이야기, 재회한 자청비와 문도령의 그 뒷이야기까지 분량이 길다. <초공본풀이>는 이야기 전개가 이어지다 복잡해지는 등의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 <삼성신화>, <설문대할망본풀이>, <맹감본풀이>는 지나치게 짧다. 짧은 이야기는 그만큼 서사성이 약하기 때문에 흥미를 주기 힘들다.

적절한 분량으로 서사성이 있는 본풀이로는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문전본풀이>, <칠성본풀이>가 있는데 이 가운데 <문전본풀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문전본풀이>에는 제주 문화적 특수성이 담겨 있다. 문화적 특수성이란 문화요소 가운데 특별히 제주 문화를 말한다. 다른 설화에도 문화적 특수성이 일부 있으나 특별히 제주 문화의 특수성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본풀이로서는 <문전본풀이>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38) 강등학 외(2002),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표 II-5> 본 연구의 제주 설화 교재화 작품 선정 기준

신화 구분	본풀이 구분	분량	서사성	문화적 특수성
일반신화	초공본풀이	×	△	○
	이공본풀이	○	○	×
	삼공본풀이	○	○	×
	세경본풀이	×	○	○
	차사본풀이	×	○	○
	멩감본풀이	○	○	×
	문전본풀이	○	○	○

또한 <문전본풀이>는 가족서사의 의미도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에 들어와 경험하는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 문제는 <문전본풀이>가 어떤 도덕적 당위성의 차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와 맞닿아 있다. 이는 새로운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태도이며, 가족 상호간 협력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족은 불행해지고 해체된다는 주제의식을 보여준다. <문전본풀이>를 단순히 외지에서 온 타자, 혹은 첩이 약자로서 받은 폭력을 형성화한 작품으로 여기기보다³⁹⁾는 개인 차원에서 갈등을 해석하고 공동체에 적응하는 태도를 교육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설화의 재구성 방향

앞서 이야기했듯 설화는 이야기 플롯을 유지하면서 변형이 가능하다. 또한 설화는 구전되는 성격이 있어 개별 구연자가 바꾸어 전달할 수도 있다. 이는 설화 교육 목적이면서 설화 교육이 의도하는 바 그 자체다. 그리하여 새로운 이야기가 집단으로 전승될 때 설화가 갖는 진정한 힘이 드러나는 법이다. 다만 이야기의 맥을 잇는 주요 플롯은 유지해야 한다는 유의점이 있다.

39) <문전본풀이>에 나타나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폭력 양상을 최여진(2021)은 심리적, 사회구조적 맥락을 고려하여 설명했는데, 그의 폭력은 가부장적 지배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았으나 ‘폭력’ 행위 자체를 정당화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단순한 악녀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입체적 인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현실 가족관계에서 태도를 결정하게 만드는 내용으로서 가치를 보여준다.

그리고 설화는 수준별로 각색이 가능하다. 동화책으로 만들면 짧게 만들 수 있고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며 길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구연자에 의해 분량과 세부 내용을 마음껏 변용할 수 있는 구전문물로서 설화가 아니라 교재로 제시되는 설화는 텍스트화 된다는 점에서 그 수준과 분량을 정해야 한다. 대상이 중도입국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 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도 삭제해야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충분히 풀어서 써야 한다.

먼저 아동 교육을 위한 옛 이야기 재구성 방향은 최운식, 김기창(1998)⁴⁰⁾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전래동화 재구성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대상 학습자의 이해 정도와 흥미에 맞게 고쳐 써야 한다.

둘째, 비교육적인 동화는 교육적으로 고쳐 써야 한다.

셋째, 이야기의 길이를 적당하게 고쳐 써야 한다.

넷째, 반복되는 어휘와 사건을 리듬 있게 배치하도록 한다.

이에 더해 Ellis & Brewster(1991)⁴¹⁾는 또한 이야기 재구성 원칙을 제시했는데, 쉬운 어휘 사용, 단순한 문장으로 혼란을 줄일 것, 긴 문장은 둘로 나눌 것, 주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하며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생략할 것, 서술문은 대화체로 재구성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인물을 설정하거나 배제시킬 것이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아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 재구성의 원칙은 김성혜(2005)⁴²⁾가 있는데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읽기 텍스트로서 전래동화 재구성 방안을 먼저 전래동화에 나와 있는 옛날 어휘나 문체, 어려운 어휘, 문장구조는 좀 더 일상적이고 현재의 사용빈도가 높으며 재외교포 아동의 수준에 맞는 어휘로 바꾸되,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문맥상으로 충분히 예측되거나 한국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어휘들은 그대로 두라고 했다. 다음으로 너무 긴 문장은 좀 더 단순한 문장으로 바꾸고 특정 문법구조와 같이 가르치기 원하는 문장이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말을 첨가시키도록 했다. 또한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속담, 격언, 관용구는 난이도를

40) 최운식, 김기창(1998), 『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41) Ellis, G., & Brewster, J. (1991), 「The storytelling handbook for primary teachers」. London: Penguin

42) 김성혜(2005),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65-69

고려해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너무 지나친 재구성으로 이야기 주제를 흐리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오히려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더 강화하여 재외동포 아동들이 스스로 쉽게 주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변형하라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반복할 부분은 반복해 주어야 하고 강조할 것은 강조해 주고, 의성어나 의태어를 잘 활용하여 좀 더 재미있고 역동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되도록 우리 전통문화와 옛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그림이나 삽화 또는 사진을 잘 조화시키도록 하되, 전통문화와 관련된 그림이면 무조건 제시해 줄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고 시각적으로 집중할 수 있으며, 본문 내용을 추측하거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 시간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집중할 수 있는 적당한 길이로 이야기를 재구성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로서의 여성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한 설화 재구성의 원리를 서인덕(2014)⁴³⁾은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설화의 원형에서 지나친 재구성으로 주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핵심 줄거리를 유지한다. 둘째, 한국문화인 정신문화, 언어문화, 생활문화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셋째, 교육적인 내용이 되도록 재구성한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에 맞게 재구성한다. 다섯째, 설화의 길이를 너무 길지 않도록 재구성한다. 효율적 수업을 위해 설화의 분량이 무리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한다. 여섯째, 설화가 가지고 있는 구비문학의 묘미를 살려서 구어체 서술형으로 재구성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여성결혼 이민자와 유사한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기준은 설화의 재구성 원리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제주 설화를 재구성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하면서 의도성을 가지고 재구성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언어’다. 제주 언어는 다른 지방과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한국 문화 안에서도 환경에 의한 언어문화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교육하는 데 좋은 재료가 된다. 또한 문화능력 향상을 위해 한 언어를 이해하는 일은 가장 기본 단계이므로 적절히 재구성본에 제주 언어를 삽입해도 의미

43) 서인덕(2014) 「설화를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9-30.

있을 것이다.

제주 설화를 기록한 책을 보면 제주 방언이 무척 많이 들어가 있다. 또한 현대에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어휘가 많아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학습자의 이해도를 크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제주에서만 사용하는 특이한 속담이나 현재에도 많이 사용하는 방언은 원형을 유지해 적거나 몇몇 적절한 장면에서 첨가하여 제시한다.

다음으로 내용상 잔인한 장면은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는 배제하고 간략하게 제시하거나 장면 자체를 바꾸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잔인하고 세밀하게 묘사된 악인의 징치 부분은 삭제하거나 변형해야 한다.

위의 여러 연구자의 설화 재구성 방향을 종합하고 특별히 제주 설화 교육을 위한 재구성 방안을 더하여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문화 교육의 측면에서 현재에도 활발히 사용되는 제주 방언을 대화에 적절히 사용하여 언어 사용의 독특성을 보여준다.

둘째, 핵심 줄거리는 그대로 유지하되, 변형해도 주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잔인한 장면, 성적인 장면은 삭제하거나 적절하게 윤색한다.

셋째, 교육이 가능한 형태의 적절한 길이를 만들기 위해 긴 장면은 생략하거나 줄거리 요약으로 줄여 편집한다.

Ⅲ.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을 위한 제주 설화의 내용

1. 제주 설화의 문화교육적 의미

제주 설화의 문화교육적 의미는 이야기 구조적 공통점과 세부 내용에서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설화는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존재하고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다. 어떤 설화 구조는 여러 지역에서 유사하게 전승이 된다. 다만 그 세부 내용은 각 문화에 맞게 변형이 되는데 이를 교육 요소로 찾아 학습시킨다면 효과적인 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설화 선정 기준에 따라 제주 설화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설화는 <문전본풀이>이다. 문전본풀이는 계모설화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설화가 발견된다. 그러한 구조적 유사성은 인간 본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 학생 개인이 문화적으로 서로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의 인류라는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 그 다음은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교육 절차가 필요하다. 문전본풀이에는 제주 가옥의 특성과 제주 전통 신앙, 제주도민의 생활양식, 정신문화 등이 드러나 있다. 제주 설화 속에 있는 이러한 문화 요소를 찾아 학습하고 문화 이해 능력을 확장하는 것이 곧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제주 설화의 문화교육적 의미가 된다. 그리고 제주 문화 분류와 그 요소를 다 찾아 나열하지 않고 본 논문에서의 연구 대상인 <문전본풀이>에서 찾을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을 제안한다.

1) 문화의 분류

문화 분류 가운데 가치문화는 제주도 도민들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적 요소를 말한다. 가치의 본 의미에는 긍정적 의미로서의 ‘바람직함’의

의미가 강하다. 이는 가치문화가 형성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경험,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며, 그 영향력이 사회 전체에 미친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가치문화가 한 문화권에서는 인정받고 가치 있더라도 타 문화권에서 온 사람의 시각에서는 가치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한 문화권의 가치문화는 그 문화권 내에서 인정받은 가치로서 문화교육 요소로서 인정될 수 있다. 관념적 가치를 담은 제주 문화요소는 제주 여성의 지위와 역할과 권당 문화를 들 수 있다.

다음은 제주 언어문화를 다른 분류로 볼 수 있는데 제주 언어는 타 지역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제주 방언이 그 중 하나이며 또 하나는 제주 속담이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제주 사람들이 ‘육지’라고 부르는 본토와 언어 차이가 크다. 지역어를 만드는 원인이 산맥과 강이라면 제주는 남해바다가 본토와 제주를 나누는 커다란 장벽이었다. 그러나 제주 방언은 현대에 와서 소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대에도 노년층을 중심으로 방언이 쓰이고 있지만 젊은 층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어린 아이들은 거의 쓰지 않는다.⁴⁴⁾ 제주어를 보존하려는 여러 방면에서의 사회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제주어의 점진적 소멸은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 문화가 환경의 차이로 인해 변화하는 것 또한 문화의 속성이다. 언어문화를 하나의 문화교육 요소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

여기서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라기보다는 제주 방언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오창명(2017)⁴⁵⁾에 따르면 제주 언어라는 말에는 제주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준어가 함의돼 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아버지’를 뜻하는 말로 제주에서 쓰이는 ‘아버지, 아버지, 아바지, 아방’을 모두 제주의 언어로 포함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주어는 제주의 방언에 한정해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일상문화를 들 수 있다. 제주는 화산 지대, 섬, 한국의 남쪽 지역이라는 지형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은 오랜 세월 살아 온 제주 사람의 일상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으로 인해 구불구불한 ‘올레’

44) 한라일보, 2011.03.11., <기획/사라져가는 제주어 지키기> 제주어 사용실태(6), <http://www.ihalla.com/article.php?aid=1299769200356978020>

45) 오창명(2017), 「제주의 언어」, 『제주학개론』, 제주연구원 제주학총서 27, 180-200.

가 만들어졌고 현무암이 많아 제주 돌담이 특징적이다. 또한 배수가 잘 되는 환경이라 좀처럼 홍수가 나지 않지만 논농사가 어려워 밭농사가 주를 이루기도 한다. 밭농사를 주로 하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하는 곡식은 주로 ‘메밀’이 되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메밀로 만든 음식이 유명하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은 민간신앙이 자연스레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의 민간신앙은 제주도만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일상문화의 한 요소다. 제주의 무당은 ‘심방’이라고 불리며 제주 신화의 기반이 되는 일반신 본풀이와 당신 본풀이를 전승하는 주체다. 제주에 살고 있는 어른이라면 어린 시절 동네에서 심방이 굿하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제주의 일상문화에서 민간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 왔었나를 보여주는 예가 된다.

2) 문화의 요소

제주 문화 전체를 단 기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는 문화가 언어로 학습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보다 많은 부분이 실제의 경험과 오랜 시간 체류를 통하여 습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화를 깊이 있게 가르치기보다는 문화의 여러 유형과 요소를 들어 학생들에게 문화다양성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언급하는 문화 요소는 제주 설화 <문전본풀이>에서 찾아 설명할 수 있는 문화 요소로 한정한다. 앞서 논의에서 설화 속 문화 분류를 가치문화, 언어문화, 일상문화로 제안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선정 설화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인지시키고 문화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제주 설화 속 문화 분류에 따른 문화 요소

문화 분류	문화 요소
가치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강인한 여성과 성 평등적 가치 • 제주인들의 공동체 의식 ‘곶당’문화 • 제주말의 종결 어미
언어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 • 속담
일상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문화

문화 분류	문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문화 • 민간신앙

(1) 강인한 제주 여성과 성 평등적 가치

제주도는 예로부터 여성의 역할이 비교적 큰 지방이었다. 김혜숙(1999)⁴⁶⁾은 문헌본풀이에서 남선비의 무능함이 곧 상대적으로 제주 남성의 위치가 열세에 있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본부인은 영악하거나 간교하지 않은 제주 여성 전형의 그려냈다면 특별히 멋은 없으나 우직하고 순수하면서 직선적인 유형이라고 하였다. 귀향하지 않은 남편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찾아 갈 정도로 활동적인 모습도 보여 준다.

제주 설화는 여신 중심 무속 신앙이 그 특성이라고 하였다.⁴⁷⁾ 그는 유독 제주 신화에 여성신의 출생담이 많다는 특징을 예로 들어 초공, 이공, 세경, 칠성본풀이에 늣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기자치성을 드리고 자식을 얻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자식은 대체로 딸이라고 하였다. 또한 여성신의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헤안이 여러 본풀이에서 나타나는데 <송당계 본풀이>에서는 아내 백주또가 남편 소로소천국에게 수렴을 접고 농경을 해야 한다고 권해 농경생활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소천국이 밭을 갈다 싸간 점심을 이웃에게 쥐버리고 소까지 다 잡아먹자 화가 나 이혼을 요구하는데 여성 측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잘못을 저지른 남편이 집을 나간다. 김혜숙(1999)은 이 장면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이때 외지에서 혼입한 부인이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대책 없이 내쫓긴다. 남편은 첩을 얻어 딴 살림을 차리고 있다. 한국의 전통가족에서는 부인이 이혼을 당하여 쫓겨나는 게 통상적이다. 혼인 거주규칙의 관점에서 볼 때 초혼에서 분명히 父處制의 성격을 띠었던 이들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서는 남편이 집을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남성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노

46) 김혜숙(1999), 『제주도 가족과 권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47) 김정숙(2000),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동경제력을 지닌 제주 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출계가 명백한 부계 이고 도처에 가부장제적 성격이 농후한데도, 이혼제도에 있어서는 여성의 독자 적 결정권과 독립성의 측면 또한 만만치 않게 나타난다. 여기서 제주도 가족의 특성을 가리켜 ‘기혼여성 중심’이라는 지적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⁴⁸⁾

일상에서 여성의 권리는 신화적으로도 설명되는데 이는 제주 설화 가운데는 여성 영웅을 주인공으로 삼는 일화에서 찾을 수도 있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를 살펴보면 자청비 이야기는 영웅의 일생을 닮았다. 조동일(1971)이 제시한 영웅의 일생은 다음과 같다.

- A.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다.
- B. 잉태나 출생이 비정상적이다.
- C.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다.
- D.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
- E. 구출 ·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 F.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혔다.
- G. 위기를 투쟁적으로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었다.⁴⁹⁾⁵⁰⁾

여성 영웅이 등장해 위기를 극복하고 신으로 좌정한다는 이야기는 설화 중에서도 특이하며, 주체적 여성상을 보여줌으로써 제주 신화를 대표하는 가치가 높은 이야기다.

고민에 빠진 남성에게 여성이 적절한 해답을 주는 이야기는 <차사본풀이>에도 등장한다. 차사본풀이에서 악행의 결과로 세 아들이 죽고 이에 원통함을 느낀 과양생이는 마을 원님인 김치원님에게 민원을 올리는데 김치원님은 사람이 왜 죽었는가를 어떻게 산 사람이 답을 찾을 수 있겠냐며 속수무책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그러던 중 그의 아내가 관원 중 가장 유능한 강림이에게 이 일을 해결하도록 시키라며 꾀를 내어 준다. 여기서도 해답을 주는 것은 김치원님의 아내다. 그

48) 김혜숙(1999), 앞의 책, 157-158.

49) 조동일(1971), 「英雄의 一生, 그 文學史的 展開」, 『동아문화』 10,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65-214. 재인용

50) 조리라(2020), 「세경본풀이의 현대적 활용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16.

런데 강림이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답을 찾지 못한다. 강림이는 문제를 안고 그의 본처에게 가서 하소연하는데, 본처가 다시 해답을 준다. 바로 저승으로 가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다. 두 남성인 김치원님과 강림이의 문제를 김치원님 아내와 강림이 아내가 해결해 주는 장면이다.

이러한 여성의 주요한 역할을 황인순(2020)⁵¹⁾은 <차사본풀이>에서 강림 부인의 조력적 행위로 보아 설명하였다. 이는 이 서사에서 변형을 준 주체적 인물로서 강림이 아내가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특이한 점은 강림이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후 어떤 묘사도 되어 있지 않으나 그녀는 이미 저승으로 가는 방법과 길을 알고 있는 신적인 인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 설화에 따르면 세계를 창조한 것은 창조신 ‘천지왕’이지만 제주를 창조한 것은 천지왕의 셋째 딸 ‘설문대할망’이다. 김창현(2018)⁵²⁾은 설문대할망이 그리스 신화의 가이아와 비교해 거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일반적인 여신의 모습과 달리 설문대할망은 노동을 통해 섬을 창조해 내는 장면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설문대할망은 제주 섬에서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한다. 그리고 흙을 날라 한라산을 만든다. 그의 노동 결과가 제주 곳곳에 전설로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치마가 찢어지고 헤질 정도로 가난해서 그 치마 틈사이로 흘러 떨어진 돌이 오름이 되었다는 장면도 있다. 이런 설문대할망의 모습은 노동하는 민중과 제주 여성을 대표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즉, 설문대할망 설화에서 제주 여성의 노동력, 생산성, 창조력, 검소함, 강인함 등을 찾을 수 있다.

‘서귀본향당 본풀이’에서는 강인하다 못해 남자 신을 압도하는 여자인이 등장한다. 한라산에서 태어난 산신 바람운⁵³⁾이 고산국과 결혼을 하는데 고산국의 동생인 지산국이 더욱 예쁜 것을 알게 돼 바람을 핀다. 바람운과 지산국은 한라산으로 도피하는데 이를 알게 된 고산국이 활을 들고 따라와 둘을 죽이려 한다. 바람운과 지산국은 고산국에게 잡혀 살려달라고 빌고 고산국은 차마 동생과 남편을

51) 황인순(2020), 「신화적 공간의 생성과 여성 주체 - <차사본풀이>의 강림 부인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 118-141.

52) 김창현(2018), 「제주 여성신화에 나타난 글로컬리티와 세계화 전략- ‘설문대할망’과 ‘자청비’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0, 347-372.

53) 바람운은 전승에 따라 ‘바람웃도’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한라산에서 솟아났다고 한다. 그러나 바람운의 출신에 대해 ‘홍토나라 비오나라’라는 설정은 그가 토착신이 아닌 유입신일 가능성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권태호, 2011)

죽이지 못하고 갈라선다. 이 설화에서 고산국은 도술에 능하고 활을 잘 쏘는 장부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곧 권력자의 모습이며 이런 이야기의 전승은 제주도에서 여성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 왔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모습이 될 수 있다.

(2) 지역 공동체 ‘퀘당’문화

‘퀘당’⁵⁴⁾은 제주 방언으로 좁은 의미로는 친인척을 포함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지역에서 가족과 같은 인간관계를 맺는 이웃들을 말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실제 퀘당과 퀘당 문화에서 쓰이는 퀘당과는 그 뜻이 조금 다르다. 실제로 퀘당이라고 쓰이는 어휘는 친인척의 의미로 더 자주 쓰이고 퀘당 문화에서의 퀘당은 제주도 전체 가운데 일정 지역 내에서 교류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로 쓰인다.

김혜숙(1999)은 통혼권(通婚圈)의 개념으로 퀘당 문화의 형성을 이야기하였다. 통혼권이란 남녀 간 혼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범위와 집중도를 말한다. 이 통혼권은 생존 전략이 반영된 것인데 인력의 혼입(婚入)과 혼출(婚出)이 이 범위 안에서 발생하며, 또한 혼인으로 맺어진 친가, 외가, 처가가 외적으로 커질 수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 기반을 두고 추론해 보자면 섬 외부와 교류가 활발하지 않던 시대는 통혼권이 육지 본토보다 좁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으며, 이것이 자연히 폐쇄적인 집단 의식 형성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 퀘당 문화는 이런 환경에서 자연스레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퀘당 문화는 현대의 가치문화로서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까. 이 문화는 ‘협력’과 ‘협동’을 기반으로 한다. 퀘당 문화는 여전히 유효한 문화로서 특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⁵⁵⁾

앞서 언급했듯 가치문화라는 것은 그 문화권에서 오랜 시간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시대나 관점으로 부정하고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

54) 퀘당은 ‘권당(眷黨)’에서 온 말이라는 유래가 있다.

55) 김도원, 김우현, 김도훈, 김인균(2020). 「제주 퀘당정치: 지속과 변화-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54』. 79-108.

런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교육하고 학습해야 할 것이다. 제주의 켄당 문화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변화되고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문화로서 그 존재를 인지하고 배우는 일은 제주 문화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가치문화란 과거의 전통이 만들어 내어 현재 존재하는 것이고 그 문화가 지금은 가치가 없다고 일부가 인정하더라도 그 자체를 배우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화지식을 가르치는 일은 문화의 계승 여부를 다음 세대에게 일임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긍정적 문화 가치를 계승하고 부정적 요소를 걸러내는 주체적 시각도 갖출 수 있게 된다.

(3) 제주 방언

제주의 방언은 지역적 특성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표지 중에 하나다. 지금도 나이별로 빈도는 다르지만 활발하게 쓰이고 있으며 잘 모를 경우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생소한 부분이 있다. 제주 방언은 어휘와 통사적 측면에서 특이성이 나타나는데 정수빈(2012)⁵⁶⁾은 현기영 소설에 나타난 종결법을 중심으로 제주 방언을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일부 다른 점이 있어 이를 변형해서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정리한 종결법의 유형을 일부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⁵⁷⁾

<표 III-2> 존대법에 따른 제주 방언의 종결형

구분	종류	유형	예시문
존대 표현	서술법	-우다/-수다	바다에 떨어진거 닻수다
		-네네다	편지도 잘 안옴네다
	의문법	-우파	무슨 손이 그리 크우파?
		-네네까	걱정이 안됨네까?
		-네네가	무사 이리 늦음네가?
	명령법	-마쌌	무사 마쌌?
청유법	-네서	손으로라도 저음서	
	-마쌌	이 대회를 마무리합서.	
평대 표현	서술법	-아	그건 서울 조캐 말이 맞아.

56) 정수빈(2012), 「현기영 소설에 나타난 제주방언 양상」,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7) 정수빈(2012)의 방언 종결형 어미 정리 내용에는 현실 사용 제주말과 다른 점이 있어 평대 표현의 의문법과 명령법, 청유법 및 하대 표현 의문법 등은 연구자가 추가하여 변용했다.

구분	종류	유형	예시문	
하대 표현	의문법	-쥬(지우)	병을 옮을까 얼굴을 싸맨 거쥬	
		-저	아고 봄 잡이라 오래 잤저	
		-거	경찰에서 알민 우린 어떻 되는거?	
		-고	이고 무신 불이고?	
		-서	밥 언제 먹어서?	
	명령법	-샤	가이는 집에 가샤?	
		-아	저 닭똥고망 봐!	
	청유법	-라	손 호슬 내밀어보라	
		-게	우리 같이 놀게	
	서술법	-젠	우리집 가젠?	
		-저	마침 잘 만났저	
		-라	아나라, 난, 살커라	
		-켜	하나 더 먹으면 나오켜	
		-여	그 길로 가든 알 도리가 이실 거여	
		의문법	-라	가이 이름이 뭐라?
			-서	어드레 감서?
			-샤	저녁밥 먹어샤?
		명령법	-냐	뭐랜 고라시냐?
			-라	날 살려 도라
	청유법	-자	나하고 일본 가자	
-게		잠이나 자게		

위 표에 나타난 방언의 종결형은 선정 설화에 나타난 종결형 어미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 사용 양상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으나 제주 설화 속에서 방언을 구연해 낼 때는 참고로 할 만하다.

제주 방언을 살려 설화를 재구성한 예는 신예경, 문희숙(2018)⁵⁸이 있다. 원어를 그대로 전사해 책으로 펴낸 경우도 있는데 장주근(2001)⁵⁹이 있다. 그는 1957년부터 1962년까지 제주도내 심방을 찾아다니며 제주 무가를 채록해 책으로 냈는데 이 자료는 말 그대로 채록한 것을 그대로 옮긴 자료라 생생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대에 쓰지 않는 방언이 너무 많이 나와 실용성이 떨어진다.

설화를 통해 방언을 제시할 때는 현대 사용하는 일부 방언을 대화체에 섞는 형식으로 제시해야 학생들에게 실용적으로 인식되면서 또 지나치게 어려워 접근성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 방언에는 독특한 어휘와 현대 국어에서 소실된 모음이 쓰이는데 그 대표적인 단모음이 아래아(·)다. 한국에서 아래아를 사용해 만든 간판을 거리에서

58) 신예경, 문희숙(2018), 『조근조근 제주신화 2』, 지노

59) 장주근(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방언	표준어	용례
고망	구멍	침이 나오는 고망 잘 막으라.
싸다	켜다	어두우난 불 흐쓸 싸게.
버짱ㅎ다	정색하다	양보흐랜 흐난 갑자기 버짱행 덤범썰.
자파리	장난	길 건널 땐 자파리 말앙 건너라.
줍다/줍아틀르다	꼬집다	얼굴광 막 줍아부러서라.
감저	고구마	감저 써 먹으카?
지슬/지실	감자	조반으로 지슬 청 먹었져.
몽캐다	꾸물거리다	무사 경 몽캠시니.
아울라	마저/조차/까지	느만 욱 들민 말주, 무사 나아울라 욱먹게 햐사?
으망지다	야무지다	신랑이 막 으망진 아이주게.
으구리	약동이	말은 으구리, 똥은 싸구리.
경ㅎ다	그러하다/그렇다	경ㅎ게 마썸

설화 속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제주 방언의 어휘는 한계가 있다. 설화 본문 학습 중간에 학습 활동으로 어휘 학습을 진행해 볼 수 있다. 어휘 추론해 보기, 어휘를 활용해 문장 만들어 보기, 어머니,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뜻 물어보기 등 과제로 제시해도 좋을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언어 학습으로서 방언 학습의 정도는 문화교육 차원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려운 방언을 외우거나 쓰도록 강요하는 교육은 상호문화주의 교육과는 맞지 않다.

(4) 제주 속담

다음으로 제주 속담을 언어문화의 요소 가운데 하나로 정해보고자 한다. 속담은 상황을 함축하여 비유적으로 쓰는 관용적 표현으로서 그 안에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어에는 다양한 속담이 있고 이를 모국어 화자는 자연스럽게 쓰고 이해하지만 중도입국 청소년에게는 낯설고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다. 더구나 제주에서 전해오는 제주 속담은 더욱 그러하다. 이런 속담을 학습함으로써 속담에 담긴 비유적 표현이 어떤 배경에서 오는가를 아는 것은 언어문화를 넘어 제주의 역사와 제주의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속담을 독립적인 학습 내용으로 삼기보다는 설화에 담아 학습하게 하면 기억하고 활용하는 데 더욱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설화 재구성 시 이야기의 구조를 변형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제주도의 독특한 속담을 사용해보고자 한다.

고재환(2017)⁶¹⁾을 참고해 여러 제주 속담 중 몇 가지만 예시를 들어 분류하고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III-4> 제주 속담의 분류와 예시(고재환, 2017)

구분	속담	풀이
교시성	가마귀도 어멍아 혼다	가마귀도 어머니야 한다는 뜻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뜻
	눈 수실 막댕인 지저름 7정 땡긴다.	눈썹을 막대기는 모두가 가지고 다닌다는 뜻으로 누구나 어려움에 처하면 저항할 마지막 수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뜻
풍자성	기시린 도새기가 두라맨 도새기 타령 혼다.	그슬린 돼지가 달아맨 돼지를 타령한다는 뜻으로 곧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알지 못하고 비웃는 어리석은 사람을 뜻함
	동세간엔 산 췌 다리 빈다.	동서 간에는 산 소 다리 벤다는 뜻으로 동서 사이에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재산으로 받은 산아 있는 소의 다리를 베어 나눌 정도로 상황이 극단적이라는 사실을 풍자함
	글 배우렌 후난 개 잡는 걸 뺨나.	글 배우라고 하니 개를 잡는 것을 배운다는 뜻으로 엉뚱한 짓을 하는 작태를 풍자하는 뜻
자립심	이그러진 방망이 서울 남대문에 강 팹한다.	이그러진 방망이는 서울 남대문에 가서 팹한다는 뜻으로 이그러진 방망이는 잘난 체 하는 사람을 뜻하고, 팹한다는 부러진다는 뜻. 즉 동네에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더욱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을 풍자함
	눈썹에 불붙어도 끝 저를 웃나.	눈썹에 불이 붙어도 끝 겨름이 없다는 뜻으로 바쁘고 부지런히 사는 모습을 뜻함.
	삼년 7물아도 흘 일 다 못한다.	삼년 가물어도 할 일을 다 못한다는 뜻으로 비가 가물에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아야 함을 뜻함.

61) 고재환(2017), 『제주어 나들이』, 보고서

구분	속담	풀이
	생이 흰 무리로 골막 상뒤 다 맥 인다.	참새 한 마리가 골막 상뿔군을 다 먹인다는 뜻으로 참새와 같은 작은 것 하나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근검절약한다는 의미
	흰 돌에 개역 시 번, 조베기 시 번 후민 집안 망한다.	한 달에 미숫가루 세 번, 수제비 세 번 먹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뜻으로 평소에 절약해야 함을 강조하는 속 담
	삼수월 애기어멍 돌이라도 니 아 니 들엉 못 먹나	3, 4월 춘궁기에 아기 엄마는 돌도 이빨이 들어간다면 먹을 만큼 힘들 고 삶의 의욕이 크다는 뜻
	침떡 니만이 먹으면 시참은 더 걸나.	시루떡을 이만큼 먹으면 시오리는 더 걷는다는 뜻으로 어려움 극복 의 지와 의욕이 담겨 있음
	물 아래 삼 년, 물 위 삼 년	물 아래 3년, 물 아래 3년이란 뜻으 로 제주 해녀의 강인함이 담겨 있음
	한췌깃날 물에 일곱 번 들엇당 집에 오민 살렛지둥 심영 흥근다	한조금 날 물에 일곱 번 들어갔다 집에 와도 살강기둥을 잡고 흔들 기 력이 남아 있다는 뜻으로 강인한 체 력을 뜻함
극기심	먹곡 스렌 후민 가지낭에도 무람 온다	먹고 쓰라고 하면 가지나무에도 모 람이 열린다는 뜻으로 운명적으로 잘 타고난 사람을 뜻함. 참다보면 이 런 날도 온다는 뜻
	이른 이도 복, 늦은 이도 복	이른 이도 복, 늦은 이도 복이란 뜻 으로 타고난 복력이 언젠가 온다는 뜻
	싸는 물 시민, 드는 물 싯나	쏟물이 있으면 들 물도 있다는 뜻으 로 참다보면 삶의 좋아지는 날도 있 다는 뜻
	조드는 사름은 산지물 가도 궁근 팡 안나	걱정 많은 사람은 산지물에 가도 흔 들거리는 돌 판에 앉는다는 뜻으로 참지 못하고 재촉하는 이는 빨래터 인 산지물에 가도 흔들거리며 불안 한 돌 판에서 빨래를 하게 된다는 뜻

제주 속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문화/역사’ 란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데 가나다 순으로 약 1000여 개의 제주 속담이 제시되어 있다.⁶²⁾ 여기에는 제주

도에서만 쓰일 수 있는 특수한 속담이 제시돼 있는데 예를 들면 ‘대정 뭉생이 요 망진 책 흐여도 목안 가민 맥도 못 춘다’와 같은 속담이다. ‘대정’은 제주 서귀포 시 대정읍을 말하고 ‘뭉생이’는 그 지역 사람을 말한다. 대정 사람이 똑똑한 척 해도 시내(목안-제주목으로 시내를 말함)에 가면 힘을 못 쓴다는 뜻으로 시골에서 똑똑한 척 하는 사람에게 겸손해야 함을 일깨워 주는 속담이라 볼 수 있다. 이 속담 속 ‘대정’을 다른 지역으로 바꾼다면 속담의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이 속담을 모두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으나 이 가운데 몇몇을 재구성 설화 속에 넣어 전승할 수 있다. 그리고 속담이 나타나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몇몇 재미있는 속담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속담을 통해 언어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5) 주거문화

문전본풀이를 보면 일곱 형제가 각각 집안의 신으로 좌정한다. 그리고 부엌에는 여산부인이, 정낭에는 남선비가, 측간에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좌정한다. 특히 일곱 형제 가운데 녹디생인은 문전신으로 좌정하는데 문전은 곧 집에서의 현관을 말한다. 최명림(2008)⁶³에 따르면 ‘문’은 공간 개념이라기보다는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기준점이라고 하였다. 그는 신성성을 획득한 ‘안’을 지키기 위해 문이 존재하며 그래서 문은 보호의 의미가 강하다고 한다. 그러나 문은 한편으로 개방되어 있는 통로로 존재한다. 이 때문에 문으로 드나드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귀신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복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은 누군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옛 사람들에게는 그 지키는 주체로서 ‘신’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신을 하나의 대표 신으로 삼는 경우는 흔치 않다. 예를 들어 불교 터전을 지키는 사천왕은 사찰 입구에서 문을 지키지만 사찰을 대표하는 신은 아니다. 또한 마을 입구를 지키는 ‘장승’도 마을을 대표하는 신은 아니다. 그러나 제주도 집을 지키는 가장 대표적인 신은 문전신이다. 이는 제주도의 제례에서도 알 수

62)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culture/dialect/proverb/publish.htm>) 참조

63) 최명림(2008), 「문(門)을 둘러싼 의례와 신앙」, 『남도민속연구』 16. 255-283.

있는데, 제주도는 제례가 시작되기 전에 ‘문전제’라는 제사를 지낸다. 이를 현용준(2009)⁶⁴⁾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오늘날의 제주도에서 ‘식계’는 조상의 영혼에 대한 제사 외에 문신에 대한 제사인 ‘문전제’와 부엌의 신에 대한 ‘조왕고사’ 등 가문 가례로 무속적 유래의 제의가 뒤섞여 남아 있지만, 조상에 대한 추모의 의미가 짙게 깔려 있다. 이것은 본래 무속적인 제의가 유교식화하면서 전승된 현상이다.⁶⁵⁾

문전제는 본 제사 전에도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집안에 잔치나 좋은 일이 있기 전에 간단하게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자 집안에서 결혼식 아침에 문전제를 지내 문전 신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것이다.

주거 문화 가운데 전통 가옥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형태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밖거리와 안거리, 올레로 대표되는 주거 배치다. 올레는 제주 전통 가옥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대로에서 집 앞까지 연결되는 작은 길을 말한다. 요즈음에는 ‘제주 올레’로 관광 상품화되어 여러 사람들이 도보로 답사하는 구역이 되었으나 그 이전까지 올레는 마을 어귀의 하나였다. 문전본풀이의 주 인물 가운데 한 명인 남선비는 정낭을 지키는 정주목 신이기도 하며 이 올레를 관장하는 신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주도 가옥은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를 분리해서 배치된다.

부모와 자녀와의 주거형태에 있어서는 안채=여성, 사랑채=남성의 성별 공간 분리되는 육지의 주거형태와 달리 안거리=부모세대, 밖거리=자녀세대의 세대별 공간분리는 제주도의 독특한 주거 양식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⁶⁶⁾

물론 지금 주거 형태는 현대식으로 바뀌어 전통 주거 배치와는 사뭇 다르다.

64) 현용준(2009),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65) 현용준(2009), 앞의 책, 188.

66) 김태일(2017), 「제주의 주거 문화」, 『제주연구원 제주학총서』 27, 152-177.

제주도에서도 전통 가옥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은 아파트와 현대식 건물이 주를 이룬다. 전통 가옥 양식은 제주 시내를 벗어난 곳이나 민속촌 등지에서나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주거 양식이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단순히 주거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제주도민들이 부모 세대와 서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되어 살아간다는 점을 보여 준다. 부모는 자식을 결혼할 때까지 키워내고 늙은 후 자식에게 얹혀 같이 살아가는 가족 제도와 달리 제주에서는 부모 세대도 자식을 독립시키고 자신들은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낸다.

문전본풀이의 마지막 부분에는 설화로 인해 생긴 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측간의 물건을 부엌으로 가져오면 동티가 나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화장실이라는 비위생적 공간의 물건이 반드시 위생적으로 지켜져야 할 부엌으로 오는 것을 신화적 해석으로 막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허남춘(2021)⁶⁷)에 따르면 정낭은 필리핀, 라오스, 스리랑카에까지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제주에 정낭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지 잣대로 제주를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제주에도 네거리 집에는 대문을 달았다는 것이다. 제주는 대문이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는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말이다. 그러나 대문이 없다는 것은 육지부 양식의 대문이 없다는 말이지 제주도적 대문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하였다. 제주 정낭은 단순히 나무가 걸쳐져 있는 돌덩어리가 아니다. 그것에는 신이 좌정해 있다고 암묵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하나의 기호다. 이 기호 체계를 옛 제주도민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는 문화적으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낭에 관해서도 문전본풀이에서 자세히 가르칠 수 있다. 정낭이 왜 설치되어 있는지, 정낭에 걸려 있는 나무 개수가 무슨 의미인지 등은 좋은 문화 학습 자료가 된다.

(6) 농경문화

제주도는 수렵·채집 문화가 오래 동안 남아 있었던 지역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서귀본향당 본풀이에서도 추정할 수 있는데 등장인물 ‘바람웃도’는 수렵 신이

67) 허남춘(2021), 「〈문전본풀이〉에서 집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한국무속학』 0.42. 7-38.

고, 그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하고 그를 쫓아낸 ‘고산국’은 농경 신이다. 이를 수렵 시대가 저물고 농경 시대가 도래했음을 나타내는 신화적 표지라고 해석한다.(허남춘, 2016)⁶⁸⁾

제주 농경문화와 관련된 신화는 ‘세경본풀이’가 대표적이다. 세경본풀이는 자청비라는 주인공이 문도령을 찾아 결혼하는 내용의 설화인데 여기서 자청비는 이야기 말미에 세경신이 된다. 그는 오곡 씨앗을 가져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데 이때 메밀 씨를 빠뜨리고 늦게 가져오는 바람에 메밀은 늦게 심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문전본풀이’에서는 남선비가 무곡 장사를 하러 가는 장면에서 농경 문화적 요소를 찾을 수 있고 여산부인이 남선비에게 능숙하게 쌀밥을 지어 먹이는 장면에서 농경 문화적 요소를 소개할 수 있다. 제주 농경문화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제주에는 논농사보다 밭농사 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제주에서 메밀이 주요한 곡식이 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남선비가 무곡 장사를 떠올린 것도 밭농사 위주인 제주에 논농사의 산물이 쌀을 팔아 이문을 남기려 한 데 있다. 남선비가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빼앗긴 돈이 쌀을 사려고 했던 돈이다.

밭농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제주 환경이 한 몫을 한다.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제주는 물빠짐이 심해 논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다. 그 때문에 제주에서는 웬만해서는 홍수가 나지 않는다. 환경이 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사례로서 교육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7) 민간신앙

제주 설화 속 신앙은 불교와 유교, 민간신앙이 어우러져 있는데 이는 설화 속 여러 장면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불교 문화적 요소는, <세경본풀이>에서 기자 치성을 드리는데 이때 치성을 드리는 곳이 절이다. <차사본풀이>에서도 첫 장면은 동관음사 은중절 상좌승이 제자 소사에게 동경국 버무왕의 세아들을 데려오라고 지시하는 장면이다. 유교 문화적 요소는, <세경본풀이>에서 문도령과 자청비가 자청비의 집으로 들어온 날, 자청비 부모는 문도령의 나이가

68) 허남춘(2016), 「서귀본향당본풀이의 특징과 의의」, 『古典文學研究』 49. 37-70.

몇 살인지 물어보고 같은 방에 들지를 결정한다. <차사본풀이>에서는 저승으로 떠난 강림이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삼년상을 치르고, 수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민간신앙 문화적 요소는, <차사본풀이>에서 심방이 등장해 전세남굿을 하는 장면, <세경본풀이>, <이공본풀이>, <문전본풀이>에서 죽은 이를 꽃으로 살려내는 장면, <문전본풀이>에서 문복하는 장면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민간신앙은 제주 설화의 기본 전제인데 이는 제주 설화가 ‘본풀이’에서 출발했고, 그것이 곧 제주 무당들이 구연하는 곳 행위의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현용준(1989)⁶⁹⁾은 고려 제주도인의 신앙은 무속신앙 단일 체계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후 고려 문종 12년(1058)에 불교가 포교되고, 조선 태조 원년(1392)에 제주 향교가 설립되면서 본토의 종교가 유입되다가 1899년 천주교가 전교되고, 1908년 개신교가 전교됨에 따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제주도민의 의식 속에 민간신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무가의 존재와 신당의 존재로 증명된다. 조성윤(2003)⁷⁰⁾은 인구 54만 2천 명(2000년 당시)이 사는 곳에 당이 348개가 존재하고 전승되다 기록된 무가만 500여 편이 넘는 지역은 국내에서 제주도가 유일하다고 하였다. 이것이 곧 민간신앙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증거라고 하였다.

문전본풀이에서 문복하는 장면은 이러한 민간신앙적 요소를 드러내 준다. 배가 아파 바닥을 뒹구는 아내를 두고 남선비가 찾아가는 곳이 의원이 아니라 점쟁이라는 점은 남선비가 무능하거나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점쟁이나 ‘심방’이 하는 역할을 보여 준다. 신병(神病)을 치료하기 위해 먼저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뜻이고 그 점쟁이의 진단과 치료 방식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69) 현용준(1989), 「<특집 제주무속의 전통과 변화> 제주도민의 신앙체계와 무속」, 『濟州島研究』 6. 3-8.

70) 조성윤(2003), 「제주의 무속신앙과 신종교」, 『신종교연구』 9. 23-40.

2. 문화 교육을 위한 설화 내용 분석

1) 문화 교육을 위한 대상 설화 구조 분석

다음으로는 분류된 문화와 문화 요소를 제주 설화에서 어떻게 반영하여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선정된 설화인 <문전본풀이>의 전체 내용이 어떻게 각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가를 언급하기 위하여 <문전본풀이>의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문전본풀이>는 제주도 가옥신과 관련된 설화다. 이 설화는 현대에 활발히 변용되고 있는 서사로서도 가치를 지니는데, 박재인(2019)⁷¹⁾은 문전본풀이가 제주 서사무가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현대에 활용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였다. 문전본풀이는 웹툰 ‘신과 함께’에서도 활용이 되었으며 동화 ‘녹디생인, 사라진 변기를 찾아라’에서도 활용되었다고 한다. <문전본풀이>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남선비와 여산부인이 일곱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 ② 집안이 가난해 어느 날 여산부인이 남선비에게 곡식을 팔아 돈을 벌어 오면 좋겠다고 하여 남선비가 집을 떠난다.
- ③ 남선비는 오동 나라, 오동 고을에서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흘러 전 재산을 바치고 두 눈까지 멀어버린다.
- ④ 남선비가 돌아오지 않자 여산부인이 남선비를 찾아 나선다.
- ⑤ 여산부인은 오동 나라, 오동 고을에서 남선비를 찾아 집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 ⑥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여산부인, 남선비와 함께 집으로 가던 중 여산부인을 죽인다.
- ⑦ 여산부인으로 꾸민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남선비와 고향으로 돌아온다.
- ⑧ 일곱 아들 중 녹디생인만이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여산부인으로 변장한 것을 눈치 챈다.

71) 박재인(2019), 「문전본풀이의 현대적 활용 양상과 의미」, 『인문사회』 10.6. 221-232.

- ⑨ 일곱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자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계락을 꾸며 남선비로 하여 일곱 아들을 죽이도록 한다.
- ⑩ 녹디생인이 계락을 눈치 채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역으로 속여 진실을 밝힌다.
- ⑪ 일곱 아들이 죽은 여산부인을 살려낸다.
- ⑫ 등장인물들이 신으로 좌정한다.

<문전본풀이>의 구조는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구조로 위 구조에서 ①~④는 발단, ⑤~⑦은 전개, ⑧~⑨는 위기 ⑩은 절정, ⑪~⑫는 결말이다. <문전본풀이>의 구조를 크게 셋으로 나누어 처첩간의 갈등담, 전설 자식과 악모의 갈등담, 죽은 모친의 회생담과 신격 좌정담으로 보기도 한다.⁷²⁾ 이는 <문전본풀이>가 단순한 계모형 민담과는 구별되는 지점으로 한 이야기 안에 여러 악녀의 전형을 인물 한 명을 통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문전본풀이>의 주인공은 ‘녹디생인’인데 이는 위기를 겪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녹디생인은 형제들 중에서는 막내다. 민담에서 신이한 능력이나 지혜를 갖춘 자로 막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막내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이유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쫓겨나지만 이집트의 재상이 되어 온 가족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막내의 능력과 지혜는 관습적 법칙과 책임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장자와 달리 제약과 제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위치에 기인하며,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라는 구전서사 법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 막내의 특이성을 설명하기도 한다.⁷³⁾

2) 대상 설화와 문화요소의 관계

전체 구조와 관련하여 <문전본풀이>는 다른 지역에서 전승되는 <칠성풀이>와 유사하다. 이 때문에 초기 연구자들에 의해 두 이야기가 하나의 신화로 분류되기

72) 이지영(2006),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0.12, 199-233.

73) 박상란(2009), 「구전설화의 막내캐릭터와 그 문화적 의의」, 『한국문학연구』 0.37, 133-177.

도 하였다(서대석, 1988)⁷⁴). 구조상의 유사성은 <문전본풀이>가 과연 제주 문화 교육을 위하여 적절한 신화인가에 대한 의문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주 문화가 <문전본풀이>에 반영되어 구조가 <칠성풀이>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개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칠성풀이의 주 인물인 칠성은 가부장적 인물로서 본치를 버리고 재혼을 한 인물인 데 반해 문전본풀이의 남선비는 스스로 고향을 떠나 첩에게 얹혀사는 비루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후처/첩의 계략에 대응하는 자식들의 모습도 대비된다. 칠성풀이에서 자식들은 비록 자신들을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지만 새 어머니의 치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전본풀이에서는 현명한 녹디생인이 계략을 알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 위기를 벗어난다. 결론에 가족 회복 여부도 다르다. 칠성풀이에서 아들들이 어머니를 살려내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달리 문전본풀이에서는 아버지인 남선비가 정치 대상이 되어 죽음으로써 가족이 불완전한 형태로 마무리된다.(정제호, 2011)⁷⁵)

위와 같은 차이는 칠성풀이에 등장하지 않는, 자식 가운데 현명한 녹디생인의 존재로 인해 발생한 차이로 보인다. 칠성풀이가 아버지를 중심으로 질서가 형성되어 있다면 문전본풀이는 자식인 녹디생인을 중심으로 새롭게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제주도 사람의 가치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장에서 언급한 ‘강인한 제주 여성의 전형’과 ‘주거문화’가 바로 이 신화에 나타난 것이다. 여산부인이 집안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무곡을 해보라고 권하는 장면이나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 직접 오동나라로 떠나는 장면은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강인함을 보여준다. 또한 자식이 부모와 떨어져 경제적, 사회적 독립을 일찍이 이루는 문화는 제주도의 안거리와 밖거리라는 독특한 주거 형태에서 나타나는데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녹디생인이 아버지를 두고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에서 드러난다. 이 때문에 <문전본풀이>는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지역 신화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전본풀이>는 등장인물들이 모두 집안 신이 되는데 이러한 ‘신의 내

74) 서대석(1988), 「<칠성풀이>의 연구-신화적 성격과 서시시적 서술구조-」, 『진단학보』 65, 81-110. 재인용

75) 정제호(2011),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의 여성 지위에 따른 전개 양상 고찰」, 『비교민속학』 0.45, 321-347.

력'을 담고 있어서 신화, '내력담'으로도 분류된다. 그리고 제주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문화 중 하나인 '문전제'와 '조왕제'의 기원이 이 이야기에서 왔다는 점은 민간 신앙 문화의 기원을 서사로 풀이해주는 제주 신화의 독특한 면모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문전본풀이>를 활용하여 한국어와 제주 방언을 교육할 수 있는데 특히 제주 방언은 대화체에 녹여 구사할 수 있다. 또한 상황에 맞는 속담을 적절히 제공하여 학생들이 내용을 유추하고 기억해 그 안에 담긴 문화적 배경을 배울 수 있다. 속담 활용 방안은 다음 장 재구성에서 제안해 보겠다.

IV. 제주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의 방안과 실제

이 장에서는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의 실제 방법론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을 위하여 가장 먼저 대상 설화의 문화교육 목표와 내용을 선정하고 어떤 문화요소를 설화의 어떤 부분에서 가르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다. 또한 교육 대상이 되는 실제 설화를 재구성할 것이며, 설화 교육을 위한 문화교육 모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설화 활용 수업을 위한 진단평가, 성취기준, 실제 교수-학습 활동, 평가를 순차적으로 제시해 본다.

이 장에서 제시하는 설화 교육 방법론은 제주 설화에 한정되어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라는 특정 지역 설화를 넘어서 다양한 다른 지역 설화에도 같은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다른 나라 설화의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문전본풀이>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각 지역 설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교육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이 광범위하게 지역 설화 교육에 활용되기를 바란다.

한 가지 더 언급할 사항은 제주 설화는 한국 설화의 한 종류로서 우리나라 역사의 특정 시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불교문화, 유교문화가 제주 설화에도 나타나 있고 이것이 한국 설화 세계관에서는 보편적이라는 말이다. 국내 출생 아동은 한국 설화에 나타난 보편성에 익숙할 수 있으나 중도입국 청소년에게는 낯선 대목일 수 있다. 지역 설화 교육 시 그 설화가 갖는 특수성에 치중되어 이러한 한국적 보편 세계관을 소홀히 할 수 있으나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교육에서는 좋지 못하다. 그리고 한국적 특수성, 지역 특수성을 현대적 관점에서 적절히 해석하고 설명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계모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유교사회에서 처첩에 대한 시선을 반영했다는 점을 적절히 인지시켜야 비판적 수용자로서 학습자가 성장할 수 있다.

1. 제주 설화의 문화교육 목표와 내용

1) 제주 설화의 문화교육 목표

제주 설화의 문화교육 목표는 크게 여섯 가지로 제시할 것이다. 문화교육 목표는 앞서 II장에서 언급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교육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 문화교육 목표는 제주의 문화를 이해하고 행동 문화를 따라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래서 제주 설화 속 여러 문화 요소를 이해하고 일상에 적용하기를 목표로 삼았다. 그 다음은 문화를 바라보는 상호주의적 시각을 이해하여 타 문화를 수용하고 자문화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 유연성을 찾고 다문화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단계적 목표로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제주 설화 속 제주의 여러 문화를 이해하고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
- 2) 제주 설화 속 언어문화를 이해하고 일상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 3) 제주 설화를 통해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을 이해한다.
- 4) 제주 설화를 통해 다문화 수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5) 제주 설화와 다른 나라 설화를 비교하여 문화적 유연성을 갖는다.
- 6) 다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공동체적 삶에 기여한다.

2) 제주 설화 문진본풀이의 문화교육 내용

제주 설화 문화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화교육의 구체적인 소재로서의 내용은 앞서 III장에서 언급된 문화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되는 소재는 문화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재가 되며 한편으로 제주 문화를 이해하는 지식이 된다. 문화요소는 선정 설화 한 편에서는 제한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으나 앞서 III장에서 제시한 문화 요소를 더 추가하여 수업 시간에 읽기 자료, 심화 교육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먼저 제주 여성의 강인성과 성평등적 가치, 공동체 의식을 찾을 수 있다. <문본풀이>에서 여산부인이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에게 배를 만들게 해 찾아 나서는 장면이나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장사를 권하는 장면은 그런 의식을 반영한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 악인인 노일제대귀일의 딸도 신이 되는 장면은 비록 악인이라도 신으로서 자격을 부여해 신화 속 울타리에 들어오게 해 주는 공동체적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악인의 징치 장면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판단을 알리는 모습은 제주 공동체 문화가 자치적 성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 문화요소로서는 제주말 종결어미와 어휘, 속담이 있다. 종결어미는 제주 방언의 통사적 요소로 특이성을 보여주며 대화를 재구성함으로써 제시해 볼 수 있다. 이는 어휘나 속담도 마찬가지다. 제주 설화 재구성 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대화를 제주 방언으로 꾸미면 적절할 것이다.

농경문화, 주거문화, 민간신앙이 또한 문화 요소로 등장하는데 농경문화는 여산부인이 남선비에게 무곡 장사를 권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다. 쌀이 주식이 되는 문화이며 제주에서는 밭농사가 중심이라 쌀이 귀하다는 사실 또한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루떡이 등장하는데, 떡을 언제 만들고 무엇에 쓰는가를 설명하면서 농경문화의 흔적을 교육할 수 있다. 주거문화는 거주형태와 가옥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거주형태는 안거리, 밖거리를 따로 추가해 설명해 줄 수 있다. 가옥형태는 정낭, 집 구조, 올레, 구들장, 창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민간신앙은 ‘꽃으로 사람을 살리는 장면’, ‘문전제, 조왕제’ 등에 나타난다. 문화교육 내용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 제주 설화 속 교육 내용에 따른 설화 내용

교육 내용	설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강인한 여성과 성평등적 가치 • 제주인들의 공동체 의식 ‘권당’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산부인이 남편을 찾아 나서는 장면 • 여성이 적극적으로 집안의 경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나서는 장면 • 악인이라도 내치지 않고 신으로 좌정하는 장면 • 녹디생인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자신의 일을 정당화시키는 장면

교육 내용	설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말의 종결 어미 • 어휘 • 속담 	<table border="1"> <tr> <td data-bbox="847 304 1002 618">존대 표현</td> <td data-bbox="1002 304 1361 618"> 서술법 -우다/-수다 -ㅂ네다 -우꽂 의문법 -ㅂ네까 -ㅂ데까 -마쌌 명령법 -ㅂ서 청유법 -ㅂ서 -마쌌 </td> </tr> <tr> <td data-bbox="847 618 1002 1003">하대 표현</td> <td data-bbox="1002 618 1361 1003"> 종결 어미 -저 -라 서술법 -켜 -여 -라 의문법 -서 -샤 -냐 명령법 -라 청유법 -자 -게 </td> </tr> </table>	존대 표현	서술법 -우다/-수다 -ㅂ네다 -우꽂 의문법 -ㅂ네까 -ㅂ데까 -마쌌 명령법 -ㅂ서 청유법 -ㅂ서 -마쌌	하대 표현	종결 어미 -저 -라 서술법 -켜 -여 -라 의문법 -서 -샤 -냐 명령법 -라 청유법 -자 -게
존대 표현	서술법 -우다/-수다 -ㅂ네다 -우꽂 의문법 -ㅂ네까 -ㅂ데까 -마쌌 명령법 -ㅂ서 청유법 -ㅂ서 -마쌌				
하대 표현	종결 어미 -저 -라 서술법 -켜 -여 -라 의문법 -서 -샤 -냐 명령법 -라 청유법 -자 -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문화 • 주거문화 • 민간신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 개가 팡 물어 든다. • 상수빙광 수심빙은 약방 약도 소용 었나. • 문전 모른 공사 없고, 주인 모른 나그네 없다. • 벤 집은 갈랑 쳐도 빙은 못 갈랑 진다. • 산에서 노는 가마귀도 석 들 열름이 지나민 부모 공 가픈다. • 걱정이 반찬이민 상발이 무너난다. • 맹심후른 맹심 덕이 싣나. • 언강, 곤밥, 정지, 침떡, 정낭, 문전, 조왕, 올래, 다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선비가 쌀을 사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장면 • 시루떡(침떡)의 등장 • 정낭과 올래가 나타남 • 일곱 형제와 어머니의 신으로의 좌정, 죽은 어머니가 꽃을 써 환생함 • 문전제의 유래 				

2. 문화교육을 위한 제주 설화의 재구성

1) 선정 설화의 특징

재구성 대상 제주 설화 <문전본풀이> 원형은 현용준의 『제주도 신화』로 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제주 설화의 원본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한편 설화에서 원본을 찾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다. 구전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는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에서 전승되는 여러 이야기를 하나의 책으로 엮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가운데 널리 알려져 있고 여러 연구자들이 참고도서로 자주 활용되는 책이 바로 현용준의 <제주도 신화>다. 또한 이후에 발행된 여러 제주 설화 관련 책들이 이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이야기로서 전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원형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제주 설화를 기술한 여러 책들이 있으나 이 가운데에는 정제된 이야기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고 본풀이를 그대로 채록해 기록한 이야기가 있었다. 본풀이를 그대로 가져온 기록들은 비록 연구로서는 가치가 높으나 현대에는 사용하지 않는 고어와 방언이 많고 이야기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논리적 오류가 많아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반해 『제주도 신화』는 이야기 형태로 가공된 자료라 편집과 이해가 쉽다.

세 번째, 내용과 분량이 적절하다는 기준에서 볼 때 적절하다. 『제주도 신화』를 바탕으로 탄생한 이본들 가운데에는 내용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은 본들이 있다. 그에 비해 『제주도 신화』는 적절한 분량에 이야기 논리 구조상 부족함이 없다.

앞선 박희순(2003)의 논의에서 문전본풀이는 계모에 대한 나쁜 이미지와 살해 계획을 하는 등의 잔인한 장면과 징벌이 나타난다는 이유로 선정 설화에서 배제가 되었다. 그러나 세계명작 동화로 널리 읽히는 ‘신데렐라’나 우리나라 전통 설화인 ‘콩쥐팍쥐’설화도 계모를 모티프로 하고 있다. 최운식(1986)⁷⁶⁾은 계모 설화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널리 분포 되어 있고 계모는 실제 현실의 인물로 인식되

76) 최운식(1986), 「繼母說話에 대하여」, 『한국민속학』 19, 515-524.

기보다는 주인공이 극복해야 할 고난이며 권선징악의 표지, 아버지의 무능함을 보여 주는 현실 풍자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계모의 등장과 인식 문제로 문전본풀이가 가진 문화 전승 가치를 낮게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설화 재구성의 실제

문전본풀이의 첫 부분은 나중에 문전신으로 좌정하는 ‘녹디생인’의 내력을 풀이 하면서 시작된다.

문전의 할아버지는 해만국, 할머니는 달만국이요, 아버지는 남선비, 어머니는 여산부인이며, 일문전은 똑똑하고 역력한(영리한) 녹디생인다.
그 본풀이는 이러하다.⁷⁷⁾

제주 신화를 풀어 쓴 여러 이본 중에 이 부분을 생략해 쓴 것이 많다. 신예경, 문희숙(2018)의 『조근조근 제주신화2』에서는 이 부분이 없이 바로 남선비와 여산부인 소개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석범(2016) 『제주 신화』에서는 목축신 정수남의 가축들이 마구 집으로 들어와 이를 막기 위해 정낭을 세웠다는 서사가 있는데, 이는 <세경본풀이>에 등장하는 인물을 문전본풀이에 다시 씌으로써 이야기의 개연성을 높이고자 한 시도로 보인다. 제주 신화 가운데에서는 전후 서사가 있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예를 들면 <차사본풀이>에서는 문전신과 조왕신이 강림이의 저승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세경본풀이>에서는 꽃감관 ‘할락궁이’가 등장하는데 ‘할락궁이’는 <이공본풀이>의 주인공이다. 제주 설화 속에서 다른 본풀이의 세계관이 차용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제주인 사이에 각 설화가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전제에서 진행되는 이야기 속 한 요소로 추측된다. 이 부분은 중도입국 청소년 문화교육을 위해 굳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나 <문전본풀이>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 학생들에게 제주의 여러 설화를 간략히 소개하며 등장인물들의 열개를 설명해 준다면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7) 현용준(1996), 『제주도 신화』, 서문당. p.182

옛날옛적 남선 고을의 남선비와 여산 고을의 여산부인이 부부가 되어 살았었다. 집안은 가난하여 살림이 궁한데 아들은 일곱 형제나 태어났다.

하루는 여산부인이 남편더러 말을 하되,

“우리가 이래서는 자식들도 많아지고 살 수가 없으니, 무곡 장사나 해 보기 어찌합니까?”

“어서 그리 하자.”

남선비는 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곧 배를 한 척 마련하였다. 쌀을 살 밑천이 마련되자 남선비는 처자 권속을 이별하여 남선 고을을 떠났다.

(중략)

남선비가 독선을 잡아 무곡 장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귀일의 딸은 선창가로 부리나케 달려왔다. 남선비의 돈을 굶어내려 해서이다.

귀일의 딸은 우선 있는 아양 없는 아양부터 떨기 시작하였다.

“남선비님아, 남선비님아, 우리 심심소일로 장기 바둑이나 두며 놀음놀이나 해 보십시오.”

“어서 그럼소서.”

매끈한 여인의 아양 소리가 싫지 않았던 것이다. 둘이는 장기를 벌여 뵈었다. 이리 두고 저리 두고 며칠을 두는 데 승부는 뻘한 일이었다. 남선비는 타고 간 배를 팔고 무곡 살 돈을 모조리 빼앗겼다. 이젠 갈수도 올수도 없는 가련한 신세가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⁷⁸⁾

여기서 일곱 형제는 어느 본을 보나 모두 같다. 제주 설화에서 형제는 보통 삼형제다. 일곱 형제가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차사본풀이>에서 동경국 버무왕의 아들이 일곱 형제라는 대목이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정작 그 설화에서도 일곱 아들 중 아래로 삼형제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제주 설화에서는 막내아들만이 특별한 대별점을 갖고 맏아들과 제주 말로 사이를 뜻하는 둘째인 ‘셋아들’은 성격과 행동이 대체로 일치한다. 이는 삼형제가 등장하는 다른 지역 설화에서도 마찬가지다. 특별히 문진본풀이에서 일곱 형제가

78) 현용준(1996), 앞의 책, pp.182-184

등장하는 이유는 집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 동서남북과 중앙, 그리고 앞문과 뒷문으로 각 형제가 좌정한다는 결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간에 등장하는 ‘무곡(貿穀)’이라는 단어는 ‘이익을 보려고 곡식을 몰아서 사들인다’ 또는 그 곡식을 뜻하는 단어인데 현재에 활발히 쓰는 단어도 아니고 청소년 수준에서도 적절한 단어가 아니다. 김순이 본에서는 이 단어를 ‘쌀장사’로 순화해서 썼다. 또한 개연성을 위해 ‘제주에서는 쌀이 귀하니 쌀장사를 해보자’고 나와 있다. 이는 제주 토양이 어떠한지 설명을 덧붙일 수 있는 문화적 자료로서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쌀장사’로 쓰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밖에도 ‘처자 권속’, ‘독선’, ‘선창가’, ‘심심소일’, ‘놀음놀이’ 등의 단어를 쉽게 이해가 되도록 재구성할 수 있다. 그 재구성 표는 다음과 같다.

<표 IV-2> 제주 설화 재구성 예시1

원본	재구성본
처자 권속	아내와 아들
독선을 잡아	배를 타고
선창가	부두
심심소일로 장기 바둑이나 두며 놀음놀이나 해봅시다	함께 어울려 지내며 놀아봅시다
집이라곤 나무 돌쩌귀에 거적문을 단, 수수깡 외기둥의 움막이다.	집이라고는 문도 없는 작고 초라한 집이다.
겨죽 단지	죽 그릇

위 대목에는 ‘아양’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신애경 문희숙 본에서는 이를 제주어 ‘언강’으로 썼다. ‘언강’을 쓰면 이 대목은 ‘귀일의 딸은 언강을 부러가며 남선비에게 다가갔다’ 정도로 고칠 수 있다. 남선비가 여산부인에게 무곡 장사 하러 가겠다고 말을 할 때 제주 속담을 하나 인용할 수 있다. ‘난 개가 짱 물어 든다’는 속담으로 나간 개가 뼈를 물어 온다는 뜻이다.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것이 아니라 일터에 나가 활동을 해야 생계가 유지된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리고 ‘매끈한 여인의 아양 소리’와 같은 표현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성 감수성이 떨어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한다.

이튿날부터 아들 칠형제는 깊은 산중에 올라가 곧은 나무를 베어다가 배 한 척을 지어 놓았다. 여산부인은 일곱 형제를 이별하여 남선 고을을

떠났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이는 대로 배는 흘러, 오동 나라 오동 고을에 닿을 수가 있었다.

(중략)

“설운 아기가, 남선비가 어디 사느냐? 남선비 사는 델 가르쳐다오.”

“요 재 넘고 저 재 넘어가세요. 요 재 넘고 저 재 넘어 가다 보면, 나무 돌쩌귀에 거적문을 단 움막이 있어요.”

여산부인은 아이에게 영초 댕기를 달아주고 요 재 넘고 저 재 넘어갔다. 과연 나무 돌쩌귀에 거적문을 단 움막이 있었다.⁷⁹⁾

이 대목은 돌아오지 않는 남선비를 찾으러 여산 부인이 나서는 대목으로 이석범 본이나 김순이 본에서는 아들들이 어머니에게 새 짚신을 매일 짜 주는데 매일 그 짚신이 닳아 있는 것이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아들들이 어머니를 몰래 쫓아 가 보니 어머니가 매일 사라진 남선비를 찾아 바닷가를 돌아다니느라 짚신이 다 닳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당시 여인들이 남편에게 의지하는 정도가 얼마나 되었는가를 보여 주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제주 설화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관련 자료로서 사설시조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피혜’를 제시해 이해를 높이는 한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교육해 볼 수 있다.

아들들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장면에서 속담 ‘상스빙광 수심빙은 약방 약도 소용엇나’를 활용해도 좋을 듯하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걱정하는 수심에는 약도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아들들은 어머니를 위해 배를 만들어 바친다.

돌쩌귀에 거적문은 가난의 상징으로 제주 설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는 사진자료를 통해 보여 주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는 가난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비교해 보아도 좋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여행 다니는데 집을 지고 다닙니까? 부엌이라도 좋으니 하루 저녁만 빌려 주십시오.”

자꾸 다그쳐 부탁하는 바람에 남선비는 마지못해 허락을 하였다.

여산부인은 부엌에 들어가 솥을 열어 보았다. 거죽이 바닥에 바짝 눌러

79) 현용준(1996), 앞의 책, pp.184-185

붙어 있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우선 밥부터 해 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한두 번 술을 깨끗이 닦아 놓고, 나주영산 은옥미를 씻어 놓아 밥을 지었다. 말끔히 상을 차려 남선비에게 들어가니, 남선비는 첫 술을 뜨고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것이다.

(중략)

남선비는 깜짝 놀라며 부인의 팔목을 덥석 잡았다. 만단정화가 시작되었다. 이윽고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어디 가서 겨 한 되를 치맛자락에 얻어 들고 들어왔다.

“이놈 저놈 죽일 놈아. 나는 어디 가서 죽을 듯 살 듯 겨 한 되라도 빌어다가 죽을 쑤어 배 불게 먹이다 보면, 지나가는 년들 끌어들이 만단정화 이르는구나.”

“설운 부인아, 그리 후욕을 하지 말고 어서 내 말을 들어보라. 여산 고을 큰부인이 나를 찾아왔단다.”

(중략)

여산부인은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귀일의 딸 뒤를 따라 주천강 연못으로 목욕을 나갔다.

“설운 형님아, 어서 옷을 벗으세요. 제가 먼저 등에 물을 놓아 드리리다.”

여산부인은 적삼을 벗어 옆드려 굽혔다. 귀일의 딸은 옆에 서서 물을 한 줌 쥐어 놓아 등을 밀어 주는 척하다가, 물 속으로 와락 밀어 넣어 버렸다. 감태같은 머리가 물 속에 흘러가 여산부인은 주천강 연못의 수중고혼이 되고 말았다.⁸⁰⁾

다른 본에서는 노일제대귀일 딸의 성격을 더욱 극적으로 하기 위해 여러 남자들 앞에서 오금춤을 추며 술 냄새를 풍기는 장면을 넣었다. 노일제대귀일 딸의 악랄한 성격은 이후 사건에서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에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한국 여성상과 반대되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모습을 현대적 시각이나 다른 나라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면 문화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80) 현용준(1996), 앞의 책, pp.184-187

이 대목에서 추가할 수 있는 제주 어휘로 ‘정지’, ‘곤밥’을 들 수 있다. ‘정지’는 경상도와 제주도에서 쓰는 방언으로 ‘부엌’을 뜻한다.⁸¹⁾ 또한 ‘곤밥’은 ‘쌀밥’의 제주 방언으로 ‘고운밥’에서 파생되었다고 본다. 이는 지금도 제주 곳곳에서 쓰는 단어들이라서 학생들이 알게 된다면 유용할 단어로 판단된다.

<표 IV-3> 제주 설화 재구성 예시2

원본	재구성본
부엌	정지
나주영산 은옥비	좋은 쌀
밥	곤밥
만단정화	그간 못 다한 이야기
년	여자
후욕을	욕
감태같은	까맣고 윤기 나는
수종고혼	원혼

여산부인이 남선비에게 밥을 해 주는 장면에서 남선비가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밥상인가’하고 묻자 여산부인이 ‘주인 모른 공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라며 밥을 권하기도 하는데⁸²⁾ 이때 나오는 ‘주인 모른 공사 없다’는 것은 제주의 속담이다. 이 속담은 ‘주인 모른 나그네 없고, 문전 모른 공사 없다’는 속담으로 사실 문전본풀이에서 등장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문전본풀이 말미에 녹디생인이 문전신으로 좌정한 이후 제주에서는 제사 때 문전상을 차리는데, 본 제사 이전에 제를 지내는 ‘문전제’를 하게 되었다. 이 속담은 문전신을 모르고는 제사(공사)를 지낼 수 없듯, 주인을 모르고는 나그네도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선후를 따지기 전 이 부분에 이 속담의 일부를 넣는다면 문화교육의 한 요소로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님을 맞이하는 문화에 대해 여러 문화권의 풍습을 비교해 보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주천강’은 제주 설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소다. 주로 은밀한 모의가 진행되는 장소이며 실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신화 속 장소로 쓰인다. ‘차사본풀이’에서는 악녀 과양생이가 삼형제를 죽여 시신을 유기하는 장소로 쓰이고 ‘세경본풀이’에서는 정수남이가 주인인 자청비를 모해하는 장소다. 주천강으로만

81) 고려대학교민속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민속문화연구원 출판

82) 문무병, 문무병의 제주 신화2 문전본풀이 ②, 제주의 소리, 2017.03.23. 기사문에서 발췌

쓰이기도 하고 ‘주천강 연내뭇’으로 쓰이기도 한다. 어떤 의미에서 강이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는가를 비교해 보는 활동도 가능하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여산부인을 꼬드겨 죽이는 이 장면을 김순이 본에서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보여 주는데,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꼬드기고 여산부인이 거절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는 이후 녹디생인이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숨긴 물건을 찾고자 그를 꼬드길 때와 같은 장면으로 설화 속에 패턴으로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목욕을 같이 가자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말에 여산부인은 ‘추워서 싫다’고 하고 또 등물을 하자는 말에 ‘난 하고 싶지 않다 너나 하려므나’라고 답한다. 그러나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찬 물도 순서가 있다’고 하며 반복해서 꼬드기자 여산 부인이 이에 넘어가 화를 당하게 된다. 다른 설화에서 제안-거절 패턴이 등장하는지와 한국에서의 ‘거절’이 어떤 의미를 담는지를 문화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다.

“하하, 그년 잘 죽었다. 내 원수 갚았구나. 자, 이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남선비와 귀일의 딸은 배를 놓아 남선 고을로 향하였다.

배가 물마루를 넘어서니, 남선비 아들 일곱 형제는 부모님을 마중하여 선창가로 나왔다.

배가 선창에 닿았다. 아들들은 부모를 맞는 정성으로 각각 제만큼씩 다리를 놓아 갔다. 큰아들은 망건을 벗어 다리를 놓고, 둘째는 두루마기를 벗어 다리를 놓고, 셋째는 적삼을 벗어 다리를 놓고, 넷째는 고의를 벗어 다리를 놓고, 다섯째는 행전을 벗어 다리를 놓고, 여섯째는 버선을 벗어 다리를 놓았다. 그런데 영리한 막내아들 녹디생인은 칼날을 위로 세워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닌가.

(중략)

눈이 어두운 남선비는 길을 알 리가 없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앞장을 서서 길을 찾아가는데 그게 또한 길을 알리가 없는 것이다. 가다가 골목이 당하면 이 골목으로 쑥 들어가려 하고 저 골목으로도 쑥 들어가려 하는 것이다.

“어머님은 어째서 벌써 길도 잊었습니까?”

“애들아, 말도 말아라. 너희들의 아버지 찾아오노라고 하도 고생을 해서 정신이 어쩔어쩔하단다.”

형제들은 확실히 석연치 않은 데가 있구나 생각하였다.⁸³⁾

이 부분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남선비야 눈이 멀어 여산부인과 노일제대 귀일의 딸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함께 산 아들들마저 어머니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분명히 다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설정은 세경 본풀이에서도 나타나는데, 자청비가 남장을 하여 활락궁이의 딸과 결혼하고 서천 꽃밭을 떠나는데 시간이 흐른 후 문도령을 자신 대신에 활락궁이의 딸에게 보내게 된다. 이때도 활락궁이의 딸은 문도령을 자청비와 구분하지 못한다. 제주 민담 ‘모관 양반 이야기’에서도 자기 사위, 남편이 다른 사람이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화적 환경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전통적 정서에서 한국 부부 관계와 남녀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비교해 보고 현대와 다른 점을 설명한다면 문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대목에서 형제들이 내어 놓는 물건들은 의(衣)와 관련이 있다. 형제들이 내어 놓는 물건은 첫째 망건, 둘째 두루마기, 셋째 적삼, 넷째 고의, 다섯째 행전, 여섯째 버선이다. 다른 나라의 의복과 현대의 의복을 또한 여기서 비교해 보는 수업도 가능하다.

형제가 자기 어머니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대목도 특이하다. 가장 명징한 증거인 외모를 제쳐두고 어머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집 위치’와 ‘밥상 배치’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다른 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묘사가 되는데 이는 의식주 가운데 식(食), 주(住)를 보여주면서 그 중요성을 암시적으로 나타내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는 주, 식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다른 나라는 어떤 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다.

어느 날, 귀일의 딸은 삼시에 배가 아프다고 방 네 귀를 팽팽 돌기 시작하였다.

83) 현용준(1996), 앞의 책, pp.187-189

“아야 배여, 아야 배여!”

가뜩이나 부인을 사랑하는 남선비는 부인이 사경에 이르러 가자 혼곶을 먹고 당황하였다.

“어찌하면 좋으리.”

“설운 낭군님아. 나를 조금이라도 살릴 마음이 있거든 요기로 요 길가다 보십시오. 대로변에 먹서리를 쓰고 앉은 문복쟁이가 있을 테니, 거기 가서 문복이나 해 보아 주십시오.”

(중략)

“문복이나 지어 주십시오.”

“어떤 문복이 되옵니까?”

“우리 부인이 삼시에 신병이 일어나 죽을 사경이 당하여 왔습니다.”

역시 점쟁이는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다가,

“아들 일곱 형제 간을 내어 먹어야 신병 좋으리다.”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귀일의 딸은 다시 지름길로 달려와 더욱 죽어 가는체 하고 있었다. 남선비가 들어왔다.

“아야 배여, 아야 배여! 가니 무어라고 합디까?”

“일곱 형제 간을 내어 먹어야 좋겠다고 하더라.”

“아이고 할 수 없구나, 설운 낭군님아. 그러거든 아들 일곱 형제 간을 내어 주십시오. 내 살아나서 한꺼번에 세쌍둥이씩 세 번만 낳으면, 형제가 더불어 아홉 형제가 될 게 아닙니까?”⁸⁴⁾

이 대목에서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문복쟁이(점쟁이)로 변장해 계락을 꾸미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문복(問卜)은 점쟁이에게 길흉을 묻는 행위로서 현재는 일반인과 청소년들 사이에 잘 쓰지 않는 단어다. ‘점을 치러 간다’거나 문복이란 말을 그대로 풀이해 ‘복을 물으러 간다’고 바꾸어 써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병(神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무당이 될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그 때문에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신령이 걸린 죄가 아닌가’ 물어보라고 한 것이다.

84) 현용준(1996), 앞의 책, pp.189-192

이 병 치료는 일반적으로 의학적 처방을 할 수 없다. 더구나 문화적 의미로서 ‘문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과거 점쟁이가 의사를 대체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다른 유사한 문화가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의 몇몇 용어도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이해가 어려운 수준이다. 용어를 적절히 재구성해 본다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V-4> 제주 설화 재구성 예시3

원본	재구성본
알카	번쩍
번	나쁜 일
사경에 이르러 가자 혼겉을 먹고	죽을 듯 소리치자 덜컥 겁이 나서
먹서리	짚으로 만든 모자
소로	작은 길
문복쟁이	점쟁이

이 장면에 제주 속담 ‘벤 짐은 갈랑 저도 빙은 못 갈랑 진다’를 활용해 넣으면 적절하다. 짐은 갈라서 질 수 있으나 병은 아무리 그 사람이 소중한데 가를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산에서 노는 가마귀도 석 돌 열흘이 지나면 부모 공 가픈다’는 속담을 활용해 넣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태도를 강조해 일곱 형제가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장면에 쓰면 좋을 듯하다. 한국에서의 효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현대의 효 개념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형들은 네거리에서 기다리게 하고 막내 동생 녹디생인이 집으로 들어갔다. 역시 아버님은 칼을 슬근슬근 갈고 있었다.

“아버님아 아버님아, 어떤 일로 칼을 갑니까?”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어머니가 신병이 나 사경에 이르므로, 어디 가서 문복을 하였더니, 너희들 일곱 형제 간을 내어 먹어야 낫겠다 하길래, 간을 널려고 칼을 가노라.”

“아버님아 그거 좋은 일입니다. 어머니 신병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아, 아버님 손으로 우리 일곱 형제 간을 내면 송장 일곱을 물어야 할 게 아닙니까. 그 칼을 이리 주십시오. 제가 형님들을 굴미굴산 깊은 곳에 데리고 가서 여섯 형님네 간을 내어 오겠습니다. 어머니가 먹어 봐

서 효과가 있거든 저 하나는 아버님 손으로 간을 내옵소서.”

“어서 그리 하자.”

칼을 내어 주니, 녹디생인은 형님들을 데리고 눈물로 다리를 놓으며 굴미굴산 깊은 곳으로 향하였다. 가다가다 몸도 지치고 시장기에 몰려 일곱 형제는 길가에 주저앉았다. 잠깐 잠이 들었다. 저승으로 향해 가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났다.

“설운 아기들아, 어서 빨리 눈을 떠 보아라. 산중에서 노루 한 마리가 내려온다. 그 노루를 잡아서 죽일 판으로 두르고 있으면 알 도리가 있으리라.”

눈을 번쩍 뜨고 보니, 과연 노루 한 마리가 저 산에서 뛰어 내려오고 있었다. 일곱 형제는 와르르 몰려들어 그 노루를 잡았다. 금방 죽일 판으로 둘러쌌다.

“설운 도련들아, 나를 죽이지 말고 내 뒤에 보면 산돼지 일곱 마리가 내려오고 있으니 그걸 잡으십시오. 어미는 씨 전종할 것으로 남겨 두고 새끼 여섯 마리를 잡아 간을 내어 가면 될 게 아닙니까?”

노루가 차근차근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다.

“이놈 거짓말 아니냐? 만일 거짓말이면 용서하지 않는다.”

이놈을 식별한 증거로 노루 꼬리를 짚막하게 끊고, 엉덩이에 백지 한 장을 붙여 놓았다. 그때 낸 법으로 노루 몸뚱이가 아리롱다리롱하고 노루 꼬리가 짧아졌다.⁸⁵⁾

이 대목에서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계락을 알아차린 녹디생인이 그에 대항하여 전략을 짜는 장면이 나타난다. 남선비는 아들들을 살해하기 위해 칼을 가는데 이 장면은 개연성을 주기 위해 들어간 장면이다. 누군가를 살해하는 행위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 행위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살인자를 처벌하는 방법은 매우 극단적이었다. 전쟁 상황이 아닌 일상에서 살인은 비생산적인 행위라 보통은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선비는 칼을 갈면서 이웃에게 행위의 목적을 자못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 또한 녹디생인이 아버지에게 다시 물었을 때도 여전

85) 현용준(1996), 앞의 책, pp.192-194

히 살해 계획을 담담히 이야기한다. 그런데 여기서 녹디생인의 반응이 또 흥미롭다. 아버지의 무지함과 무모함에 반기를 들고 따지거나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결정에 동의하며 한술 더 떠 아버지의 수고를 덜어주겠다며 나선다. 물론 이것은 녹디생인이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계락을 간파하고 대응을 세우기 위한 거짓말이었으나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녹디생인의 말하기 전략이다. 그것은 ‘공감적 대화’하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심지어 상대방의 말이 전혀 말도 안 되는 발언임에도 그에 공감하고 사태를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 이 행위는 자칫 비극적이고 참담할 수 있는 상황을 희극적이고 해학적으로 바꾸게 된다. 한국 문학의 해학성이 어떻게 드러나며 이러한 문화가 다른 문화권에도 있는지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이 대목에 ‘청태산 마구할망’이 형제들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는데 녹디생인의 조력자로 등장한다. 녹디생인에게 사건의 전말을 알리면서 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가장 상식적으로 반응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조력자로서 ‘꿈 속 어머니’가 등장한다. 어머니는 형제들에게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준다. 여기서 이 역할을 하는 조력자가 산신령이라는 설정도 있다.(장주근 2001: 198-199)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력자가 등장하는 것은 설화에서 자주 나오는 설정이다. 차사본풀이에서는 과양생이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끄끙 앓고 있던 김치원님에게 강림이를 시켜서 저승에 보내라고 조언하는 김치원님의 아내나, 저승 갈 길을 모르는 강림이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조왕할머니, 문전할아버지, 세경본풀이에서 부모에게 쫓겨나 갈 곳 잃은 자청비를 도와주는 주모 할머니, 삼공본풀이에서 집에서 쫓겨나 방황하던 감은장아기를 거뒀던 할머니, 할아버지 등이 있다. 조력자는 어려운 상황에 닥친 인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사건의 국면을 전환시키는 존재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꼭 필요한 요소다. 다른 지역 설화, 다른 이야기에서 조력자가 나타나는 문학이 있다면 공유해 볼 수 있다.

걱정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형제들에게 녹디생인이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데, 제주 속담을 활용해 말을 이어가면 어떨까 싶다. 인용할 속담은 ‘걱정이 반찬이 된 상발이 무너난다’이다. 걱정을 반찬으로 하면 밥상 다리가 무너진다는 뜻이다. 걱정만 할 게 아니라 해결을 해 보자는 의미로 쓰면 좋을 듯하다. 이어 ‘맹심호

른 맹심 덕이 싯나'라는 속담을 활용해 장면을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다. 명심하면 명심한 덕이 있다는 뜻으로 조심하면 매사가 안전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와 유사한 속담이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시장기에 몰려’나 ‘식별한’ 등의 표현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바꿔서 재구성해 보았다. 또한 ‘씨 전종할 것’이라는 표현은 어렵기도 하면서 청소년 교육에 부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좋을 것이다.

<표 IV-5> 제주 설화 재구성 예시4

원본	재구성본
시장기에 몰려	배가 고파
씨 전종할 것	(삭제)
식별한	구분할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요소는 ‘유래담’적인 요소다. 문전본풀이에서는 두 가지 대목에서 유래담적 성격을 보이는데 하나는 마지막에 노일체대귀일의 딸이 죽은 뒤 신체가 여러 생물로 변하게 되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가 녹디생인에게 잡힌 노루 꼬리가 짧아지고 엉덩이가 하얗게 된 사연이다. 유래담만을 떼어 생각하자면 유래담의 증거물은 보편적이다. 이는 전설의 증거물이 구체적이고 지역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지영, 2007: 22)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들었던 전설이나 민담 중에 유래담이 있는지 물어보고 여러 유래담에 담긴 문화를 찾아보는 활동도 할 수 있다.

노루를 놓아 주고 잠시 있으니 과연 산돼지 일곱 마리가 저 산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었다. 노루 말대로 어미는 씨 전할 것으로 살려주고, 새끼 여섯 마리를 잡아 간을 내었다. 일곱 형제는 산돼지 간을 돌돌 싸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다.

(중략)

“어머님아, 이걸 잡수어 보십시오. 형님들 여섯 형제 간을 내어 왔습니다.”

“아이고 설운 아기야, 효자로구나. 중병 든 데 약 먹는 거 보는 법 아니다. 너는 저기 나가 있거라.”

(중략)

녹디생인이 화를 벌컥 내며 달려들어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쉰댓 자(55尺) 머리를 좌우로 핑핑 감아 한쪽으로 잡아 옆질렀다. 그러고는 자리 밑에 숨겨 놓은 간 여섯 개를 한 손에 세 개씩 들고 지붕 용마루 높은 곳에 올라갔다.

“요 동네 어른들아, 저 동네 어른들아, 의붓어머니(계모) 의붓자식 있는 사람들아. 요거 보고 조심하십시오! 설운 형님들이여 동서로 달려드십시오!”

큰 소리로 외쳐 댔다. 형들이 와라치라 달려들었다.

집안이 왈칫 뒤집혔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남선비는 달아날 길을 잃어, 엉겁결에 올래(집으로 드나드는 골목길)로 내달다가 거기에 걸려 있는 정낭(사람이나 짐승의 출입을 막기 위해 올래에 가로 걸쳐 놓은 굵은 나무 막대기)에 목이 걸려 죽었다. 그래서 주목지신(柱木之神: 정낭을 걸치게 올래 양쪽에 세워 놓은 기둥의 신)·정살지신(정낭의 신. 정낭을 정살이라고도 함)이 되었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아들들이 달려드는 바람에 바깥으로 내달을 수도 없어, 벽을 허위 뜯어 구멍을 뚫고 변소로 도망치다 쉰댓 자 머리털에 목이 매어 죽었다. 변소의 신(神)인 축도부인(廁道婦人)이 된 것이다.

일곱 형제가 달려들어 죽은 위에 다시 복수하려고 두 다리를 찢어 발겨 드딜팡(용변 볼 때 디디고 앉는 납작한 돌)을 마련하고, 대가리는 끊어 돌도고리(돼지먹이 통)를 마련하고, 머리털은 끊어 던지니 저 바다에 가패(해조류의 일종)가 되었다. 86)

이 대목은 문전본풀이의 절정 부분으로 녹디생인의 꾀에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넘어가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다. 녹디생인은 산돼지의 간으로 노일제대귀일의

86) 현용준(1996), 앞의 책, pp.194-197

딸을 속이고 그 계략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다. 애초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신병을 앓지도 앓았고, 앓지도 앓은 신병의 치료제가 일곱 아들들의 간이라는 거짓말로 인해 스스로 함정에 빠져 죽게 된다. 그리고 비위생의 상징과도 같은 측간의 신이 되는데 이후에 아들들에 의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잔인하게 징치 당한다. 이 부분은 재구성 과정에서 삭제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다. 악인의 죽음은 <차사본풀이>의 과양생이가 죽는 장면과 유사한데 그 시신이 인간에게 해로운 해충인 각다귀와 모기로 변하는 모습까지 비슷하다. 다만 계모설화 속 계모가 왜 징치의 대상이 되는지를 문화적으로 해석해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 부분의 문화요소로는 구들장, 정낭, 용마루, 창구멍이 있다. 제주도의 전통가옥은 억새풀로 지붕을 엮어 만들기 때문에 용마루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은 용마루 대신 억새 지붕으로 바꾼다면 가옥문화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 정낭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정낭의 나무의 의미와 왜 대문 같지도 않은 나무 막대기가 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 제주도의 정서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도 육지부와 마찬가지로 창문을 한지로 제작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지로 만든 창문은 녹디생인이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계략을 알아차릴 수 있게 만드는 한 요소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다른 나라의 가옥과 환경과 가옥의 관계를 설명해 볼 수 있다.

<표 IV-6> 제주 설화 재구성 예시5

원본	재구성본
거동을	(삭제)
신댓 자(55尺)	(삭제)
용마루	억새 지붕
허위뜯어	뜯어
일곱 형제가 ~ 시원하다	(삭제)

일곱 형제는 우선 황세곤간을 달래어 도환생꽃을 몇 송이 얻어 내고, 그 길로 오동 나라 오동 고을의 주천강 연못으로 달려갔다. 연못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물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명천 같은 하느님아. 주천강 연못이나 마르게 해 주소. 어머니 신체나 찾으리다.”

일곱 형제가 축수를 드렸더니 삼시에 연못이 찾아들었다. 바닥에 어머니

님의 뼈가 살그람이 있었다. 이 뼈 저 뼈 도리도리 모아 놓아, 도환생꽃을 위에 놓고 금봉채로 한번 후려쳤다.

“아이고 봄잠이라, 늦게도 잤구나.”

머리를 긁으며 어머니가 살아났다.

‘어머니가 누웠던 자린들 내버리랴.’

일곱 형제는 어머니 뼈가 놓였던 자리의 흙을 주섬주섬 모아 놓고 시루를 만들었다. 여섯 형제가 돌아가며 한 번씩 주먹으로 짚으니 여섯 구멍이 터지고, 녹디생인은 화를 발각 내며 발뒤꿈치로 한 번을 탁 짚으니 큰 구멍이 가운데 터졌다. 그때에 낸 법으로 시루구멍이 일곱 개 뚫린 것이다.

어머니를 살려 내어 일곱 형제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야, 춘하추동 사시절을 물속에서만 살았으니 몸인들 안 추울 리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일랑 하루 세 번 더운 불을 쬐면서 조왕할망으로 앉아 얻어먹기 마련하십시오.”

어머니는 조왕할망이 되어 들어서게 하고, 일곱 형제는 각각 자기의 직분을 차지하여 신들이 되었다. 큰형은 동방청대장군(東方靑大將軍), 둘째형은 서방백대장군(西方白大將軍), 셋째형은 남방적대장군(南方赤大將軍), 넷째형은 북방흑대장군(北方黑大將軍), 다섯째형은 중앙황대장군(中央黃大將軍), 여섯째형은 뒷문전(뒤쪽 門神)으로 들어섰다.

그때 낸 법으로 오늘날도 명절·기일 제사 때 문전제(門前祭)를 지내고, 그 제상의 제물을 조금씩 떼서 지붕 위에 올린 후, 다시 조금씩 떼서 어머니신인 조왕(寵王)에게 올리는 것이다.

그때 변소의 신인 측도부인과 조왕은 처첩 관계였기 때문에, 부엌과 변소는 마주 서면 좋지 않은 법이다. 부엌과 변소는 멀어야 하고, 변소의 것은 돌 하나, 나무 막대기 하나라도 부엌으로 가져오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⁸⁷⁾

설화의 마지막 대목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이다. 앞선 장

87) 현용준(1996), 앞의 책, pp.197-199

면에서 이미 갈등의 실마리가 풀렸고 사건이 마무리가 됐으나 이 대목이 추가된 이유는 각 형제와 여산부인이 신으로 좌정하는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억울하게 죽은 여산부인을 다시 살려냄으로써 이야기에서 피해자가 없도록 대중의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켜 준다. 제주 설화에서는 이렇게 죽은 이들을 꽃으로 살려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세경본풀이>에서 정수남이, <차사본풀이>에서 과양생이에게 죽은 삼형제, <이공본풀이>에서 원강아미가 그 예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의미에 대해 문화적으로 해석하고, 또 다른 지역 설화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지 비교해 보는 활동도 가능하다.

몇몇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재구성하고 또한 ‘처첩관계였기 때문에’라는 표현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로 고쳐 쓴다.

<표 IV-7> 제주 설화 재구성 예시6

원본	재구성본
명천 같은 하느님아	하느님
축수	기도
도환생꽃을 위에 놓고 금봉채로 한번 후려쳤다.	도환생꽃을 뿌려 놓았다.
직분을	위치를
처첩 관계였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제주 제례에서 문전제, 조왕제를 지내는 이유를 문화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왜 시루떡에 시루에는 구멍이 7개인지 설명해 준다. 여기서 제주에서는 ‘침떡’으로 부르는 시루떡을 소개하고 떡을 어떤 날 먹고, 어떤 의미로 만드느지를 가르쳐줄 수 있다. 문전제와 관련해서 제주에서는 제사 때 문전신을 모시는 문전제를 지내야 조상신이 집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문전제를 지내고 본 제사를 올렸다. 또한 집안에 큰일을 앞두고 문전제를 올렸는데 <차사본풀이>에서는 강림의 저승행을 위해 강림 부인이 문전할아버지와 조왕할머니를 정성껏 모셔서 그 이후로 이런 풍습이 생겼다고 전하기도 한다. 다른 지역의 가신 신화가 있는지 찾아보고 비교해 보는 활동도 해 볼 수 있다.

3. 제주 설화의 문화교육 방법

제주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은 동화주의적인 방법론으로 여길 수도 있다. 제주 설화라는 특정한 문화를 다른 나라에서 온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보급하고 문화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한편으로는 제주 문화를 중심으로 한 동화주의적 입장으로 볼 수도 있다. 동화주의는 우월한 문화가 우월하지 않은 문화를 억누르고 통합한다고 본다. 그러나 제주 설화를 활용한 문화 교육 최종목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완벽한 제주화가 아니며 실제로 이러한 목표는 달성될 수도 없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제는 정체성 문제이며, 새로 자신이 정착한 지방 문화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부수적인 부분이다. 문화지식 수만 가지를 학생에게 가르쳐 완벽히 외우게 했다고 하여 학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말이다. 만일 그런 목적이라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제한적인 문화지식은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 국내 출생 학생이 겪지 않은 문화접변을 겪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하나의 문화 요소를 교육하고 그와 상반된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경험은 문화를 인식하는 시각을 갖게 해 준다는 점에서 분명 동화주의적 교육과는 차별성이 있다.

제주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 목적은 학생이 문화 다양성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자기 세대만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있다. 그 창조 과정에서 발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요소를 판별하는 시각을 기르고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상호문화주의 관점을 얻는다면 그것이 곧 문화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다.

상호문화주의 관점을 얻기 위한 문화교육 방법으로 이번 장에서는 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를 기반으로 한 문화교육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학습 활동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 방법론을 제시하며, 비교과 활동으로서 설화 교육 캠프 활동을 설계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학생이 목표 문화를 배워 지식을 얻고 타 문화를 받아들이는 관점을 획득하며,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방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문화교육 모형

문화교육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문화 정체성 발달 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교육 모형은 이 발달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문화교육 모형 연구는 은지용(2009)⁸⁸⁾이 Sue&Sue(2008) 인종 문화적 정체성 발달 이론과 Banks(2006) 문화 정체성 발달 이론, Bennett&Bennett(2004) 상호문화적 감수성 발달 이론을 종합해 제안한 다문화 학습 단계 및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문화사대주의⁸⁹⁾ 및 자문화중심주의 인정 단계다. 이 단계는 자신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다는 문화사대주의나 자문화중심주의를 스스로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화사대주의, 자문화중심주의적 사고와 선입견을 점검해보는 데 주안점을 둔다.

둘째, 자문화와 타문화의 차이 인지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자문화와 타문화의 차이점을 선입견이나 판단 없이 그대로 인지한다. 앞 단계에서 자신의 선입견을 인정하였다면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선입견이 작용하지 않게 된다. 다만 타문화를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적어도 자문화와 타문화를 동등하게 인식하게 된다.

셋째, 자문화와 타문화 이해 및 존중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의 자문화와 타문화 차이 인지를 넘어서 타문화의 그 나름대로의 가치와 정체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맥락적으로 자문화와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안내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넷째, 자문화 및 타문화 성찰 단계다. 이 단계는 자문화와 타문화를 반성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다. 타문화뿐만 아니라 자문화를 제3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비판하고 성찰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이해와 존중을 넘어 인간 존엄, 평등, 정의와 같은 인류 보편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 또한 타문화와 자문화의 반성적 평가를 통해 문화 특성과 장단점을 알게 된다.

다섯째, 다문화적 문제 및 갈등 상황 대처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문

88) 은지용(2009), 「다문화적 인성 발달 이론에 기반한 다문화 학습 모형 탐색」, 『시민교육연구』 41.1. 107-139.

89) 문화사대주의는 자신의 문화를 미개한 문화라고 여기고 우수한 문화를 따르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

제와 갈등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성을 함양한다. 문화적 차이는 단순히 이론을 넘어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실제로 문화적 차이로 오는 갈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 전체 발달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8> 상호문화적 감수성 발달 단계(은지용, 2009)

발달 단계	내용
1. 문화상대주의 및 자문화중심주의 인정	자신이 갖고 있는 문화상대주의 및 자문화중심주의의 선입견을 인정한다.
2. 자문화와 타문화의 차이 인지	자문화와 타문화의 차이를 선입견을 버리고 서로 객관적으로 인지한다.
3. 자문화와 타문화 이해 및 존중	타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4. 자문화 및 타문화 성찰	자문화와 타문화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비판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로 생각해본다.
5. 다문화적 문제 및 갈등 상황 대처	실제 다문화적 문제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

위 상호문화적 감수성 발달 단계를 토대로 문화 인식 확장 모형을 제안한 연구로는 안영은(2022)⁹⁰⁾을 참고할 만하다. 그는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는 수용-적응-통합의 단계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이는 곧 상호문화교육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단계별 교육목표와 실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방법임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 수업 모형을 ‘인식 확장 모형’으로 제안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90) 안영은(2022), 「학습자의 인식 확장을 위한 다문화 수업모형」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표 IV-9> 문화 인식 확장 모형(안영은, 2022)

1. 자문화 인식	자신이 가진 기존의 문화적 틀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객관적인 관점으로 성찰
2. 타문화 인식	자신과 다른 문화를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 자체의 가치를 인식하며 수용
3. 양문화 비교	자문화와 타문화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
4. 확장문화 형성	자신이 가진 기존의 문화적 틀을 확장하여 새로운 문화 틀로 내면화

첫 번째로 자문화 인식 단계는 자신이 속한 문화를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단계를 말한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난 문화에 맞춰 문화적 틀을 갖고 있다. 문화적 틀은 성별, 신앙, 교육, 인간관계, 생활양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 과정 없이 이 틀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 단계에서는 문화마다 다양한 차이를 인지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자기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춘다.

두 번째로 타문화 인식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자기 문화와 다른 문화를 바라보면서 우열이나 편견 없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갖도록 한다. 1단계에서 자신의 문화를 인식하고 문화 다양성을 깨달았다면 2단계에서는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 갖추어야 할 태도를 익히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쌓는 것이다. 타 문화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통해 이 단계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세 번째는 양 문화 비교 단계로 앞서 인식한 문화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문화 간 차이 발생 요인이 대해 생각해본다. 그리고 문화 간 차이로 오게 되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협력과 소통 역량을 기른다. 양문화 간 비교는 피상적인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깊이 있게 상호 교류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는 확장문화 형성 단계로 자신의 문화적 틀을 성장시키고 확장하여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단계다. 학습자는 이 단계에서 새로운 자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학습자는 각기 다른 문화를 해석하는 자신만의 틀을 갖게 되며, 이 역시 하나로 동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그 자체가 정상성을 가진 상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교수자가

주의할 점은 학습자가 이 단계를 통해 확장문화를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확장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인식 확장 모형은 한국 출생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문화교육 모형으로 보인다. 또한 자문화와 타문화를 인식하고 교육해야 하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적용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에서 ‘자문화’는 한국 문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문화가 무엇인가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모두 ‘자문화’로 환원되는 확장문화 형성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국어과 설화 교육에서 문화교육 모형을 제안한 연구로는 신수자(2006)⁹¹⁾가 있는데 그는 국어과 설화 교육 교수학습 방법을 ‘문학 수용 설화 교수학습 모형’, ‘문학 전달 설화 교수학습 모형’, ‘문학 가공 설화 교수학습 모형’, ‘문학 생산 설화 교수학습 모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위 논의를 종합해 본 연구에서는 설화 활용 문화교육 모형을 ‘텍스트 읽기 단계’, ‘텍스트 내용 이해하기 단계’, ‘텍스트 속 문화요소 이해하기 단계’, ‘문화 비교 고찰 단계’, ‘확장 및 내면화 단계’로 설정하였다.

<표 IV-10> 설화 활용 문화교육 모형

텍스트 읽기
텍스트 내용 이해하기
텍스트 속 문화요소 이해하기
문화 비교 고찰
확장 및 내면화

첫째, 텍스트 읽기 단계다. 설화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를 읽고 수용하는 단계로 원전을 가공한 설화 텍스트가 제공된다. 여기서의 ‘읽기’란 시각적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설화는 교사의 구연을 통해 전달될 수 있고 이야기책처럼 사진, 그림과 같은 보충 자료와 함께 제공될 수도 있다. 텍스트 읽기 단계에서는 어려운 단어를 일일이 찾아보며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야기 흐름에 따라 이야기 전개를 받아들이는 단계다. 설화를 읽기 전에 사전 정보를 환기함으로써 읽기 단계 전체 과정을 더 원활히 진행할 수도

91) 신수자(2006), 「국어과 설화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11, 73-116.

있다. 사전 자료로 재미있는 제주 방언을 찾아보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표현을 말해 보는 활동도 괜찮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는 활동도 해 볼 수 있다.

둘째, 텍스트 내용 이해하기 단계다. 설화 텍스트를 다시 한 번 천천히 스스로 읽어보는 단계다. 제주 설화 재구성 자료에는 다양한 방언이 쓰일 수 있다. 또한 제주에서만 쓰는 독특한 속담도 있다. 언어의 자세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만 이 단계에서 너무 어휘에만 집중되는 수업은 지양해야 한다. 어려운 어휘는 학습자의 흥미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 내용 이해 단계에서는 등장인물 면면을 살피며 그들 행동의 개연성을 서로 이야기해 보는 활동도 할 수 있다. 이는 한 문화권의 등장인물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에 바탕이 되는 정서는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텍스트 속 문화요소 이해하기 활동이다. 제주 설화 읽기 후 그 안에 있는 문화요소를 찾아본다. 문화 개념은 너무 광범위해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문화인가를 먼저 알려줄 수 있다. 문화 유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찾도록 한다. 제주 설화에서는 제주 사람들의 남녀평등 사상, 제주 방언과 속담, 제주의 주거문화와 민간신앙 등을 찾아 이해할 수 있다.

넷째, 문화 비교 고찰 단계다. 제주 설화 속 등장한 문화요소를 이해하였다면 현재 살아가는 한국의 일반 문화와 중도입국 청소년의 모국 문화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문화 비교 고찰은 단지 어떤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떤 문화적 요소가 왜 발생했는가, 그렇다면 그 요소가 다른 문화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같은 요소는 무엇이며 그로 인한 공통점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이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다섯째, 확장 및 내면화 단계다. 하나의 문화권에 살면서 문화를 생각해 보기는 쉽지 않다. 문화는 다른 문화와 만났을 때 비로소 인지되고 인식된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마주하는 현실이 그렇다. 이 학생은 태어난 문화권에서 살다가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해 온 학생이다. 그 때문에 변화된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문화교육 확장과 내면화는 그 과정에서 최종 단계다. 문화적으로 동일화는 이질감 없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단계이고 외

적인 차이를 떠나 내면적으로는 하나의 문화에 적절히 녹아드는 과정이다. 그러나 동화주의적 입장에서 내면화는 지양해야 한다. 문화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문화의 주도권을 가진 생산 주체가 되었을 때 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추는 것이 이 문화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2) 문화교육 학습활동

학습 활동은 학생들의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확장하며 문화교육 내용을 내면화 하는 과정이다. 설화 문화교육 학습 활동을 만들면서 고려한 사항은 첫째, 학습자 수준에 따라 적용이 가능한지였다. 학습 활동 자체가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 높다면 학습 활동 자체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어떤 학습 활동은 중등 청소년이 수행하기에는 너무 수준 낮아 유치한 활동도 있다. 수준에 맞게 학생들이 활동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문화교육 학습 활동은 모둠 활동을 권한다. 이는 문화교육의 근본적인 속성 때문인데, 문화는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교육은 지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과 내면화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모둠원들과 토의를 하며 문화적 요소를 찾아내고 적용하면서 연습하는 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온전히 홀로 학습 활동을 수행하기보다는 모둠원들과 함께 내면화하는 훈련이 권장된다.

또한 학습 활동은 평가의 기능을 겸한다. 평가는 점수를 기준으로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토대로 교사가 적절히 교정하고 교수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학습 활동은 학생들이 문화교육에 얼마나 잘 참여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의 연장이다. 이 때문에 학습 활동 결과를 교사가 반드시 적절한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문화교육 학습 활동의 예로 서인덕(2014: 79-85)은 열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상호 문화 비교 설명하기’, ‘구연하기’, ‘인터뷰하기’, ‘편지쓰기’, ‘등장인물 감정분석표 만들기’ 등의 활동이다. 그가 제안한 문화교육 학습 활동은 이주 배경 여성의 문화교육을 위한 학습 활동으로 ‘편지 쓰기’, ‘나라별 문화 소개하기’같은 활동은 내용 상 중도입국 청소년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일부 활동을 변용해 적용하되 새로운 학습 활동으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문화요소 찾아 발표하기

설화 속에서 문화요소를 찾아 발표하는 활동은 학생이 스스로 설화를 읽고 할 수 있는 활동이다. 문화라는 말이 매우 광범위하듯 문화요소를 찾는 일 또한 한 가지 대목으로 설명될 수 없다. 학생이 스스로 의견을 발산할 수 있도록 모둠별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아이디어 발산 기법 가운데 하나인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해 활동을 고안해 보았다. 먼저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각자가 어떤 요소를 찾았는지 적어보도록 한다. 그리고 팀에서 비슷한 의견을 모아 분류한다. 이 분류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도록 한다. 이때 포스트잇은 개인별로 5~10장씩을 나눠주어 시간 내에 각자가 적도록 한다. 타인의 의견을 듣기 전에 자신이 생각하는 문화요소를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팀 내에서 의견을 발표할 때는 비판, 평가를 하지 않는다. 팀에서 정리된 의견은 팀 대표가 발표한다.

(2) 설화 장면 그려보기

설화는 서사성을 갖춘 이야기로 그 안에는 여러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한다. 인상적인 장면을 학생이 상상해보고 그 상상해 본 것을 시각화하는 작업이 설화 장면을 그려보는 것이다. 설화 읽기가 끝나고 학생들에게 그려보고 싶은 장면을 고르게 한다. 그리고 간단히 스케치해 보도록 한다.

이야기의 장면을 그려본다는 것은 문자로 된 이야기를 실제 내 앞에 재연하는 활동이다. 특히 상상력을 더해 이야기가 진행되는 어떤 장면으로 깊이 빠져드는 일이기 때문에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데 그것을 시각화하는 것이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문제를 떠나 얼마나 자세히 그리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림 속에 문화적 요소가 드러나는가를 판단해 보면 좋을 것이다. 특히 당시 복장과 가옥 모습, 삶의 장면이 그림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시해 주어도 좋다. 제주 곳곳에서 보이는 정남 사진이나 옛 한복의 모습을 사전에 시각 자료로 제시해 주었다면 학생들이 상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설화 구연해 보기

학생들은 제주 설화 소비자이자 생산자다. 설화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 바로 집단 창작이기 때문이다. 저작권 인식으로 문학 작품이 하나의 개인 창작물로서 존재하게 된 시대 이전부터 구전 문학으로 설화는 존재해 왔다. 설화를 접한 학생들도 이 창작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설화를 구연해 보는 활동이다.

설화 구연은 단순히 설화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 속 자세한 플롯과 열개를 기억해야 하고, 이를 실감나게 재연해야 한다. 그리고 설화 구연은 청자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청자의 반응에 따라서 다양한 구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제주 설화는 신화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 민담과 전설이 함께 존재한다. ‘구연’이라는 행위를 학생들이 연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양한 이야기를 문자로 전달해 구연해 보는 활동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에 관해 청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설화 구연 현장의 실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설화 구연은 청자와 정서적 교감은 물론이고 문화적 요소를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다. 학생이 단지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내가 그 이야기를 해 봄으로써 구연의 묘미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떤 부분은 생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개연성에 따라 더욱 자세히 바뀌거나 변용이 되기도 한다. 설화는 그런 변용을 통해 다시 창작될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이 학생들은 진정한 설화 전달자가 되는 것이다.

(4) 설화 등장인물 표 그려보기

설화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 외모 등을 표로 그려보는 활동이다. 학생들이 각 등장인물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표로 그려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드라마 시놉시스를 검색해 그와 비슷한 서식으로 그려보도록 할 수도 있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나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만화 홈페이지에서 등장인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검색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방

식을 따라서 써 보도록 한다.

등장인물의 행동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극을 제시해 주어도 좋다. 예를 들어 ‘제주 설화 등장인물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돈을 주웠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행동할까?’와 같은 상황극을 주어도 좋다. 학생들은 각자가 그 인물이 그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할까를 예측해서 적어보고 표현해 볼 수 있다. 이는 학생의 상상력을 길러줌과 동시에 인물 관찰 능력을 길러준다.

또한 등장인물과 비슷한 인물을 다른 이야기에서 찾아보는 활동도 해 볼 수 있다. 다른 이야기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 만화 영화 속 등장인물도 좋고, 다른 설화 속에서 찾아봐도 좋다. 모둠별로 나누어 학생들이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면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인물이 나타날 수 있다. 설화 속 인물은 유형화된 인간상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이야기에서 쉽게 공통 성격을 가진 인물을 찾을 수 있다.

이 활동은 학생이 인물을 이해하면서 그 인물의 성격이 형성된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같이 배울 수 있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인물에 심취하며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와 자라난 배경 속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

(5) 설화 패러디

김준오(2003)⁹²⁾는 ‘변용’과 ‘모방’, ‘골계’가 패러디를 구성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그러나 희극적인 패러디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패러디의 개념은 ‘상호텍스트성’을 기반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하였다. 패러디는 모방이면서 비평 형식이며, 원작과 패러디 한 작품의 이중구조로 된 상호텍스트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또한 패러디는 고정된 정전을 중시하던 인문주의에 반한 도전으로서 탈중심적 양식이라고 하였다.

설화는 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패러디하기에 무척 좋은 장르다. 그리고 패러디의 성격 가운데 ‘모방’은 학생들이 어떤 대상을 따라 하기 위해 ‘관찰’을 필수적으로 거친다. 특히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 설화의 언어적 기법을 관찰하고 모방한다면 쉽게 그 양식을

92) 김준오(2003), 『시론』, 삼지원

따라할 수 있다.

패러디에는 변용도 포함된다. 학생이 설화를 모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그 안에 담게 된다면 충분히 창의적인 변용도 가능하다. 또한 설화 속에 나타난 뻔한 이야기를 자신만의 창의적인 새로운 이야기로 써 낸다면 그 자체가 적절한 창작 활동이다. 최근 청소년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웹툰 가운데는 정설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변용해 새롭게 재창작한 것들이 많다. ‘서유기’, ‘삼국지’, ‘홍길동전’ 등은 여러 웹툰에서 변용하여 새로운 이야기로 독자의 관심을 끄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웹툰을 참고 자료로 제시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쓰도록 유도한다면 효과적인 창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6) 설화 속 사건으로 기사문 쓰기

설화를 기사문으로 써 보는 활동도 설화 이해에 도움이 된다. 기사문은 육하원칙에 따라 써야 한다. 즉 설화 속 장면을 기사문으로 쓰려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설화 속에서 모든 장면의 육하원칙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학생이 상상해서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문전본풀이에서 남선비가 쌀장사를 하러 떠나는 장면을 기사로 써 본다고 하자.

<표 IV-11> 설화 활용 기사문 쓰기 예시

남선 고을 남선비(40)가 오늘 오후 3시경 오동마을로 쌀을 사러 떠난다고 한다. 남선비는 집안에 돈이 없어 장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선비는 집안에 있는 재산과 부인인 여산부인이 품팔이로 번 돈으로 쌀을 구입해 오기로 하였다. 이 쌀은 조만간 남선 고을에 유통될 예정이다.

한편, 남선비의 일곱 번째 아들 녹디생인은 “아버지께서 과연 재산을 잘 불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다”라고 전하였다.

기사문 쓰기 활동은 설화 속 장면을 그려보는 활동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앞서 학생이 그린 설화 속 장면을 참고 자료로 제시해 그에 맞는 단신 기사문을 써 볼 수 있다.

이 활동은 학생이 기사문의 형식을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기사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쓰는가를 연습해 볼 수 있다. 기사 쓰기는 형식이 정해진 글쓰기라 학생들이 쉽게 따라 쓸 수 있다. 이를 교사가 사전에 교육한다면 쉽게 글쓰기를 완성할 수 있다.

(7) 설화 연극

설화 연극은 설화를 말 그대로 연극으로 꾸며보는 활동이다. 이는 설화 속 대사를 희곡으로 제작하는 과정 및 설화 장면을 실제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연극은 희곡을 대본으로 하지만 문학의 영역만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무대를 꾸며야 하고 의상을 디자인해야 한다. 그리고 대사를 외워야 하며 이를 적절한 ‘연기’로 발성해야 하는 말하기 영역도 포함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배경 음악을 재생하도록 한다면 종합예술로서의 연극 준비를 학생이 스스로 하게 된다.

설화 연극은 준비 과정만으로도 학생에게 충분히 큰 도움을 준다. 학생들은 역할을 나누어 누군가는 의상을, 누군가는 음악을, 누군가는 무대를, 누군가는 대사를 만든다. 이후 등장인물을 나눠 대사를 연습하고 실제 상영까지 해 볼 수 있다. 만약 학생이 연극 무대에 서는 것이 두렵고 부끄럽다고 한다면 영상으로 촬영해 방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생이 가진 미디어 도구인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하나의 완성된 영상으로 재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극을 준비하면서 학생은 설화 속 문화요소를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된다. 의상을 준비하면서 설화가 배경으로 하는 당시 복색을 탐구하고 재연하게 되며, 무대 배경을 준비하면서 가옥 형태를 탐구하게 된다. 또한 연극 대사는 학생이 제주 방언을 자연스럽게 말할 때까지 반복 연습을 시켜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8) 설화 연극 홍보 광고 만들기

설화 연극을 제작하면서 동시에 연극 홍보 광고 제작 활동도 진행할 수 있다.

학생에게 자신의 연극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설화 연극 홍보는 포스터로 할 수도 있고 간단한 예고편 영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때는 적절한 홍보 문구를 넣어야 하고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와야 하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 궁금증을 자아내서 연극을 보러 오도록 해야 한다.

홍보 전략은 다른 광고를 참고해서 만들 수 있다. 패러디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좋다. 앞서 이야기했듯 패러디는 모방과 변용이다. 화제가 되고 있는 광고나 영상을 패러디해서 만든다면 재밌는 광고를 만들 수 있다. 광고는 포스터나 영상인데 포스터로 만든다면 그림이나 적절한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설화를 광고하는 강렬한 문구를 학생이 고민해서 제작하는데, 이때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면 좋다. 영상 광고는 연극을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다. 배경 음악을 정하고, 무대를 정하고, 대사를 만든다. 그리고 촬영 후 편집을 한다. 이때 광고 길이는 30초를 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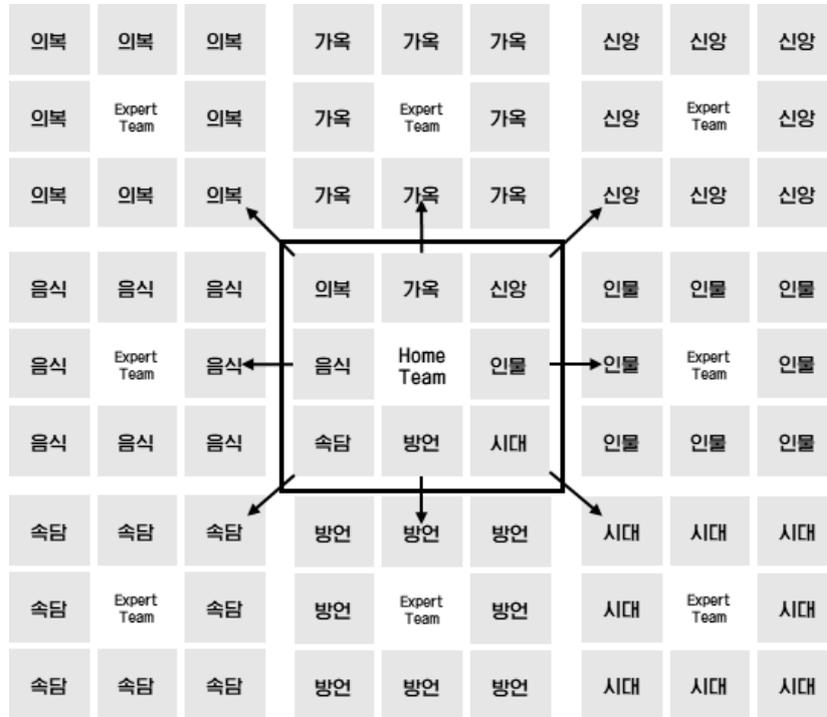
(9) 설화 박물관 꾸미기

설화는 문화의 보물 창고다. 학생이 설화 속 여러 문화적 요인들을 박물관으로 꾸며보는 활동도 시도해 볼만하다. 학생에게 박물관의 개념을 단지 어떤 고대 유적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유연하게 사고를 확장해 ‘창작 전시관’으로 꾸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은 배 모형을 만들어 ‘남선비가 오동 나라로 타고 갔던 배’라고 주장해도 된다. 그러면서 그 배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써 보는 것이다. 이때도 기존 박물관 유적 설명 문구를 모방이나 패러디해도 된다.

설화 속 문화 요인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느냐에 따라 박물관 구성을 다르게 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의, 식, 주를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등장인물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다. 남선비관, 여산부인관, 녹디생인관 및 형제관으로 나눌 수도 있다. 각 분류별로 어떤 문화재나 이야기를 전시할 것인가 학생들이 서로 토의해 볼 수 있다.

모둠 프로젝트로 이 과제를 수행할 때 직소우 기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반에 30명을 6명씩 5개 조로 편성한다. 이후 모둠원 6명이 각 분류별로 전시할 목록과 내용을 학습하고 원 모둠으로 돌아간다. 이후 모둠원들에게 학습

한 내용을 전달하며 한 모둠에서 박물관을 전체적으로 꾸미는 것이다.



[그림 IV-1] 직소우(Jigsaw) 학습법 적용 예시

<표 IV-12> 문화교육 학습활동 예시

번호	활동명	내용
1	문화요소 찾아 발표하기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여 설화 속 문화 요소를 찾아 같은 모둠 친구들과 공유하는 활동
2	설화 장면 그려보기	설화를 듣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상상해서 그려 보는 활동
3	설화 구연해 보기	다양한 지역 민담 및 전설을 조사하여 모둠원들과 돌아가며 구연하는 활동
4	설화 등장인물 표 그려보기	설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중심으로 설명을 써 보고 상호 관계망을 그려보는 활동
5	설화 패러디	설화를 다른 방식으로 재창작, 재구성해보거나 현대를 배경으로 다시 써보는 활동
6	기사문 쓰기	설화 이야기 한 부분을 상상력을 더해 기사문으로 작성해 보는 활동
7	설화 연극	설화를 대본으로 꾸며보고 무대, 의상 등을 직접 디자인하여 연극으로 만드는 활동
8	설화 연극 홍보 광고 만들기	설화를 연극으로 제작하였을 경우를 상상하여 이를 홍보하는 홍보 문구, 홍보 영상을 제작해 보는 활동

번호	활동명	내용
9	설화 박물관 꾸미기	설화에 등장하는 여러 문화요소를 사전 조사하고 조사된 정보를 바탕으로 박물관을 꾸며보는 활동

3) 문화교육 실제

(1) 제주 설화 교육의 성취기준

교육을 위해 성취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방법은 위긴스와 맥타이의 역방향 설계 모형(Wiggins & McTighe, 1998)에 기반을 둔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평가제를 통해 이 방법론이 도입됐는데 이는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게 교육 방법을 구안하는 모형으로서, 기존 ‘목표 제시-교수 활동-평가’ 모형과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의미에서 역방향(Backward) 설계 모형으로 부른다. 이 모형에서는 ‘성취기준 제시-교육방법 설계-교육실시-성취 여부 확인’ 과정을 거치며, 최소 성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 간 경쟁을 줄이고 준거참조평가, 과정중심평가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교육부(2017)⁹³⁾에서 발행한 한국어 교육과정에는 한국어 교육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성취기준은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이룩해야 할 최소한의 목표점을 말한다. 평가원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에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영역에서 6단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야 할 성취기준이 제시돼 있는데 각 1단계, 2단계를 초급, 3단계, 4단계를 중급, 5단계, 6단계를 고급단계로 구분한다. 각 영역에서는 문화교육 성취 목표가 제시돼 있지 않아 설화 교육을 통한 문화교육을 위해서 따로 성취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총괄 수준 성취 목표에서 문화교육 목표 내용 일부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표 IV-13> 문화교육을 위한 성취 목표(교육부, 2017)

단계	문화교육을 위한 성취 목표 언급 내용
1단계	구체적인 문화 산물을 접함으로써 문화를 인식할 수 있다.

93) 교육부(2017), 『한국어 교육과정』, 교육부

단계	문화교육을 위한 성취 목표 언급 내용
2단계	구체적인 문화 산물을 접함으로써 문화 내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함을 이해할 수 있다.
3단계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타문화를 인식할 수 있다.
4단계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대조해 볼 수 있다.
5단계	문화 간 차이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문화 간 감정이입을 경험함으로써 문화적 상대성을 정립할 수 있다.
6단계	자신에게 적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화 간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다원론적 시각에서 수용할 수 있다.

제주 설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에서도 성취기준을 제시해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성취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성취 목표를 단계별로 제시하되 초급, 중급, 고급의 3단계로 단순화하고자 한다. 앞서 IV-3장에서 언급한 문화교육 모형을 보면 1단계 텍스트 읽기와 2단계 내용 이해, 3단계 문화요소 이해, 4단계 문화 비교 고찰, 5단계 확장 및 내면화로 나뉘는데 여기서 1단계 텍스트 읽기를 2단계 텍스트 이해 단계와 함께 묶고, 4단계 문화 비교 고찰 단계와 5단계 확장 및 내면화를 하나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된 평가원의 문화교육 성취기준은 추상적 행동 동사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영역의 성취기준이 구체적 행동 동사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아 설화 교육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성취기준도 구체적 행동 동사로 기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기준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IV-14> 제주 설화 교육을 통한 문화교육의 성취기준

단계	단계별 성취기준
1단계	제주 설화에 나타난 인물과 이야기 흐름을 통해 문화요소를 인식하여 설명할 수 있다.
2단계	제주 설화에 나타난 문화요소를 파악하여 실제 삶에서의 활용 방안을

단계	단계별 성취기준
3단계	말할 수 있다. 제주 설화와 다른 지역 설화의 문화요소를 비교해 보고 양 문화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설화를 접하고 등장인물의 행동과 사고를 통해 문화요소를 인식하는 단계다. 설화를 읽고 수용하며 내용을 파악한다. 내용 파악에서는 단순히 이야기 흐름을 이해하고 등장인물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그 행동의 의미와 이유, 이야기가 어째서 이렇게 진행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는 시각을 갖는 것이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찾은 문화요소를 실제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해보는 단계다. 이는 이야기가 주는 주제가 행동적 실천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다. 적절한 문화요소를 찾아냈다면 이를 사고와 행동으로 바꾸어 적용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제주에 적응하고 어우러져 살아가는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

3단계는 문화적 기반 아래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단계다. 여기서 다른 지역 설화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모국이 될 수도 있고 한국 내 다른 지역이 될 수도 있다. 다른 나라 문화와 공존하는 방안을 고민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진정한 문화적 다양성에 눈을 뜨게 된다. 평가원에서 제시한 다원론적 시각이 이에 해당한다.

(2) 진단 평가

문화교육 수업을 운영하기 전에 학생의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의 진단 평가는 학교 현장에서 학기 초에 실시되는 학습 능력 진단 평가와는 다르다. 학습이 진행되기 전에 그 학습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는 과정으로서의 진단 평가다.

진단 평가는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는데 인지적 영역에서는 설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제주의 문화를 알고 있는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등을 물어볼 수 있다. 정의적 영역에서는 설화나 이야기에 흥미를 갖고 있는 정도, 모둠 활동을 수행할 때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를 나타내주는 성격 검사, 학습 외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가정환경을 진단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정환경 진단은 제주 설화나 제주 방언을 접할 기회가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제공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교육받는 아동의 문화교육적 환경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제주 설화나 제주 문화를 배우는 동기도 파악할 수 있다. 진단평가는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일부 물음은 설문과 같은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

본 수업을 위한 진단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시할 수 있다.

<표 IV-15> 진단 평가 내용 예시

영역	내용
인지적 영역	제주 설화 가운데 아는 이야기가 있는가?
인지적 영역	제주 방언 중에 아는 것이 있는가?
인지적 영역	제주 속담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가?
인지적 영역	제주의 고유문화 중 아는 것이 있는가?
인지적 영역	내가 아는 문화는 무엇이 있을까?
정의적 영역	가족 중 제주 방언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정의적 영역	문화를 왜 배워야 할까?
정의적 영역	나의 성격은 얼마나 적극적인가?
정의적 영역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3) 교수학습과정안

교수학습과정안은 총 3차시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각 50분이며 중도입국 청소년 중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학생은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어 발달 단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좋지만 문화 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이상 한국어가 가능한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수학습과정안을 제작해보고자 한다.

- 차시별 학습목표와 내용 및 수업 과정안
- 수업 차시: 1, 2, 3차시 각 50분
- 학습 대상: 중도입국 중학교 2학년 청소년
- 수업 형태: 강의 및 그룹 활동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기 전 차시별 학습목표를 정해둘 필요가 있다. 학습목표에 따라 수업과 학습활동이 조직되기 때문이다. 학습목표는 앞서 언급한 성취기준을 참고로 제주 설화 교육에 맞게 세분화하였다. 1차시는 제주설화 문전본풀이의 본문 내용을 파악하고 등장인물 성격을 파악하는 수업목표를 정하였다. 2차시는 문전본풀이에서 문화적 특성을 찾고 이를 이해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재구성된 본풀이에 나타난 방언의 정서, 의미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목표로 했다. 3차시는 1, 2차시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 설화의 문화요소를 찾아 비교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도록 목표를 정해왔다. 그리고 최종목표인 문화공존 방안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도록 했다.

<표 IV-16> 설화 활용 문화교육 차시별 학습목표

차시	문화교육 모형	학습목표
1차시	텍스트 읽기	1. 제주 설화 문전본풀이의 내용을 읽고 분석하여 말로 설명할 수 있다.
	텍스트 내용 이해	2. 제주 설화 문전본풀이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하여 설명할 수 있다.
2차시	텍스트 속 문화 이해	1. 제주 설화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문화적 특성을 찾아 말할 수 있다. 2. 제주 설화 문전본풀이 나타난 방언을 이해하고 제주 방언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문화 비교 고찰	1. 다른 지역 및 다른 나라의 설화를 찾아보고 여러 설화들의 문화요소를 찾아 비교해 볼 수 있다.
3차시	확장 및 내면화	2. 다른 나라와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말할 수 있다.

앞선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을 설계하였다. 1차시 수업은 <문전본풀이>의 내용 파악을 위한 수업으로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는 수업으로 구성하였다. 1차시 수업은 주로 강의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문전본풀이 텍스트 속 지식을 교육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어 이해가 수월하지 않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는 이 설화를 비언어적 표현이 섞인 구연 방식으로 전달해야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방언은 자세한 설명보다 간단한 뜻풀이 정도가 적절하다. 방언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

고 방언 학습에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 동기 유발 자료로는 문전본풀이를 판소리로 구연한 영상을 사용한다. 이는 설화가 텍스트 형태로 전해지기도하지만 판소리와 같은 형태로도 변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접하는 형태는 편집된 영상이다. 문화가 변화하듯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도 변하고 다양화될 수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다.

학습활동은 등장인물에 관한 것과 이야기 이해에 관한 것으로 나뉜다. 문전본풀이 내 등장인물들은 모두 평면적 인물로서 인물 특성이 선명하고 전형적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학생이 상상해서 인물 외향을 그려보거나 성격을 글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야기 이해는 화소 순서를 찾아 정렬해 보는 활동이나 빈 화소 찾아 적어보기 활동이 좋을 것이다.

형성평가는 학습 이해 정도를 묻는 활동으로 등장인물 성격에 맞는 행동을 고르는 문제나, 어떤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이 인물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적어 발표하는 활동을 고안해 보았다. 또한 화소를 섞어 알맞게 배치하는 문제, 순서를 맞추는 문제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형성평가는 문제 풀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틀린 학생들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표 IV-17> 1차시 수업 과정안 예시

단원	제주 설화를 통해 배우는 제주 문화		수업 차시	1/3	
대상	중도입국 청소년 2학년 30명		장소	2학년 교실	
학습 형태	강의식				
학습목표	1. 제주 설화 문전본풀이의 내용을 읽고 분석하여 말로 설명할 수 있다. 2. 제주 설화 문전본풀이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시간
	교수자	학습자			
도입	1. 학습 동기 유발 - 동기 유발 자료를 보여 준다	1. 학습 동기 유발 - 동기 유발 자료를 함께 본다.		영상자료: 판소리 <문전본풀이> 티저 영상 https://youtu.be/dBMD0Lwfk0M PPT	5
	2.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함께 읽도록 한다.	2.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를 읽는다			
전개	텍스트 1. 내용 이해 - 문전본풀이 내용을 함께 읽고 풀이한다.	1. 내용 이해 - 문전본풀이 내용을 듣고 이해한다.		PPT, 유인물	40

	읽기	- 등장인물별 특성을 간략히 설명한다.	- 등장인물별 특성을 듣고 이해한다.	내용 풀이에서 문화요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방언은 간략하게 풀이한다.	
	텍스트 이해	2. 학습 활동 - 문전본풀이를 이야기 화소별로 정리해 보도록 한다. - 등장인물을 상상해서 그려보고 성격을 적어보도록 한다.	2. 학습 활동 - 문전본풀이를 화소별로 정리해 본다. - 등장인물을 상상해서 그려보고 성격을 적어본다.		
마무리		1. 형성평가 - 형성평가 문제를 제시 한다. (이야기 화소 순서를 맞추는 문제, 등장인물의 성격과 잘 맞는 행동을 찾는 문제 등) - 문제 풀이 후 피드백을 제공한다. 2. 차시 예고 - 차시 수업을 예고한다. 3. 과제 제시 - 문전본풀이를 다시 읽고 문화요소를 찾도록 한다.	1. 형성평가 - 교사가 제시한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본다. - 교사의 피드백을 듣는다. 2. 차시 예고 - 교사의 설명을 듣는다. 3. 과제 제시 - 과제를 적는다.	PPT	5

1차시 수업은 문화교육 모형 가운데 텍스트 읽기 단계와 텍스트 이해 단계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전개 부분의 발문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표 IV-18> 1차시 본문 발문 예시

<p>텍스트 읽기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오늘 우리가 배울 제주 설화는 <문전본풀이>예요. 문전본풀이는 제주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에요. 우리가 제주 신화 중에서 문전본풀이를 배우는 이유는 문전본풀이에 제주 문화가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문전본풀이를 읽고 궁금한 점이나 이런 점이 특이하다 하는 것들은 밑줄을 긋고 메모해 보세요. ◆ 학생들: 네 ◆ 교사: (문전본풀이를 같이 읽고 제주방언은 간단히 해석해 준다) ◆ 교사: 여기까지가 문전본풀이 내용이에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었나요?

- ◆ 학생1: 문전본풀이는 무슨 뜻인가요?
- ◆ 교사: 본풀이는 본을 푼다는 뜻으로 본은 뿌리라는 뜻이에요. 문전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뿌리를 풀어서 해설해 주기 때문에 본풀이라고 해요. 제주도에 이런 본풀이가 많이 있어요.
- ◆ 학생2: 남선비는 왜 쌀장사를 하려고 했나요?
- ◆ 교사: 제주도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섬이라 현무암이 많아요. 그래서 땅에 물이 스며들지 않고 모두 바다로 흘러가버려요. 쌀농사를 하려면 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논농사가 안 돼요. 그러다보니 쌀이 귀해서 쌀을 사다가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어요.
- ◆ 학생3: 남선비는 부인이 있는데 어떻게 또 노일제대귀일의 딸이랑 결혼을 했나요?
- ◆ 교사: 옛날에 제주 남자들은 배를 타고 바닷가로 나가 일을 했어요. 그러다보니 태풍을 만나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제주에 특산물이 많아서 왕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많이 요구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남자들이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했어요. 남자들이 살기에는 좋지 못한 곳이라 남자들이 자꾸 제주를 떠나버려서 여자가 많은 섬이 되었어요. 옛날 제주에서는 둘째 부인을 갖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 ◆ 학생4: 여산부인은 여자인데도 너무 용감한 것 같아요.
- ◆ 교사: 제주 여성들은 예로부터 자연 환경과 싸우며 자란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제주 여성들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이에요. 제주 설화에는 여산부인보다 강하고 용감한 여성들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보면 만날 수 있어요.

텍스트 이해 단계

- ◆ 교사: 자 그럼 다 같이 학습 활동을 해볼까요? 먼저 문전본풀이 내용을 요약해 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각자 교재에 문전본풀이 내용을 한 줄씩 요약해 보아요. 선생님이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해볼게요. 첫 문장은 “남선비와 여산부인이 일곱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예요. 두 번째 문장은 “집안이 가난해 어느 날 남선비가 곡식을 팔아 돈을 벌겠다고 집을 떠났다”예요.
- ◆ 교사: 모두 각자 요약을 해 봤나요? 그럼 모둠 친구들과 함께 요약한 내용을 돌아가며 이야기해 보아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 ◆ 학생들: (모둠별로 학습 활동 결과를 공유한다)
- ◆ 교사: 이제 각 모둠별로 가장 잘 요약했다고 생각하는 학생 한 명이 발표를 해볼게요.
- ◆ 모둠 대표: (돌아가며 발표한다)
- ◆ 교사: 모두 잘 했어요. 선생님이 요약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줄거리 요약본을 제시한다)
- ◆ 교사: 자 이제 줄거리는 완전히 파악했죠? 다음은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인물들의 성격을 정리해 볼 거예요. 문전본풀이에는 누가 누가 등장하죠?
- ◆ 학생1: 남선비요.

- ◆ 학생2: 여산부인이요.
- ◆ 학생3: 녹디생인이요.
- ◆ 교사: 또 등장인물이 없나요? 조연도 괜찮습니다.
- ◆ 학생4: 노일제대귀일의 딸이요.
- ◆ 학생5: 노루도 나와요.
- ◆ 학생6: 다른 형제들이요.
- ◆ 교사: 네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모둠별로 한 명씩 나눠서 상상해서 인물을 그려볼게요. 한 사람이 녹디생인을 그리면 다른 사람은 여산부인을 그려보세요. 형제들도 그려보세요. 그리고 모둠장이 한 인물씩 성격이 어떤지를 모둠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적어보세요.
- ◆ 교사: 다 그리고 적어봤나요? 그럼 1모듬은 남선비, 2모듬은 여산부인, 3모듬은 노일제대귀일의 딸, 4모듬은 녹디생인, 5모듬은 다른 형제들, 6모듬은 노루의 성격을 정리해서 발표해 볼게요.
- ◆ 학생들: (각자 정리한 내용을 발표한다)
- ◆ 교사: 모두 잘 정리했어요.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을 보여줄게요.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한 번 적어보세요.(등장인물 성격을 정리한 내용을 보여준다)

2차시 수업은 모듬별 토론과 토의 방식을 주로 활용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시 하였던 과제를 이번 시간에 확인하면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활동을 주로 한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지난시간에 간략하게 넘어갔던 방언과 새로운 방언을 제시 하여 의미를 추론하고 실제 활용해 보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문전본풀이에 등장하는 문화요소를 학생끼리 협력하여 찾아보고 발표하는 활동을 계획해 보았는데 이때 아이디어 생산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아이디어 발산 방법인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는데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포스트잇을 3~5장씩 나눠 갖는다. 이 포스트잇에 각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문화요소를 시간을 주어 적어보도록 한다. 이후 포스트잇을 하나로 모아보면서 자신이 생각한 요소들을 돌아가며 발표 한다. 이후 아이디어 수렴 과정이 필요한데 유사한 의견끼리 모아 분류하여 항목 별로 정리해 본다. 종합된 의견을 대표 학생이 앞에서 발표한다. 두 번째 학습활동도 이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일상에서 겪는 여러 상황을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방언을 활용하여 문장으로 표현하여 모듬원들과 공유해 보고 재미있는 문장을 발표하도록 한다.

두 번째 수업 마무리에는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 설화를 조사하여 가져오는 과제를 제시한다. 이 과제는 부모,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모국에서 함께 온 어

머니나 아버지와 함께 하도록 안내한다. 학생들은 과제 수행을 통하여 모국의 설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문화적 다양성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

<표 IV-19> 2차시 수업 과정안 예시

단원	제주 설화를 통해 배우는 제주 문화		수업 차시	2/3	
대상	중도입국 청소년 2학년 30명		장소	2학년 교실	
학습 형태	모둠별 토론, 토의				
학습목표	1. 제주 설화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문화적 특성을 찾아 말할 수 있다. 2. 제주 설화 문전본풀이 나타난 방언을 이해하고 제주 방언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시간
	교수자		학습자		
도입	1. 학습 동기 유발 - 제주 방언을 제시해 학생들에게 뜻을 물어본다. 어휘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2. 전시 학습 확인 -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환기한다. 3.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함께 읽도록 한다.		1. 학습 동기 유발 - 아는 단어가 있으면 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사의 설명을 듣는다. 2. 전시 학습 확인 - 교사의 물음에 답하고 설명을 듣는다. 3.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를 읽는다	PPT	5
전개	텍스트 속 문화 이해	1. 학습 활동 1 - 전 시간에 제시한 과제를 확인하며,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문화적 특성을 찾아보도록 한다. - 문화요소가 나타난 이유를 발표하도록 한다.	1. 학습 활동 1 - 교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찾은 문화요소를 모둠원들과 공유해 본다. - 모둠원들과 문화요소의 발생 요인을 토의한다.	브레인스토밍 기법 활용 모둠별 포스트잇 제공 유인물	40
		2. 학습 활동 2 -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제주 방언을 활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2. 학습 활동 2 - 모둠원들과 제주 방언을 활용하여 재밌는 문장을 만들어 본다.		
마무리	1. 형성평가 - 형성평가 문제를 제		1. 형성평가 - 교사가 제시한 형성평	PPT	5

	<p>시 한다. (제주 방언을 잘못 쓴 예를 찾는 문제, 문화요소의 적절한 추론 과정을 보여주는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풀이 후 피드백을 제공한다. <p>2. 차시 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시 수업을 예고한다. <p>3. 과제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지역(나라) 설화를 조사하여 오도록 한다. 	<p>가 문제를 풀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피드백을 듣는다. <p>2. 차시 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설명을 듣는다. <p>3. 과제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를 적는다. 		
--	--	--	--	--

2차시 수업은 텍스트 속 문화 이해 단계로 문화 이해에 초점을 맞춰 수업을 구성해 보았다. 1차시와 마찬가지로 2차시 수업 지도안의 전개 부분도 발문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표 IV-20> 2차시 본문 발문 예시

<p>텍스트 속 문화 이해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전 시간에 우리는 어떤 활동을 했죠? ◆ 학생1: 문전본풀이를 배웠어요. ◆ 교사: 네, 문전본풀이 내용을 함께 읽고 요약해 봤죠? 또 뭘 했죠? ◆ 학생2: 등장인물을 그려 봤어요. ◆ 교사: 네, 등장인물을 그려보고 성격을 적어봤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문전본풀이라는 제주 신화를 배워봤어요. 오늘은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특이한 점과 재밌는 문화를 찾아볼 거예요. ◆ 교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듣고 답을 해 줬던 거 기억나나요? ◆ 학생들: 아니요. ◆ 교사: 선생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제주는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섬이라 현무암으로 돼 있어서 논농사가 쉽지 않다는 것, 또 하나는 제주의 여성은 독립적이고 강인하다는 것이예요. ◆ 학생들: 맞아요. ◆ 교사: 오늘은 지난 시간 읽었던 문전본풀이에서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먼저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학생1: 음식이요! ◆ 학생2: 옷이요!

- ◆ 교사: 네 음식과 옷도 문화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쓰는 말도 문화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문화예요. 가톨릭, 이슬람, 불교 같은 종교도 문화예요. 어떤 나라는 옛날에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이것도 문화예요. 또 어떤 나라는 여자들이 힘이 없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여자가 왕이 되기도 해요. 이런 것도 모두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 ◆ 교사: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각자 모둠원들과 문전본풀이에 나온 문화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포스트잇을 나눠줄 테니까 각자가 5장씩 갖고 한 장에 하나씩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 10분간 적어보고, 10분 뒤에는 모둠원들에게 한 장씩 설명하면서 가운데 붙여보세요. 그리고 다음 학생이 비슷한 건 같이 붙이고 다른 건 따로 붙이면서 설명하세요. 그렇게 다 발표하도록 할게요.
- ◆ 학생들: (모둠별로 활동한다)
- ◆ 교사: 모둠별로 발표가 끝났으면 1모둠부터 찾아낸 문화 중에 하나만 발표를 해보세요.
- ◆ 1모둠 학생: 저희는 정낭을 찾았어요. 다른 곳에는 대문이 있는데 제주도에는 정낭이 있는 것 같았어요.
- ◆ 교사: 네 잘 찾았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돌에 나무를 걸쳐서 주인이 집에 있고 없고를 나타내 주었어요. 정낭에는 신이 있다고 믿어서 주인 없는 집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낭은 제주도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제주에서 볼 수 있는 문화예요. 다음 2모둠 발표해 보세요.
- ◆ 2모둠 학생: 점을 보는 문화가 있어요.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아팠을 때 의사한테 안 가고 점쟁이를 찾아갔잖아요.
- ◆ 교사: 네 맞아요. 예전에는 병에 걸렸을 때 병균 때문에 사람이 아팠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나쁜 귀신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사람이 아팠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문전본풀이에서는 신병이라고도 나와 있죠?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했답니다. 잘 찾았습니다. 다음 3모둠 발표해 볼까요?
- ◆ 3모둠 학생: 쌀장사를 하는 걸로 봐서는 논농사를 안 했을 거 같아요. 그럼 밭에서 식물을 길렀을 거 같아요.
- ◆ 교사: 맞습니다. 제주도는 논농사가 어려워 밭농사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농경문화라는 점을 찾았네요. 다음 4모둠 발표해 볼까요?
- ◆ 4모둠 학생: 남편 한 명에 아내가 여럿이 있는 거 같았어요.
- ◆ 교사: 네 맞습니다. 제주에서는 남자가 모자라 남편 한 명이 아내를 여럿 두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다음 5모둠 발표해 볼까요?
- ◆ 5모둠 학생: 아이를 많이 낳는 거 같아요.
- ◆ 교사: 그것도 맞아요. 한국은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가족들이 함께 기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많아야 좋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낳아도 함께 봐 줄 사람이 많지 않고 몸을 쓰는 노동의 가치가 예전보다 적어져서 아이를 많이 낳지 않게 됐어요. 잘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6모둠 발표해 볼까요?

- ◆ 6모둠 학생: 집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 ◆ 교사: 맞아요. 제주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집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제주도에는 특별히 ‘문전신’, ‘조왕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 신의 기원을 설명한 이야기가 바로 문전본풀이죠.
- ◆ 교사: 모두 잘 찾았어요. 선생님이 찾은 문화를 한 번 같이 볼까요?(문화 요소를 정리한 내용을 보여준다)
- ◆ 교사: 자 다음은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제주 방언을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이 뜻풀이를 해 줄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단어와 표현을 활용해서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봐요.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모둠별로 포스트잇을 나눠줄 테니 각자 3장씩 포스트잇에 문장을 써서 모둠원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 ◆ 교사: (제주 방언과 뜻풀이를 보여주고 설명한다)
- ◆ 학생들: (포스트잇에 방언을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본다)
- ◆ 교사: 모듬장은 재밌게 잘 만들어진 문장 하나를 선택해서 발표해 볼까요?
- ◆ 학생들: (예문을 발표한다)

3차시 수업 도입부 자료는 베트남 전래동화를 샌드 아트로 표현한 영상으로 학생들에게 세계 다양한 설화 흥미 유발 자료로서 보여준다. 이번 차시에는 학생이 직접 찾아 온 다른 지역 설화를 모듬별로 공유해 보고 그 안에서 문화적 요소를 찾는 연습을 하게 된다. 각 설화에서 가치 문화, 생활 문화를 찾아 이야기를 나눠보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은 문화 다양성과 상대성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각자가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아이디어를 나누도록 한다. 다만, 단순히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당위적 결론이 나지 않도록 한다. 오히려 문화 공존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상호 문화 존중 캠페인 등을 기획하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생산하도록 하면 알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경, 역사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 차이는 다양한 예를 들 수 있다. 이를 가치문화, 일상문화, 언어문화로 나누어 미리 준비하여 설명하고 학생이 스스로 다른 예를 찾아보도록 유도해 볼 수도 있다.

설화 가운데 민담을 중심으로 본 차시 활동을 준비해 보아도 좋다. 민담은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구조로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콩쥐팥쥐’ 민담은 서양에서는 신데렐라 이야기로 전승되어 온다. 콩쥐팥쥐 이야기 구조가 제주에서는 ‘차사본풀이’ 과양생이의 사연으로도 일부 변용되어 전해 내려온다. 만일 학생이 이야기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고학년이라면 같은 이야기가 문화권에 따

라서 어떻게 다르게 전승되는가를 주제로 수업을 설계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표 IV-21> 3차시 수업 과정안 예시

단원	제주 설화를 통해 배우는 제주 문화		수업 차시	3/3	
대상	중도입국 청소년 2학년 30명		장소	2학년 교실	
학습 형태	모둠별 토론, 토의 / 강의식				
학습목표	1. 다른 지역 및 다른 나라의 설화를 찾아보고 여러 설화들의 문화요소를 찾아 비교해 볼 수 있다. 2. 다른 나라와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말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시간
	교수자		학습자		
도입	1. 학습 동기 유발 - 동기 유발 자료를 보여 준다. 2. 전시 학습 확인 -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환기한다. 3.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함께 읽도록 한다.		1. 학습 동기 유발 - 동기 유발 자료를 함께 본다. 2. 전시 학습 확인 - 교사의 물음에 답하고 설명을 듣는다. 3.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를 읽는다.	영상자료: 세계전래동화 베트남 락 롱 꾸언과 어우꺼 https://youtu.be/Vc1o2hBAJIA PPT	10
	전개	문화 비교 고찰	1. 학습 활동 - 전 시간에 제시한 과제를 확인하며, 모둠원들이 공유하도록 한다. - 모둠원들끼리 나눈 이야기의 문화요소를 찾아 비교하도록 한다. 2. 내용 이해 - 다른 환경,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의 예를 제시한다. 3. 학습 활동 2 - 모둠별로 문화 공존 방안 아이디어를 모으도록 한다.	1. 학습 활동 1 - 교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찾은 다른 지역(나라) 설화를 모둠원들과 공유한다. - 모둠원들과 각 설화 속 이야기의 문화요소를 찾아 비교한다. 2. 내용 이해 - 교사의 설명을 듣는다. 3. 학습 활동 2 - 교사의 지시에 따라 모둠별로 문화 공존 방안을 정리해 발표	브레인스토밍 기법 활용 모둠별 포스트잇 제공 PPT
확장 및 내면화					

		한다.		
마무리	1. 형성평가 - 형성평가 문제를 제시 한다. (문화 공존 태도로 올바른 것 찾는 문제, 인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	1. 형성평가 - 교사가 제시한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본다.	PPT	5
	- 문제 풀이 후 피드백을 제공한다. 2. 과제 제시 - 문화 공존 태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	- 교사의 피드백을 듣는다. 2. 과제 제시 - 과제를 적는다.		

3차시 수업은 문화 비교 고찰 단계와 확장 및 내면화 단계다. 1, 2차시와 마찬가지로 3차시 수업 지도안의 전개 부분도 발문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표 IV-22> 3차시 본문 발문 예시

<p>문화 비교 고찰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이번 시간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설화를 서로 비교해 보고 문화를 찾아보는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로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 설화를 하나씩 찾아오도록 했죠? ◆ 학생들: 네. ◆ 교사: 모둠별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야기를 듣는 다른 모둠원들은 이야기 내용을 잘 적으면서 들어보세요. ◆ 학생들: (모둠별로 조사한 설화를 공유한다) ◆ 교사: 다들 이야기를 나눠봤나요? ◆ 학생들: 네. ◆ 교사: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찾은 이야기에서 문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볼까요? 이야기마다 찾은 문화 요소를 각자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포스트잇을 나눠줄테니 한 학생당 한 이야기에 문화 요소 한 가지씩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 교사: 한 설화 속에서 문화 요소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다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모든 문화가 아니라 문화 속에 있는 다양성이니까요. ◆ 학생: (모둠별로 조사한 이야기 속에 문화 요소를 찾는다) ◆ 교사: 다 적었으면 모둠원들끼리 발표해 볼까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에서 어떤 문화 요소가 발견되었는지 한 사람이 정리해서 발표해 볼게요.

- ◆ 학생: (모둠별로 적은 내용을 공유한다)
- ◆ 교사: 모둠원들끼리 이야기를 해 봤으면 이제 모둠별로 대표가 나와서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 ◆ 학생 대표: (각자 공유된 내용을 발표한다)
- ◆ 교사: 모두 발표 잘 했습니다. 다른 환경과 역사로 인해서 문화가 달라지는 사례가 많은데요, 선생님이 찾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사례 공유)

확장 및 내면화 단계

- ◆ 교사: 다음 학습 활동으로 모둠별로 다른 문화가 서로 잘 어울려 사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서로 잘 살려면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적어보아도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문화 수업도 우리 모두가 다른 문화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 포스트잇을 나눠줄 테니 한 사람이 다섯 가지씩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
- ◆ 교사: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다른 문화 친구들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거나 다른 문화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등의 너무나 당연한 아이디어는 적지 마세요.
- ◆ 교사: 아이디어를 다 냈으면 비슷한 아이디어를 하나로 모으고 너무 현실성 없거나 당연한 아이디어는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디어를 평가해 볼 거예요. 모둠원들과 아이디어를 평가할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창의성, 아이디어 실현 비용, 사회적 거부감 등 여러 기준을 여러분들끼리 정해보시고 그에 따라서 점수를 줄 거예요. 아이디어가 다섯 가지면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각 아이디어에 점수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디어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는 그 아이디어를 개선할 거예요.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개선해서 최종 아이디어를 만들면 그것을 발표할 거예요.
- ◆ 학생: (모둠별로 아이디어를 모아 공유한다)
- ◆ 교사: 모둠원들끼리 이야기 다 해 봤나요? 각 모둠별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발표해 볼까요?
- ◆ 학생: (아이디어를 발표한다)
- ◆ 교사: 모두 발표 잘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게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차시와 관계없이 <문전본풀이> 본문 내용에 대한 발문을 문화 교육 요소에 초점을 맞춰 <부록>에 수록하였다.

(4) 설화 캠프 프로그램 안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제주 설화 교육이 유쾌한 경험이 되도록 하려면 ‘교육’ 형태도 고심해야 한다. 국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설화 교육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와 교육적 효과가 있겠지만 제주 설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기획해 볼 수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해마다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어 교실, 학력 향상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학생들과 함께 제주 문화교육의 연장으로서 ‘제주 설화 캠프’를 제안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설화 캠프는 2박 3일 과정이다. 참가자 규모는 40명 내외로 모둠별 활동을 구안하였다. 각 팀은 5인에서 6인 규모로 그 이상이나 이하는 권하지 않는다. 학년이 낮을 경우 4인이나 3인이 한 팀이 될 경우 프로그램에서 운영되는 영상 촬영 등의 활동 진행에 인원이 모자라며 7인이 될 때는 각자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어 프로그램 참여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1일차 활동은 제주 설화를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살펴보고 문화 학습 기반을 쌓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첫날에는 학생들과 지도 교사 간 관계를 설정하고 모둠 활동을 위한 모둠원 간 협력 활동을 주로 한다. 캠프 장소에 따라 학생들 집합 장소를 공지하고 먼저 오는 학생 순서대로 이름표와 워크북, 단체복, 기념품 등을 배부한다. 진단평가가 캠프 시작 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진단평가를 기준으로 학생의 흥미와 성격을 파악하여 사전에 팀을 구성할 수 있다. 개회식은 모둠별로 앉아 진행된다. 만일 대학생 멘토가 있다면 멘토를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을 소개한다. 개회식은 이 프로그램을 학생에게 안내하고 주의사항과 금지사항 전달, 안전교육을 한다. 특히 숙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지진, 여름철에는 식중독과 열사병, 겨울철에는 저체온증상 등에 대비한 안전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교육은 사전에 지역 소방청 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거나 영상 시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미성년 학생이기 때문에 개별 행동을 하지 말 것 등 주의사항도 공지해야 한다.

개회식이 끝나면 학생은 모둠별로 팀 만들기 활동을 실시하는데 이때에는 모둠 이름을 정하고 모둠별 슬로건, 캠프 활동 시 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

상징 마크 등을 정하도록 한다. 대학생 멘토가 있다면 학생들이 정하는 여러 팀의 상징물을 적절히 통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모듈 내에서 역할을 설정하게 되는데 5명이 한 팀인 경우 팀장, 발표담당, 재료담당, 기록담당, 디자이너로 구성할 수 있고 6명이 한 팀이라면 일정관리자를 한 명 더 배정할 수 있다. 팀 만들기 활동을 2시간으로 배치한 것은 전체 캠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로의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학생 멘토가 적절히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진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면 더욱 좋다. 팀 만들기 결과물은 디자이너가 전지에 적어 발표담당이 발표한다.

1일차 오후부터 문화교육 모형 1단계인 텍스트 읽기 단계와 2단계 텍스트 내용 이해 단계가 진행된다. 설화를 읽고 이해하는 활동을 하고, 설화 속 문화 요소를 이해하며 등장인물을 이해하는 활동이 주로 이루어진다. 모듈별 경쟁 게임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교육 모형 3단계인 텍스트 속 문화 이해 단계로 설화 패러디 대본을 쓰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설화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패러디 대본을 써 보도록 한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 수정하거나 부분을 나눠 각자가 쓴 대본을 기록담당이 합쳐볼 수도 있다. 영상 촬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상하여 재료담당이 담당 교사에게 알려준다.

<표 IV-23> 제주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 캠프(안)

일자	시간	내용	문화교육 모형
1일차	09:00~09:30	0.5h 등록	
	09:30~10:00	0.5h 1. 개회식	
		2. 팀 만들기	
	10:00~12:00	2h - 팀 명 정하기 - 모듈원 파악(경험 공유)	
	12:00~13:00	1h 점심 식사	
	13:00~14:00	1h 3. 설화 읽기 활동 - 문전본풀이	텍스트 읽기 단계
		4. 설화 내용 이해 활동	
	14:00~15:00	1h - 구조도 그려보기 - 등장인물 표 그려보기	텍스트 내용 이해 단계
	15:00~16:00	1h 5. 게임	

일자	시간	내용	문화교육 모형
		- 제주 설화 골든벨 - 제주 설화 스피드 게임	
	16:00~18:00	2h 6. 설화 패러디 - 패러디 대본 쓰기 - 대본을 기반으로 영상 준비	텍스트 속 문화 이해 단계
	18:00~19:00	1h 저녁 식사	
	19:00~21:00	2h 7. 설화 영상 준비	
	21:00~22:00	1h 취침 준비	
	08:00~09:00	1h 기상 및 아침식사	
	09:00~10:00	1h 이동	
	10:00~12:00	2h 8. 제주 지역 탐방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12:00~13:00	1h 점심 식사	
	13:00~14:00	1h 제주민속촌으로 이동	
2일차	14:00~15:00	1h 제주 지역 탐방 - 제주민속촌	문화 비교 고찰 단계
	15:00~16:00	1h 이동	
	16:00~18:00	2h 9. 영상 촬영	
	18:00~19:00	1h 저녁 식사	
	19:00~21:00	2h 영상 촬영 및 편집	
	21:00~22:00	1h 취침 준비	
	08:00~09:00	1h 기상 및 아침식사	
	09:00~11:00	2h 10. 영상 상영 및 평가	확장 및 내면화 단계
3일차	11:00~12:00	1h 11. 학습 정리 및 편지 쓰기	단계
	12:00~13:00	1h 점심 식사	
	13:00~14:00	1h 수료식 및 시상식	
	14:00~	해산	

둘째 날에는 문화교육 모형 4단계인 문화 비교 고찰 단계가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제주 지역 탐방활동이 주 활동으로 제주 설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촌이 활동 장소가 된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도민에게는 익숙한 장소로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소풍과 체험활동으로 자주 가는 곳이지만 중도입국 청소년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시관에는 제주 일상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이 있어 문화를 배우고 인지적 지식을 쌓기에 적절하다. 제주민속촌은 제주의 주거문화를 접할 수 있고 제주 설화의 배경이 되는 마을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장소이다. 현장체험은 학생들이 제주 설화를 듣고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고 구연으로 전달되는 이야기

를 머릿속으로 그려내기 쉽게 해 준다. 그리고 탐방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식이나 가장 인상적인 문화요소를 서로 나누는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탐방활동에 흥미를 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모듈별 수행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정낭 사진 2개 이상 사진 찍어 오기’, ‘부엌을 제주 방언으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에 대해 사진으로 찍어 오기’, ‘직원에게 제주 속담 1개씩 듣고 적어 오기’ 등 재미있는 미션들을 부여할 수 있다.

셋째 날에는 문화교육 모형 5단계인 확장 및 내면화 단계가 이루어진다. 그간의 설화 체험 캠프를 참가한 자신의 태도를 평가하고 배운 내용을 내면화한다. 자기성찰과 학습 정리, 수료식이 주요 활동이다. 전날 촬영과 편집을 마친 영상을 모두의 앞에서 공개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받는다. 이때 전문가를 초청해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성찰인데 자신이 이 캠프를 통해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달라지게 됐는가를 스스로 자가진단하고 평가하는 시간이다.

위 캠프 활동 안의 주요 활동은 문화교육 모형을 기반으로 하며 ‘설화의 이해와 재구성’, ‘문화 비교 체험 활동’, ‘내면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적 차원에서 제주 설화를 배우는 활동이 이해 활동이다. 캠프에서는 설화를 읽고 학생들이 내용 구조도, 등장인물 표 그리기 활동으로 인지적 활동을 계획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간에 간단한 게임을 통해 제주 설화 속에서 배운 어휘를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 새로운 어휘나 속담을 배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제시한 게임 두 가지 형태인 ‘제주 설화 골든벨’과 ‘제주 설화 스피드 게임’이 있다. 제주 설화 골든벨은 ‘KBS 도전 골든벨’을 활용한 게임으로 팀 단위로 수행한다. 제주 방언을 말해주고 그 뜻을 맞추는 형태나 제주 속담을 말해주고 뜻을 추정해 맞추는 게임을 설계해 볼 수 있다. 설화 스피드 게임은 이해 활동에서 이루어진 지식을 테스트 하는 것으로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어휘를 스케치북에 적어 모듈원들이 안 보이게 들고, 한 모듈원이 나와 그 어휘를 몸으로 설명하면 모듈원들이 맞추는 형태다.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이 맞추는 팀이 점수를 얻게 된다.

설화의 재구성은 설화 패러디와 연극, 영상 촬영 활동이다. 학생이 제주 설화를 패러디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해보고 이를 연극화한다. 이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을 하고 편집해 마지막 날 상영한다. 연극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운 설화 속 문화요소를 재연해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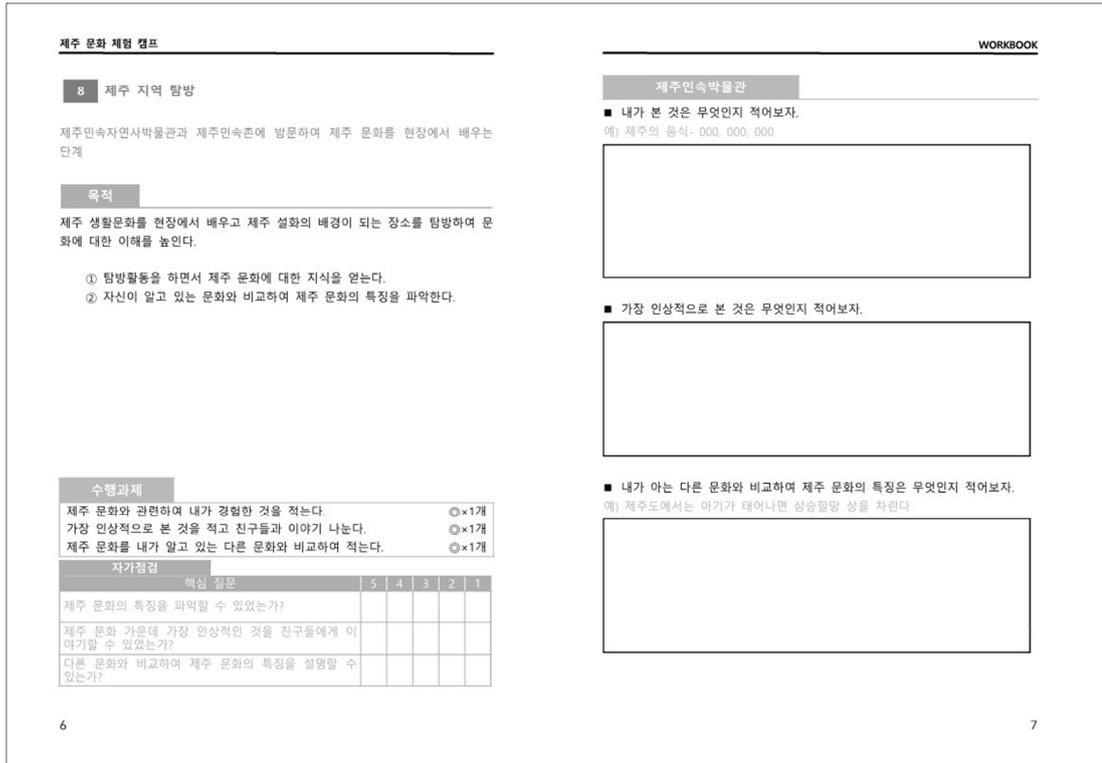
수 있다.

문화 비교 체험 활동은 제주 설화 속 문화요소를 제주 지역 내 박물관과 민속촌을 통해 배우는 시간이다. 설화 캠프가 할 수 있는 여러 활동 가운데 학교에서 정규 교육 시간에 할 수 없는 활동이 바로 체험 활동이다.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제주 설화의 배경과 특징을 알게 지금의 문화와 청소년의 모 문화와 비교하며 더욱 쉽게 제주 문화를 배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면화 활동이 있다. 학습 정리와 편지 쓰기 활동, 영상 평가 활동 등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그간 배웠던 내용을 글로 적어봄으로써 활동을 정리한다. 또한 다른 팀에서 만든 영상을 평가해 봄으로써 동료의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이 평가 기준에는 문화요소를 얼마나 반영했는가를 제시함으로써 학생이 다른 팀이 만든 영상에서 문화요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워크북은 활동별로 목적, 수행과제, 자가 점검, 실제 활동으로 구성된다. 목적은 세부 활동의 단기 목적이며 수행과제는 활동 중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말한다. 자가 점검은 목적을 잘 이루었는가를 스스로 살펴보는 자가 평가이며, 실제 활동은 활동의 내용, 추가 정보, 기록지 등이다.

설화 캠프 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캠프 운영 장소와 시기가 무척 중요하고, 외부 활동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캠프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대학생 멘토가 필요하다. 멘토들은 운영 교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여러 기관과 협조가 중요한데, 중도입국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 안전 관리를 위한 관련 기관,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 박물관, 민속촌 등과 사전에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물관에서는 문화 해설이 가능한 해설사가 동행하여 설명을 더한다면 좋다.



[그림 IV-2] 워크북 구성 예시

(5) 평가

교육 결과는 평가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평가는 결과 평가와 과정 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문화교육의 평가는 두 방식 평가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계획을 세우고 평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성취기준은 평가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

<표 IV-24> 제주 설화 교육을 통한 문화교육의 평가 준거

평가 척도	평가 준거
1단계	상 제주 설화에 나타난 인물과 이야기 흐름을 통해 문화요소를 잘 인식하며 이를 잘 설명한다.
	중 제주 설화에 나타난 인물과 이야기 흐름을 통해 문화요소를 조금 인식하며 대략적으로 설명한다.
	하 제주 설화에 나타난 인물과 이야기 흐름을 통해 문화요소를 인식하지 못하며 설명하지 못한다.
2단계	상 제주 설화에 나타난 문화요소를 잘 파악하여 실제 삶에서의 활용 방안을 말할 수 있다.

평가 척도		평가 준거
	중	제주 설화에 나타난 문화요소를 조금 파악하여 실제 삶에서의 활용 방안을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다.
	하	제주 설화에 나타난 문화요소를 파악하지 못하며 실제 삶에서의 활용 방안을 말하지 못한다.
3단계	상	제주 설화와 다른 지역 설화의 문화요소를 비교해 보고 양 문화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중	제주 설화와 다른 지역 설화의 문화요소를 일부 비교해 보고 양 문화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안을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	제주 설화와 다른 지역 설화의 문화요소를 비교해보지 못하고 양 문화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안을 설명하지 못한다.

제주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 평가는 과정 중심 준거 참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 이해 수준을 어느 정도로 끌어 올리느냐가 이 교육에서는 중요한 요소이지 교육을 받은 학생 가운데 누가 더 잘 이해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문화교육은 경쟁적 요소보다는 협력적 요소가 중요하고 이는 평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다만 캠프 활동에서는 전체 교육 효과와 재미를 위해 모듈별 경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 캠프 프로그램에서 평가는 결과 평가보다 과정 평가를 활용하면 더욱 좋다. 과정 평가는 ‘토큰 경제법’을 도입할 수 있는데 학생이 수행하는 각 과정을 수행 척도에 따라 ‘스탬프’를 주어 평가하면 된다. 스탬프 부여를 위한 스탬프 북을 워크북과 별도로 모듈별로 제공해 활용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주 설화를 활용하여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대개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이민 온 이주 배경 학생이다. 이 학생에게 한국은 제2의 나라이고 한국어는 외국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득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운 다른 학생과 차이 날 수밖에 없다. 이 차이에서 오는 혼란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또래 관계 형성과 문화적응 문제, 정체성 혼란의 문제 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 설화를 활용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이 문화적응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길러 '문화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교육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 방법론으로는 문학을 활용한 방법과 설화를 활용한 방법도 일부 제안되어 왔고, 특히 한국어 교육이 중도입국 청소년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 여성 및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설화를 활용하여 상호문화주의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가운데 제주도는 방언이 생소하며, 주거문화, 생활양식이 독특한데 이를 적절히 교육 내용으로 활용하여 문화 교육을 실시한 예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 설화를 활용하여 제주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면서 상호문화주의를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 유형을 정해 그 요소를 설화 속에서 찾아 학습하는 형태의 교육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화 속에서 현대 제주인들이 갖고 있는 생활양식이 어떻게 기원했는가를 찾아보도록 유도하였다. 제주 설화는 제주 사람이 향유하던 구비문학으로서 그 안에는 제주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고, 문화적 금기나 유래가 설명되기도 하였다. 제주 설화를 문화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적절히 제주 방언을 배치하고 문화 요소를 부각하는 등의 재구성 방안을 시도하였다.

문전본풀이는 제주 설화 가운데 제주 문화의 단면을 보여 주는 특수성을 지니

면서 타 지역 설화와도 구조적 유사성이 있어 활용도가 높은 설화다. 문전본풀이에서는 제주 주거 문화가 어떠한지 나타나있고 집안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또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평등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보여주며 무능력한 가장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려내어 제주도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보여 주는 사례가 된다. 그리고 정낭이 등장하는데 이는 제주에 살던 옛 사람의 상징적 기호이며, 이에 따르는 신앙적 모습 또한 제주 사람만이 갖는 정신적 유대에 기인한다는 점도 독특한 점으로 제안된다. 또한 다양한 제주 속담과 어휘를 설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재구성함으로써 언어문화교육 자료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요소를 중심으로 제주에 적응할 수 있는 문화교육을 실시하면서 한편으로는 문화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설화를 활용한 문화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주 설화 문화교육 목표를 설화를 통한 다문화 수용 능력 향상, 설화 속 언어문화 이해 및 일상의 적용, 상호문화주의적 관점 이해, 설화 속 가치문화, 일상문화 이해와 적용, 다른 나라 설화 속 문화요소 탐색 능력 향상, 다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함양으로 정하였다.

설화 교육모형으로 텍스트 읽기-텍스트 이해하기-텍스트 속 문화요소 이해하기-문화 비교 고찰-확장 및 내면화를 제안했고 이를 기반으로 상호 문화요소 찾아 발표하기 설화 장면 그려보기, 설화 구연해 보기, 설화 등장인물 표 그려보기, 설화 패러디, 설화 속 사건으로 기사문 써보기, 설화 연극, 설화 연극 홍보 광고 만들기, 설화 박물관 꾸미기 활동을 학습활동으로 제시하였다.

문화교육의 실제로 제주 설화 교육 성취기준을 3단계로 나누어 이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진단 평가, 교수학습과정안, 설화 캠프 프로그램 안, 평가 준거 및 평가 방안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 설화를 한국어 문화교육 제재로서 제안해 보았다는 점과 지역 설화가 문화교육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국내 각 지역에서 전승되는 설화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상호문화주의 교육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연구에서 활용되지 못했던 다른 설화를 문화교육 소재로 활용해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에 쓸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는 것이며 또한 실제

교육 사례를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였던 교수학습과정안과 함께 비교과 과정의 캠프 프로그램을 실제 적용하여 학생의 성장 정도를 질적으로 측정해 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토대로 제주 설화의 교육적 가치가 널리 인정되고 또 설화를 통해 상호문화주의를 배운 중도입국 청소년이 올바른 정체성을 갖추고 적응하여 차세대 문화 창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자료

- 교육부(2017), 『한국어 교육과정』, 교육부
- 김중섭, 김정숙, 이정희, 김지혜, 박나리, 박진욱, 이수미, 강현자, 장미정, 홍혜란 (2017), 「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 국립국어원
- 김현숙(2021),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과 과제」, 이민정책연구원
- 오성배, 김경미, 김재우, 서덕희, 오정은(2013), 「IOM이민정책연구원. 중도입국 청소년 지역별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경기도: IOM이민정책연구원.
- 홍기원(2006),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 방안 연구」, 서울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2. 단행본

- 강등학, 강진욱, 김기형, 김현선, 박경신, 신동훈, 유영대, 전경옥, 천혜숙(2002),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 고재환(2017), 『제주어 나들이』, 보고서
- 김순이(2020), 『제주신화』, 여름언덕
- 김준오(2003), 『시론』, 삼지원
- 김혜숙(1999), 『제주도 가족과 켄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 박정복(2021), 『낭송 제주도의 옛이야기』, 북드라망
- 신예경, 문희숙(2018), 『조근조근 제주신화 2』, 지노
- 이두현(1991), 장주근, 이광규, 『한국 민속학 개설』, 일조각
- 이석범(2016), 『제주신화2(제주의 신화, 전설, 민담)』, 살림

- 임재해(1991),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지식산업사
- 장주근(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 최운식, 김기창(1998), 『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 현용준(1996), 『제주도 신화』, 서문당
- _____ (2009),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 James A. Banks(2016), 『다문화교육입문』, 모경환 외 역, 아카데미프레스
- Christine I. Bennett(2009),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김옥순 외 역, 학지사

3. 학술지 및 학위 논문

- 권태효(2011), 「제주도 서귀본향계 본풀이의 자료적 성격과 양상」. 『한국무속학』 0.22. 137-165.
- 김기창(1991), 「국어과 교육에서의 구비문학 제재수용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도원, 김우현, 김도훈, 김인균(2020), 「제주 권당정치 of 지속과 변화-2020년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54』. 79-108.
- 김성혜(2005),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소현(2015),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 김윤경(2010),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교육 방안 연구」, 국내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김재수(1988), 「신화교육(神話教育)의 중요성(重要性) - N·프라이의 문학교육론을 중심으로 -」, 『한국초등국어교육』 6. 101-129.
- 김정숙(2000),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07), 「유래담을 활용한 서사 창작 지도 방법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현(2018), 「제주 여성신화에 나타난 글로컬리티와 세계화 전략- '설문대학

- 망'과 '자청비'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0. 347-372.
- 김태일(2017), 「제주의 주거 문화」, 『제주학총서』 27, 제주연구원, 152-177.
- 문보라(2009),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부자(2004), 「설화를 활용한 통합적 수업 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혜미(2008), 「국사수업에서의 '지역설화' 활용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2000), 「高等學校 說話 教育의 內容 選定·組織·方向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상란(2009), 「구전설화의 막내캐릭터와 그 문화적 의의」. 『한국문학연구』 037, 133-177.
- 박영순(2003),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23. 67-89.
- 박재인(2019), 「문전본풀이의 현대적 활용 양상과 의미」. 『인문사회』 10.6. 221-232.
- 박정미(2012), 「한국어문화교육에서의 다문화적 접근 방안 연구: 문화 간 의사소통 중심 문화교육」,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2012.1. 113-122.
- 박희순(2003), 「교육연극 방법을 통한 제주설화의 교재화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대석(1988), 「<칠성풀이>의 연구-신화적 성격과 서시시적 서술구조-」, 『진단학보』 65. 81-110.
- 서은경(2019), 「한국 현대시 읽기를 통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 정체성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인덕(2014), 「설화를 활용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지혜(2010), 「한국어교육에서의 설화를 활용한 언어·문화 연계 수업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경화(2000), 「설화교육을 통한 창의력 신장 방안」,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수자(2006), 「국어과 설화의 교수 . 학습 방법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11. 73-116.

- 안영은(2022), 「학습자의 인식 확장을 위한 다문화 수업모형」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민정(2018),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문화 소통과 이해-한국·중국·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0.40. 163-199.
- 여지영(2005), 「지역설화의 교육적 활용방안 - 임실군 설화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정미(2006), 「여성의 환상문학 세경본풀이」, 『겨레어문학』 37. 199-229.
- _____ (2012), 「설화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과 문화교육」,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지혜(2013), 「문화 능력의 재개념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내용 연구 - 문화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화학』, 10(1), 75-97.
- 오창명(2017), 「제주의 언어」, 『제주학개론』, 제주연구원 제주학총서 27, 180-200.
- 은지용(2009), 「다문화적 인성 발달 이론에 기반한 다문화 학습 모형 탐색」, 『시민교육연구』 41.1. 107-139.
- 이경호(1997), 「다문화사회의 대두와 시민교육의 과제」, 『시민교육연구』 25.1, 279-303.
- 이은희(2018), 「한국어교육에서 감은장아기를 활용한 문화교육 방안 연구」. 『語文論集』 76. 341-380.
- 이정민(2002), 「설화 교육을 통한 창의력 신장 방안」, 안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9),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에 요구되는 문화능력의 교수-학습 문제를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31. 113-140.
- 이지영(2006),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0.12. 199-233.
- 이혜영(2000), 「프로젝트 활동을 활용한 한국 문화 학습」, 『Foreign languages education』 7.2. 409-434.
- 이혜란(2010), 「다문화사회의 설화교육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경자(2006), 「說話를 통한 創意的 글짓기 能力 研究」,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만식(2004), 「설화를 활용한 글쓰기 지도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상준(2001), 「연구논문 :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미국학』 24. 77-93.
- 정제호(2011),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의 여성 지위에 따른 전개 양상 고찰」. 『비교민속학』 0.45. 321-347.
- 정수빈(2012), 「현기영 소설에 나타난 제주방언 양상」,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애란(2009), 「초등학교 국어과 지역화 교과서 개발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동일(1971), 「英雄의 一生, 그 文學史的 展開」, 『동아문화』 10,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65-214.
- 조리라(2020), 「세경본풀이의 현대적 활용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윤(2003), 「제주의 무속신앙과 신종교」, 『신종교연구』 9. 23-40.
- 조향록(2004),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 (試論)」, 『한국언어문화학』 1.1. 199-219.
- 조화연(2006), 「전래동화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가능성 탐구」, 『論文集』 24. 301-316.
- 주은정(2020),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운식(1986), 「繼母說話에 대하여」, 『한국민속학』 19, 515-524.
- 최명림(2008), 「문(門)을 둘러싼 의례와 신앙」, 『남도민속연구』 16. 255-283.
- 한상미(2008),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적 능력의 평가- 말하기 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화학』 5.1. 83-111.
- 한승준(2008), 「동화주의모델 위기론과 다문화주의 대안론 프랑스의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 1-23.
- 한희정(2001), 「설화의 문학교육적 수용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남춘(2016), 「서귀본향당본풀이의 특징과 의의」, 『古典文學研究』 49. 37-70.
- _____ (2021), 「〈문전본풀이〉에서 집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 『한국무속학』 0.42. 7-38.
- 허은경(2017), 「제주지역설화를 소재로 한 미술표현활동 연구」, 제주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현용준(1989), 「<특집 제주무속의 전통과 변화> 제주도민의 신앙체계와 무속」, 『濟州島研究』 6. 3-8.

황인순(2020), 「신화적 공간의 생성과 여성 주체 - <차사본풀이> 의 강림 부인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 118-141.

Ellis, G., & Brewster, J. (1991), *The storytelling handbook for primary teachers*. London: Penguin

Wiggins, G., & McTighe, J. (1998), *Understanding by design*. Alexandria, VA:ASCD.Jay McTighe is an education co.

4. 기타

“제주의 속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culture/dialect/proverb/publish.htm>(접속일: 2022.04.15.)

“문무병의 제주, 신화2 - 김연희 심방에게 듣는 생생한 문전신 이야기”,

<제주의소리>, 2017.03.23.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88762>(접속일: 2022.04.05.)

“기획/사라져가는 제주어 지키기-제주어 사용실태(6)”, <한라일보>, 2011.03.11.

<http://www.ihalla.com/article.php?aid=1299769200356978020>(접속일: 2022.04.10.)

<Abstract>

A study on culture education plan for middle-immigrant adolescents
using Jeju folk tales

Kim, Kwan-ta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ong, Hyun-jung

Academic Advis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the education plan for interculturalism of mid-immigrant adolescents by using Jeju folktales. Mid-immigrant adolescents are students who were born and lived abroad, then immigrated to Korea, and are confused about their cultural identity. It was intended to give these students a new perspective on cultural diversity by educating them on interculturalism using local stories.

In this study, culture was defined, elements for cultural education were classified, and cultural elements were extracted by exploring the educational value of folktales. In addition, Jeju local myth was selected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intention and reconstructed using the principles of reconstruction. In order to utilize the reconstructed narrative in intercultural education, an educational model was constructed and various learning activities were suggested. Finally, cultural education achievement standards were made using the local story, and lesson plans, lesson scripts were presented step-by-step

according to the education model.

The characteristic of this thesis is that it does not educate local folktales as one of the assimilation principle cultural education perspectives, but treats various local cultures as materials that can be educated together.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tried to analyze and utilize local stories that have not been noticed in the past in terms of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And it is meaningful that it was attempted from a creative point of view rather than a cultural infusion point of view while providing cultural education for mid-immigrant adolescents.

Key words: interculturalism, mid-immigrant adolescents, Jeju folktales, <Munjeonbonpuri>, cultural education model, culture lesson plan, cultural education camp

부록

1. 제주 설화 문전본풀이 채구성본

옛날 옛적 남선 고을의 남선비와 여산 고을의 여산 부인이 부부가 되어 살았었다. 집안은 가난하여 살림이 궁한데 아들은 일곱 형제나 태어났다.

하루는 여산부인이 남편더러 말을 하되,
"여보, 난 개가 짱 물어든다고 우리가 이래서는 자식들도 많앙 살 수가 어수다. 제주에는 쌀이 귀후난 쌀장사나 해 보기 어떻 흥카마쌌?"
"걸랑 그리 흥게."

남선비는 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곧 배를 한 척 마련했다. 쌀을 살 밀천이 마련되자 남선비는 아내와 아들들을 두고 남선 고을을 떠났다.

배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이는 대로 흘러가 오동 나라 오동 고을에 닿았다.
오동 나라 오동 고을에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간약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다.

남선비가 배를 타고 쌀장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귀일의 딸은 부두로 부리나케 달려왔다. 남선비의 돈을 굶어내려 해서이다.

귀일의 딸은 언강을 부리기 시작했다.
"남선비님아, 남선비님아, 우리 함께 어울려 지내보며 놀아봅서."
"어서걸랑 그리 협주."

남 선비는 그 소리가 싫지 않았다. 둘은 장기를 두었다. 이리 두고 저리 두고 며칠을 두는 데 승부는 뻔한 일이었다. 남선비는 타고 간 배를 팔고 쌀 살 돈을 모조리 빼앗겼다. 이젠 갈수도 올수도 없는 가련한 신세가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남선비는 어쩔 수 없이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첩으로 삼아, 그녀에게 끼니를 얻어먹기로 했다.

간약한 첩이 남편을 잘 모실 리가 없다. 집이라곤 나무 돌쩌귀에 거적문을 단, 수수깡 외기둥의 움막이다. 이 집에서 남선비는 부인이 끓여 준 겨죽 단지를 옆에 끼고 앉아,
"요 개 저 개, 주어 저 개!"
개를 쫓으면서 잠에 들었다. 이런 생활을 이어 가니 몇 해 안 가 눈까지 어두워져버렸다.

한편 여산부인은 남편이 돈을 벌여 돌아올까, 연 삼 년을 기다리다가 끝내 소식이 없자 아들들을 불렀다.
"너네 아방이 쌀장사를 갔는데 여태까지 소식이 어신 거 보난, 무슨 곡절이 이신 거 닷다. 깊은 산중에 올라가서 곧은 낭 베어다가, 배를 하나 지어주민 너희 아방을 찾아오켜."
막내아들 녹디생인은 형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상수빙광 수심빙은 약방 약도 소용엇던 해신디, 어머니 걱정이 커부난 우리가 배를 지어사쿠다."
이튿날부터 아들 칠형제는 굴미굴산에 올라가 곧은 나무를 베어다가 배 한 척을 지어

놓았다. 여산부인은 일곱 형제를 두고 남선 고을을 떠났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이는 대로 배는 흘러, 오동 나라 오동 고을에 닿을 수가 있었다.

오동 고을에 닿은 여산부인은 남편을 찾아 헤맸으나 행방이 묘연했다. 발 가는 대로, 길이 난 대로 자꾸만 가다보니, 기장밭에 새 쫓는 아이를 만날 수 있었다.

"요 새 저 새, 너무 약은 체 말아라. 남선비 약은 깎에도 노일제대귀일의 딸 흘림에 들어, 수수깡 외기둥 움막에 앉아 겨죽 단지 옆에 끼고, 이 개 저 개 주어 저 개! 쫓고 있다. 요 새 저 새 주어 저 새!"

아이의 새 쫓는 소리에 여산부인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바람결에 짙은 안 들렸으나 남선비 소리만은 분명히 들렸다.

"얘야, 아까 뭐랜 고라시냐? 한 번 더 말해 주면 내 영초 댕기 하나 해주켜."

"나 아무말도 안 고랴수다."

"아니, 아까 남선비가 어떻게든 하지 않아서? 그 말을 해 달란 말이다."

"아 무슨 말이라고. 아까 요 새 저 새 너무 약은 체 말아라. 남선비 약은 깎에도 노일의 딸 흘림에 들어 겨죽 단지 옆에 끼고 앉아 이 개 저 개 주어 개 하며 쫓고 있다고 해수다."

"설운 아기야, 남선비가 어디 살았시냐? 남선비 사는 델 가르쳐주라."

"요 재 넘고 저 재 넘어갑서. 요 재 넘고 저 재 넘어 가다 보민, 나무 돌썩귀에 거적문을 단 움막이 이수다."

여산부인은 아이에게 영초 댕기를 달아주고 요 재 넘고 저 재 넘어갔다. 과연 나무 돌썩귀에 거적문을 단 움막이 있었다.

"지나가는 손인디, 날이 저물어부난 하루 저녁 재워주기 어떻게우짜?"

여산부인은 움막 속을 들여다보며 말을 건넸다.

"아이고, 설운 부인님아. 우리 집은 집도 좁고, 손님 재울 수 어수다."

겨죽 단지를 끼고 앉아 대답하는 주인은 분명 남편인 남선비였다. 그러나 눈이 어두운 남편은 부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우짜? 사람이 집 지고 다닙니까? 정지라도 좋으면 하루 저녁만 빌려줍서."

자꾸 다그쳐 부탁하는 바람에 남선비는 마지못해 허락을 했다.

여산부인은 부엌에 들어가 솥을 열어 보았다. 겨죽이 바닥에 바짝 늘어붙어 있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우선 밥부터 해 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한 두 번 솥을 깨끗이 닦아 놓고, 좋은 쌀을 씻어 놓아 곤밥을 지었다. 말끔히 상을 차려 남선비에게 들어가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밥상이우짜?"

"주인 모른 나그네가 어디 이겠수짜. 사양 말고 드십서."

남선비는 첫 솥을 뜨고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것이다.

"설운 부인님아, 이게 무슨 일이우짜? 나도 옛날에는 이런 밥도 먹어 보았수다마는 이 꼴이 되었수다. 나도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우다. 남선 고을 남선비가 됨수다. 쌀장사를 왔다가 노일제대귀일의 딸 흘림에 들어 이 지경이 되고, 이젠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처지우다."

"아이고, 설운 남선비님아, 나를 모르쿠와? 여산부인 됴수다."

남선비는 깜짝 놀라며 부인의 팔목을 덩석 잡았다. 그간 못 다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윽고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어디 가서 겨 한 되를 치맛자락에 얻어 들고 들어왔다.

"이놈 저놈 죽일 놈아. 나는 어디 강 죽을 듯 살 듯 겨 한 되라도 빌어다가 죽을 썬어 배 불게 먹이다 보난, 지나가는 여자나 끌어 들염구나!"

"설운 부인아, 그리 욱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라. 여산 고을 큰부인이 나를 찾아와서." 그말 들은 귀일의 딸은 해책 방으로 들어오더니,

"아이고 형님아. 오뉴월 한더위에 우릴 찾아오려고 얼마나 고생 했수가? 우선 시원히 목욕이나 행 왕 저녁밥이나 행 먹고 뇽써."

상냥한 말씨로 언강을 부려 가며 큰부인 대접을 하는 것이었다.

여산부인은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귀일의 딸 뒤를 따라 주천강 연못으로 목욕을 나갔다.

"설운 형님아, 어서 옷을 벗읍써. 제가 먼저 등에 물을 놓아 드리쿠다."

여산부인은 적삼을 벗어 얹드려 굽혔다. 귀일의 딸은 옆에 서서 물을 한 줌 쥐어 놓아 등을 밀어 주는 척하다가, 물 속으로 와락 밀어 넣어 버렸다. 까맣고 윤기 나는 머리가 물 속에 흘러가 여산부인은 주천강 연못의 원혼이 되고 말았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의 옷을 벗겨 입고,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큰부인으로 변신했다. 그러고는 남선비에게 돌아갔다.

"설운 남군님아, 노일제대귀일의 딸 행실이 께쌌ㅎ영, 주천강 연못에 강 죽여 두고 왓수다."

"하하, 잘 죽였져. 내 원수 갓았구나. 자, 이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남선비와 귀일의 딸은 배를 놓아 남선 고을로 향하였다.

남선비 아들 일곱 형제는 부모님을 마중하여 부두로 나왔다.

배가 부두에 닿았다. 아들들은 부모를 맞는 정성으로 각각 다리를 놓아 갔다. 큰아들은 망건을 벗어 다리를 놓고, 둘째는 두루마기를 벗어 다리를 놓고, 셋째는 적삼을 벗어 다리를 놓고, 넷째는 고의를 벗어 다리를 놓고, 다섯째는 행전을 벗어 다리를 놓고, 여섯째는 버선을 벗어 다리를 놓았다. 그런데 어머니의 행동을 꺾뚫어 본 영리한 막내아들 녹디생인은 칼날을 위로 세워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닌가.

"무사 부모님이 오시는데 칼날을 세워 다리를 놓암시니?"

이상히 생각한 큰형이 물었다.

"설운 형님아, 아버님은 우리 아버님이 맞수다마는, 어머님은 우리 어머님이 아니우다."

"거 뉘말이라? 어뉘 알안?"

"배에서 내령 집 찾아가는 것 보민 알 도리가 이실 거우다. 집에 강 우리 밥상 차려 놓는 거 보민 알 도리가 이실 거우다."

형들은 동생의 말대로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부모님이 선창가에 내리자, 부모, 자식이 그간에 밀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아버님, 어머님아, 혼저 집으로 가게마쌌."

부모를 앞세우고 일곱 형제는 뒤를 따랐다.

눈이 어두운 남선비는 길을 알 리가 없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앞장을 서서 길을 찾아가는데 그게 또한 길을 알리가 없는 것이다. 가다가 골목이 당하면 이 골목으로 썩 들

어가려 하고 저 골목으로도 쑥 들어가려 하는 것이다.

"어머님은 무사 벌써 길도 잊어수과?"

"애들아, 말도 말라. 너네 아방 찾아오노라고 하도 고생 해부난 정신이 어찢어찢햐져." 형제들은 확실히 석연치 않은 데가 있구나 생각했다.

겨우 집을 찾아 들어갔다. 저녁을 하여 밥상을 보는데, 아버님께 놓던 상은 자식에게, 자식에게 놓던 상은 아버님께 가곤 하여 뒤죽박죽이 되어 갔다.

"어머님은 무사 밥상도 벌써 잊어수과?"

"아이고 애들아. 말도 말라. 너네 아방 찾노라고 너무 고생해부난 정신이 었져." 형제들은 더욱 의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 어머님은 어느 고을에 강 무얼 하고 계실까?'

그날부터 일곱 형제는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노일제대귀일의 딸도 이 눈치를 알아차렸다. 적이 걱정이 되었다. 이 아들들이 번쩍 일어서는 날에는 무슨 나쁜 일을 당할지 모를 일이다. 어떻게 하든 이 아들들을 없애버리는 게 상책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귀일의 딸은 그 계락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귀일의 딸은 삼시에 배가 아프다고 방 네 귀를 팽팡 돌기 시작했다.

"아야 배여, 아야 배여!"

가뜩이나 부인을 사랑하는 남선비는 부인이 죽을 듯 소리치자 덜컥 겁이 나서 당황했다.

"어떻하든 좋코. 벤 짐을 갈랑 저도 빙은 못 갈랑 진댄 후는디."

"설운 낭군님아. 나를 조금이라도 살릴 마음이 이시거든 요기로 요 길가다 봅서. 대로변에 짚으로 만든 모자 쓰고 앉은 점쟁이가 이실 거우다. 거기 강 점이나 봐 줍서."

남선비가 점을 치러 먼 문간 바깥으로 나가니, 귀일의 딸은 얼른 일어나 울타리를 뛰어넘어 작은 지름길로 달려갔다. 대로변에 이르자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점쟁이인 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남선비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점이나 봐줍서."

"무신 점마씨?"

"우리 부인이 삼시에 신병 낭 사경을 헤멤수다. 무사 경험신지 봐주십서."

귀일의 딸은 손가락을 들어 오므렸다 폈다 하며 짚어보는 척하다가,

"선비님아, 아들 일곱 형제 이수과?"

"예, 있수다."

"일곱 형제 간을 내어 먹어사 신병 좋으쿠다."

남선비가 그 말 듣고 집으로 들어온 때는, 이미 귀일의 딸은 지름길로 먼저 와서 텅굴고 있을 때였다.

"아야 배여, 아야 배여!"

더욱더 사경에 달해 있었다.

"점쟁이가 뭐랜 고라수과?"

"아들 일곱 형제 간을 내어 먹어사 신병 좋켤."

"아이고 낭군님아, 이게 무신 말이우꽂? 무사 그럴 수 있수과? 요기로 요길 가다봅서. 이번엔 바구니를 둘러쓰고 앉은 점쟁이가 이실 거우다. 거기 강 다시 물어봅서. 아야 배

여, 아야 배여!”

남선비님이 먼 문을 나가니, 귀일의 딸은 다시 울타리를 뛰어넘어 지름길로 달려가 바구니를 쓰고 앉아 있었다.

남선비가 달려가서,

“점이나 봐줍서.”

“무신 점마씨?”

“우리 부인이 삼시에 신병 낭 죽을 지경이우다.”

역시 점쟁이는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다가,

“아들 일곱 형제 간을 내어 먹어사 신병 좋으쿠다.”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귀일의 딸은 다시 지름길로 달려와 더욱 죽어 가는 체하고 있었다. 남선비가 들어왔다.

“아야 배여, 아야 배여! 가난 뭐랜 고랍디가?”

“일곱 형제 간을 내어 먹어사 좋켄햄서.”

“아이고 할 수 어수다, 설운 낭군님아. 경허거든 아들 일곱 형제 간을 내어 줍서. 산에서 노는 가마귀도 석 돌 열물이 지나민 부모 공 가픈댄 현대 마는, 자식들이 뭐랜 허쿠과. 내 살아남 한꺼번에 세쌍둥이씩 세 번만 낳으면, 형제가 더 불영 아홉 형제가 될 거 아니우꽂?”

남선비는 부인의 말이 그럴싸하여, 은장도를 꺼내어 슬근슬근 갈기 시작했다. 때마침 뒷집의 청태산 마구할망이 불을 빌리러 들어왔다.

“남선비야 무사 칼을 갈았시니?”

“우리집 부인이 삼시에 병이 낭 죽을 지경이 되어, 한두 군데 점을 보란, 아들 일곱 형제 간을 내어 먹어사 나오켄 햄수다. 경해부난 간을 내젠 칼 갈았수다.”

청태산 마구할망은 혼겁이 나서 밖으로 내달았다. 네거리에 가보니 남선비 아들 일곱 형제가 있었다.

“설운 아기들아. 너네 집에 강 보란, 너네 아방이 너네 일곱 형제 간을 내젠 칼을 갈고 이서라.”

일곱 형제는 대성통곡을 시작했다. 얼마나 울었을까. 울음도 지쳐지자 영리한 막넛동생이 의견을 내놓았다.

“설운 형님들아. 걱정이 반찬이민 상밭이 무너난댄 헛수다. 맹심흐른 맹심 덕이 싯댄 허난 경 울지 말앙 여기 서 이십서. 제가 어떻 하든간에 아버님이 가는 칼을 뺏아 오쿠다.”

형들은 네거리에서 기다리게 하고 막내 동생 녹디생인이 집으로 들어갔다. 역시 아버님은 칼을 슬근슬근 갈고 있었다.

“아버님아 아버님아, 무신 일로 칼을 갈았수과?”

“그런 게 아니라, 너네 어멍이 신병이 나 죽을거 뉘앙, 어디 가서 점을 보란, 너네 일곱 형제 간을 내어 먹어사 나오켄 하길레, 간을 내젠 칼을 갈았서.”

“아버님아 그거 좋은 일이우다. 어머님 신병을 고쳐사 험니다. 그런데 아버님아, 아버님 손으로 우리 일곱 형제 간을 내민 송장 일곱을 묻어사 할 거 아니우꽂. 그 칼을 이리 줍서. 제가 형님들을 굴미굴산 깊은 곳에 데리고 강 여섯 형님네 간을 내어 오쿠다. 어머님

이 먹어 빵 효과가 이시른 저 하나는 아버님 손으로 간을 냅서.”

“걸랑 그리 허자.”

칼을 내어 주니, 녹디생인은 형님들을 데리고 눈물로 다리를 놓으며 굴미굴산 깊은 곳으로 향하였다. 가다가다 몸도 지치고 배가 고파 일곱 형제는 길가에 주저앉았다. 잠깐잠이 들었다. 저승으로 향해 가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났다.

“설운 아기들아, 어서 흔저 눈을 땡 보라. 산중에 노루 한 마리가 내려왓찌. 그 노루를 잡아서 죽일 판으로 두르고 이시른 알 도리가 이실 거여.”

눈을 번쩍 뜨고 보니, 과연 노루 한 마리가 저 산에서 뛰어 내려오고 있었다. 일곱 형제는 와르르 몰려들어 그 노루를 잡았다. 금방 죽일 판으로 돌려쌌다.

“설운 도련들아. 나를 죽이지 말앙 내 뒤에 보민 산돼지 일곱 마리가 내려오고 이시난 그걸 잡읍서. 어미는 남겨 두고 새끼 여섯 마리를 잡아 앙 간을 내어 가문 될 거 아니꽈?”

노루가 차근차근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다.

“이놈 거짓말 아니냐? 만일 거짓말이른 용서하지 않으켜!”

이놈을 식별한 증거로 노루 꼬리를 짚막하게 끊고, 엉덩이에 백지 한 장을 붙여 놓았다. 그때 낸 법으로 노루 몸뚱이가 아리롱다리롱하고 노루 꼬리가 짧아졌다.

노루를 놓아 주고 잠시 있으니 과연 산돼지 일곱 마리가 저 산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었다. 노루 말대로 어미는 씨 전할 것으로 살려주고, 새끼 여섯 마리를 잡아 간을 내었다. 일곱 형제는 산돼지 간을 돌돌 싸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다.

“설운 형님들일랑 동서남북 중앙으로 벌여 섭서. 대기해 있다가 나가 큰 소리 치거들랑 왈각 달려듭서.”

네거리에 와서 녹디생인은 이렇게 형들에게 당부하고 멀리 집 주위를 둘러 세웠다. 그러고는 산돼지 간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아야 배여, 아야 버여!’ 하며 죽어 가고 있었다.

“어머님아, 이걸 잡수어 봅서. 형님들 간을 내어 왔수다.”

“아이고 설운 아기야, 효자구나. 중병 든 데 약 먹는 거 보는 법 아니다. 너는 저기 나가 이시라.”

녹디생인은 바깥으로 나오면서 집게손가락에 침을 발라 창구멍을 하나 뚫었다. 몰래 창구멍을 살폈다. 귀일의 딸은 간 여섯 개를 먹는 체하며 바닥을 들어 구들방으로 소롱소롱(살금살금) 묻어 놓고, 피만 입술에 바르는 척 마는 척하고 있다.

녹디생인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님아, 약 다 자십데까?”

“다 먹었다.”

“어머님, 약 자시니 신병이 어떻수과?”

“조금 나아 뵈다마는 하나만 더 먹었으면 아주 활짝 나아지켜.”

“어머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머님 머리에 이나 잡아 드리쿠다.”

“그 효도(孝道) 고맙다마는 중병 든 데 이 잡는 법 아니라.”

“그러면 방안이나 치워 드리쿠다.”

“이거 무슨 말이라? 중병 든 데에 방안 치우는 법 아니라.”

녹디생인은 화를 벌컥 내며 달려들어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머리를 좌우로 핑핑 감아

한쪽으로 잡아 엮혔다. 그러고는 자리 밑에 숨겨 놓은 간 여섯 개를 한 손에 세 개씩 들고 역새 지붕 위로 올라갔다.

“요 동네 어른들아, 저 동네 어른들아, 다슴어멍 다슴아방 이신 사람들아. 요거 보고 조 심합서! 설운 형님들이여 동서로 달려들서!”

큰 소리로 외쳐 댔다. 형들이 와라치라 달려들었다.

집안이 왈칫 뒤집혔다.

‘이게 무슨 일이라?’

남선비는 달아날 길을 잃어, 엉겁결에 올래(집으로 드나드는 골목길)로 내닫다가 거기에 걸려 있는 정낭(사람이나 짐승의 출입을 막기 위해 올래에 가로 걸쳐 놓은 굵은 나무 막대기)에 목이 걸려 죽었다. 그래서 주목지신(柱木之神: 정낭을 걸치게 올래 양쪽에 세워 놓은 기둥의 신)·정살지신(정낭의 신. 정낭을 정살이라고도 함)이 되었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아들들이 달려드는 바람에 바깥으로 내달을 수도 없어, 벽을 뜯어 구멍을 뚫고 변소로 도망치다 쇠뿔 자 머리털에 목이 매어 죽었다. 변소의 신(神)인 축도부인(廁道婦人)이 된 것이다.

일곱 형제는 모조리 서천꽃밭에 올라갔다. 이 꽃밭은 뽕살꽃(뽕를 환생시키는 꽃)·살살꽃(살을 환생시키는 꽃)·도환생꽃 등 가지가지 꽃들을 가꾸는 곳이다. 이 꽃밭은 황세곤 간이 관리한다.

일곱 형제는 우선 황세곤간을 달래어 도환생꽃을 몇 송이 얻어 내고, 그 길로 오동 나라 오동 고을의 주천강 연못으로 달려갔다. 연못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물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하느님, 주천강 연못이나 마르게 해 줘서. 어머님 신체나 찾으쿠다.”

일곱 형제가 기도를 드렸더니 삽시에 연못이 잦아들었다. 바닥에 어머님의 뼈가 살그 랑이 있었다. 이 뼈 저 뼈 도리도리 모아 놓아, 도환생꽃을 뿌려 놓았다.

“아이고 봄잠이라, 오래 잤져.”

머리를 긁으며 어머님이 살아났다.

‘어머님이 누웠던 자리들 내버리랴.’

일곱 형제는 어머님 뼈가 놓였던 자리의 흙을 주섬주섬 모아 놓고 시루를 만들었다. 여섯 형제가 돌아가며 한 번씩 주먹으로 짖으니 여섯 구멍이 터지고, 녹디생인이 화를 발각 내며 발뒤꿈치로 한 번을 탁 짖으니 큰 구멍이 가운데 터졌다. 그때에 낸 법으로 시루구멍이 일곱 개 뚫린 것이다.

어머님을 살려 내어 일곱 형제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님아, 춘하추동 사시절을 물속에서만 살아시난 몸인들 안 추우쿠과? 어머님일랑 하루 세 번 더운 불 찌멍 조왕할망으로 앉으십서.”

어머니는 조왕할망이 되어 들어서게 하고, 일곱 형제는 각각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여 신들이 되었다. 큰형은 동방청대장군(東方靑大將軍), 둘째형은 서방백대장군(西方白大將軍), 셋째형은 남방적대장군(南方赤大將軍), 넷째형은 북방흑대장군(北方黑大將軍), 다섯째 형은 중앙황대장군(中央黃大將軍), 여섯째형은 뒷문전(뒤쪽 門神)으로 들어섰다.

그때 낸 법으로 오늘날도 명절·기일 제사 때 문전제(門前祭)를 지내고, 그 제상의 제물을 조금씩 떠서 지붕 위에 올린 후, 다시 조금씩 떠서 어머니신인 조왕(竈王)에게 올리는

것이다.

그때 변소의 신인 측도부인과 조왕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부엌과 변소는 마주 서면 좋지 않은 법이다. 부엌과 변소는 멀어야 하고, 변소의 것은 돌 하나, 나무 막대기 하나라도 부엌으로 가져오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2. <문전본풀이> 문화 요소별 수업 발문

(1) 제주의 강인한 여성과 성 평등적 가치

- 교사: 문전본풀이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가 남아 있어요. 그 중에서 제주 여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볼까요? 문전본풀이에 등장하는 제주 여성은 '여산부인'이 있죠? 남선비가 쌀을 사러 갔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산부인이 어떤 행동을 하죠?
- 학생: 남편을 찾아 나서요.
- 교사: 네 맞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식들에 나무를 베어 와서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죠? 조선시대 한국은 유교사회였어요. 유교사회에서는 남자가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첫째 아들이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을 첫째 아들에게만 했었어요. 혹시 흥부와 놀부 이야기 하나요?
- 학생: 들어봤어요.
- 교사: 네 그 이야기에서도 첫째 아들인 놀부가 재산을 모두 물려받아서 흥부는 가난하게 살죠? 그럼 자식 중에 아들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 학생:
- 교사: 아들이 없으면 양아들이라고 해서 친척 중에 아들이 많은 집 막내아들이나 다른 남자 아이를 아들로 만들어서 상속을 해 주었어요. 딸이 있다고 해도요. 그런 유교사회에서 여자가 자기주장을 펼치고 홀로 떠나는 일이 가능할까요?
- 학생: 아니요.
- 교사: 그런데 문전본풀이에서는 다 큰 아들들이 아버지를 찾아나서는 게 아니라 아내인 여산부인이 남편을 찾아 떠나고 있어요. 제주 설화에는 여자 장군도 나와요. 세경본풀이라는 신화가 있는데 거기 주인공 자청비는 장군이 돼서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난리를 수습하기도 해요. 또 서귀포에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에서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도망가자 남편을 찾아가서 잡아오는 여성 신도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이 설화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살아남았을까요? 그건 바로 제주도에 이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주도는 예전부터 풍족한 땅이 아니었어요. 여성들이 집에서 집안일만 하면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 때문에 여성들이 바다에서 해녀가 되고 집에서 가장이 되기도 했던 곳이 제주도예요. 그런 강인한 여성의 모습이 반영돼서 만들어진 것이 곧 제주 설화예요.
- 교사 질문1: 여성의 주체적이고 강인한 모습이 나타나는 고전 작품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아는 작품이 있다면 말해볼까요?
- 교사 질문2: 어떤 환경이 여성이 주체적이고 강인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작품을 만들게 했을까요? 자연 환경 요인과 사회 환경 요인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까요?
- 교사 질문3: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여산부인의 말과 행동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여성과 남성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학생 입장에서 어떤가요?

(2) 제주인들의 공동체 의식 ‘권당’문화

- 교사: 제주도에서는 이웃과 친척을 ‘권당’이라고 불러요. 혹시 들어봤나요?
- 학생: 예/아니오.
- 교사: 들어본 학생도 있고 처음 듣는 학생도 있네요. 권당은 한자어 ‘권당’에서 온 말이라고 해요. 권은 무리를 짓는다는 뜻이고, 당도 무리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모둠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무리라고 해요. 이걸 제주말로 권당이라고 불러요. 제주 사람들은 혼자 살기가 힘들어서 예전부터 권당 문화가 널리 발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친척이 있죠?
- 학생: 네.
- 교사: 그 친척과 권당은 차이가 있을까요?
- 학생: …….
- 교사: 제주도 사람들이 서울이나 부산 사람을 어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 학생: 아니요.
- 교사: 육지 사람이라고 하죠?
- 학생: 맞아요.
- 교사: 제주도는 육지가 아닌가요?
- 학생: 맞아요. 육지에요.
- 교사: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를 육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섬, 서울이나 부산 등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를 육지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요. 여러분들 제주도에 무엇을 타고 왔나요?
- 학생: 비행기요/배요
- 교사: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어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왔어요. 그런데 옛날 배로 제주도에 오는 일이 쉬웠을까요?
- 학생: 아니요.
- 교사: 맞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사람들끼리만 살았어요. 그러다보니 제주사람끼리 결혼하고 제주사람끼리 가족이 됐어요. 그렇게 살다보면 제주도 사람들이 다 가족이고 친척이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제주도 밖에서 사람이 오기도 하고 제주도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 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4.3사건이라고 아나요?
- 학생: 알아요./몰라요.
- 교사: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네요. 4.3사건은 육지 경찰과 군인에게 제주 사람들이 많이 희생된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의심하고 멀리하고는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 교사: 제주도 권당 문화는 제주도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협조하는 문화예요. 요즘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도 친하게 알고 지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권당 문화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 교사: 문전본풀이에서 보면 녹디생인이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혼내주기 전에 마을

-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장면이 있죠?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화가 났으면 혼자 복수하면 되지 왜 마을사람을 다 불러 모았을까요? 그건 자기가 하는 일을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권당 문화는 친척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의 여러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다만 권당이 판단하는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예요.
- 교사: 그리고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마지막에 죽어서 무엇이 되나요?
 - 학생: 신이 돼요.
 - 교사: 네 그것도 넓게 보면 제주도 신화에 등장하는 공동체 문화 때문이에요. 나쁜 사람이 죽었는데 신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제주도에서는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한 번 가족이 된 사람은 끝까지 가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 교사 질문1: 제주도의 어떤 환경이 권당 문화를 만들었을까요? 사회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까요?
 - 교사 질문2: 요즘 사회에 권당 문화는 어떤 점에서 중요할까요? 권당 문화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는 것이 좋을까요?
 - 교사 질문3: 다른 나라나 다른 지방에도 권당 문화와 비슷한 문화가 있을까요? 한번 조사해서 발표해 볼까요?

(3) 제주말의 종결 어미

- 교사: 문전본풀이 본문을 보면 제주말이 나오죠?
- 학생: 네.
- 교사: 여러분들 제주말을 이해할 수 있나요?
- 학생: 네/아니오/조금이요
- 교사: 이해할 수 있는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도 있네요. 제주말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한국말에는 존대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른에게 말할 때와 친구에게 말할 때, 동생에게 말할 때 각각 다른 말을 쓸 거예요. 친구와 동생에게 하는 말은 비슷하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표를 하나 보여줄게요.
(존대법에 따른 제주 방언 종결어미 자료 제시)
- 이 표에 보면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종결어미가 있는데 서술법은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의문법은 물어보는 말이고, 명령법은 시키는 말이에요. 청유법은 같이 하자고 하는 말이고요. 어른에게 하는 서술법은 ‘무엇무엇우다’나 ‘무엇무엇수다’, ‘읍네다’로 끝나요. 문전본풀이에서 보면 녹디생인이 형님들에게 ‘어머니 걱정이 커부난 우리가 배를 지어사쿠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지어사쿠우다’라고 하는 게 어른들에게 말하는 말투예요.
- 교사: 의문법은 물어보는 거예요. 어른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볼 때는 무엇무엇우파, 읍네까, 읍데가 등으로 써요. 여산부인이 눈이 먼 남선비를 찾아가 그 집에서 ‘하루 저녁 재워주기 어떻후우파?’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때 ‘우파?’가 어른들에게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에요.
- 교사: 명령법은 시키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명령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어머니나

- 아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간혹 일을 시킬 때는 ‘읍서’로 해요. 문전본풀이에서 여산부인이 남선비에게 밥상을 차려주자 남선비가 깜짝 놀라는데요. 그때 여산부인이 남선비에게 ‘사양 말고 드십서’라고 말하죠. 이때 ‘십서’가 명령 표현이에요.
- 교사: 청유법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청유법과 명령법 종결어미는 같은 모양이에요.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여산부인에게 같이 목욕 가자고 할 때, ‘저녁밥이나 행 먹고 놔쎄’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청유법이에요.
 - 교사: 다음은 친구에게 하는 평대 표현이에요. 평대 표현의 서술법 종결어미는 ‘-아’, ‘-지우’나 ‘-쥬’가 있어요. 문전본풀이에서 남선비가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기른 경 험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쥬’가 평대 서술법이에요. 하대 표현의 서술법은 ‘-저’, ‘-라’, ‘-켜’, ‘-여’ 등이 있는데 문전본풀이에서는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간을 먹는 척하고 ‘이제 살아지켜’라고 하는 장면에서 나와요.
 - 교사: 다음은 평대 표현의 의문법 종결어미예요. ‘-거’와 ‘-고’, ‘-서’, ‘-샤’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새 친구에게 ‘우리 어떻 가는거?’라고 할 때 ‘-거’가 의문법이에요. 제주도에서는 말을 축약해서 쓰는데 의문법에도 자주 쓰여요. 예를 들면, ‘그 신발 얼마니?’라는 의문문을 제주도에서는 ‘그 신발 얼마?’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또 ‘너의 집이 얼마나 멀었니?’라고 물을 때는 ‘너네 집 멀언?’이라고 물어봐요. 하대 표현의 의문법도 같이 배워볼게요. ‘-라’, ‘-서’, ‘-샤’가 있는데 평대 표현과 비슷해요. 문전본풀이에는 여산부인이 남선비를 찾아 오동마을에 갔을 때 아이들에게 ‘아까 워랜 고라시냐?’라고 묻는 표현에서 나와요. 그리고 ‘어떻했댄 하지 알아서?’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때도 나와요.
 - 교사: 다음은 평대 표현의 명령법 종결어미예요. 평대와 하대가 비슷해요. ‘-아’와 ‘-라’가 있어요. 문전본풀이에서는 평대 표현의 명령법은 안 나오고 하대 표현의 명령법이 나오는데 여산부인이 꿈에 나타나 녹디생인과 형들에게 ‘어서 혼저 눈을 땡 보라’라고 할 때 나타나요.
 - 교사: 다음은 하대 표현의 서술법이에요. 하대 표현의 서술법 종결어미는 ‘-저’, ‘-라’, ‘-켜’, ‘-여’가 있어요. 여산부인이 아들들에게 남선비를 찾아올 테니 배를 지어 달라고 할 때 ‘배를 하나 지어주민 너희 아방을 찾아오켜’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켜’가 하대 표현 서술법 종결어미예요.
 - 교사: 다음은 하대 표현의 청유법이에요. 하대 표현의 청유법 종결어미는 ‘-자’, ‘-게’예요. 문전본풀이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축구하러 가자’는 말을 제주도에서는 ‘축구하러 가게’라고도 해요. 이 ‘-게’ 표현 뒤에 ‘마쌌’을 붙이면 어른에게 쓸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 가게마쌌’이라고 하면 아버지에게 집으로 가자고 청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 교사 질문1: 종결어미를 활용해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 교사 질문2: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그건 어떤 종결어미인지 찾아볼까요?
 - 교사 질문3: 다른 지역 방언에도 이런 종결어미가 쓰이는지 그 예를 말해볼까요?

(4) 어휘

- 교사: 문전본풀이 본문을 보면 제주에서만 쓰는 단어도 있어요.
- 학생: 맞아요..
- 교사: 여러분들 제주에서 쓰는 단어를 들어본 경험이 있나요?
- 학생: 네/아니오/조금이요
- 교사: 들어본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도 있네요. 제주에는 제주에서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것은 옛날에는 한국에서 두루 쓰다가 제주에서만 쓰게 된 단어도 있고요. 어떤 단어는 제주에서도 쓰고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도 쓰지만 다른 곳에서는 안 쓰는 단어도 있어요. 그런 단어가 많아서 사전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 사전에는 선생님이 모르는 단어도 많아요. 문전본풀이에 나오는 제주 단어 먼저 배우고 선생님이 제주에서 종종 쓰는 단어를 보여줄게요. 같이 보면서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을 거 같아요.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제주어 어휘 목록 제시)
- 교사: 제주말로 꺾은 표준어로는 뼈를 말해요.
- 교사: 제주말로 아방은 표준어로는 아버지를 말해요.
- 교사: 제주말로 낭은 표준어로는 나무를 말해요.
- 교사: 제주말로 ‘굳다’는 표준어로는 ‘말한다’는 뜻이에요.
- 교사: 제주말로 ‘정지’는 표준어로는 ‘부엌’을 말해요.
- 교사: 제주말로 ‘하다’는 표준어로는 ‘많다’는 뜻이에요.
- 교사: 제주말로 ‘언강’은 표준어로는 ‘어리광’을 말해요.
- 교사: 제주말로 ‘맹심’은 표준어로는 ‘명심’을 말하고 ‘맹심하다’는 말은 ‘명심하다’는 뜻이에요.
- 교사: 제주말로 ‘굴미굴산’은 표준어로는 ‘한라산’을 말해요.
- 교사: 제주말로 ‘다슴’은 표준어로는 ‘의붓’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의붓아버지’, ‘의붓어머니’와 같이 쓰는데 이때 뜻은 새아버지, 새어머니를 말해요.
- 교사: 이 외에도 제주에서 쓰는 단어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 한 번 같이 읽어봐요.
(제주어 어휘 목록 제시)
- 교사 질문1: 목록에 나타난 어휘를 활용해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 교사 질문2: 제주에서 쓰는 독특한 단어를 한 개씩 조사해 볼까요?
- 교사 질문3: 다른 지역 단어 중 그 지역에서만 쓰는 말을 찾아볼까요?

(5) 속담

- 교사: 여러분들 혹시 아는 속담이 있나요?
- 학생: 있어요.
- 교사: 어떤 속담이 있나요?
- 학생: (자신이 아는 속담을 말한다)
- 교사: 여러분들이 아는 속담이 많이 있네요. 속담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두루 사

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담 속에는 그 사회의 문화가 들어 있죠. 예를 들어 한국에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어요. 동물 중에 말이 있죠? 우리가 하는 말도 말이에요. 이 두 단어를 발음할 때 ‘말’이라고 해요. 동물 중에 말은 빠르는데 말이 있죠. 말이 없다면 달릴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은 말이 없죠. 사람들 사이에 소문으로 말은 전달되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같은 발음이라는 것을 통해 소문이 빠르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한 거예요. 이 속담의 속뜻은 우리가 하는 말은 동물 말이 달리는 것보다 빠르게 퍼지니 평소에 말을 할 때는 조심하자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적게 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았어요.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는 속담인 거예요. 제주도 속담 중에도 문화를 모르면 뜻을 이해하기 힘든 속담이 있어요. 문전 모른 공사 없고 주인 모른 나그네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걸 문전본풀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그 뜻을 설명할 수 없는 속담이에요.

- 교사: 문전본풀이에는 어떤 속담이 있었나요? 한번 같이 볼까요?
- 학생: 네.
- 교사: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속담을 보여준다) 먼저 ‘난 개가 짱 물어온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은 밖으로 나간 개가 뼈를 물어온다는 뜻이에요. 집에만 있는 개는 결국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는 뜻으로 여기서 개는 곧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일거리를 얻을 수 없으니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라는 뜻으로 쓰여요. 문전본풀이에서는 집에만 있는 남선비에게 일을 권하면서 여산부인이 하는 말이죠.
- 교사: 다음은 ‘상수빙광 수심빙은 약방 약도 소용 엇나’라는 속담이에요. 상사병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병이고 수심병은 걱정이 많아 생기는 마음의 병이에요. 이 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는 뜻이죠. 문전본풀이에서는 여산부인이 남편을 걱정하고 그리워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자 아들들이 하는 말에 나타나요.
- 교사: 다음은 ‘문전 모른 공사 없고, 주인 모른 나그네 없다’는 속담이에요. 문전본풀이에서는 여산부인이 남선비를 찾아 갔을 때 ‘주인 모른 나그네 없다’는 말로 나오는데 원래는 ‘문전 모른 공사 없고’가 앞에 붙어 있어요. 문전본풀이를 다 봤으니 우리는 문전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죠? 문전제를 지내지 않으면 제사 때 조상신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전제 없는 제사가 없다는 뜻으로 쓰여요. 마찬가지로 주인도 모르는 나그네는 없다는 뜻이에요.
- 교사: 다음은 ‘벤 집은 갈랑 저도 빙은 못 갈랑 진다’는 속담이에요. 등에 베고 있는 짐은 갈라서 질 수 있지만 병은 그렇게 갈라서 아파줄 수 없다는 뜻으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속담이에요.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아파하자 남선비가 하는 말에 나타나요.
- 교사: 다음은 ‘산에서 노는 가마귀도 석 돌 열흘이 지나면 부모 공 가픈다’는 속담이에요. 제주도에선 까마귀가 많죠. 까마귀가 어른이 되면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모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동물의 특성을 관찰했던 옛 사람들이 남긴 속담이에요. 까마귀도 석 달 열흘이 지나면 부모에게 진 빚을 갚는데 사람은 어떻겠냐는

- 뜻으로 쓰여요.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남선비 아들들의 간을 내 먹으려고 할 때 남선비에게 한 말이죠.
- 교사: 다음은 ‘걱정이 반찬이민 상발이 무너난다’는 속담이에요. 걱정이 많아서 그게 반찬이 되면 밥상 다리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대단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밥상이 무너진다는 것은 건강과 일상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걱정만 하지 말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남선비가 형제들의 간을 내려고 칼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녹두생인이 형들에게 한 말이죠.
 - 교사: 다음은 ‘맹심후른 맹심 덕이 싯나’라는 속담이에요. 맹심은 ‘명심’이란 뜻인데 ‘맹심하다’라고 써요. 뜻은 정신을 잘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말이에요. 맹심하면 맹심한 덕이 있다는 뜻으로 정신을 잘 차려서 문제를 해결하러 나서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녹두생인이 형님들을 위로하며 한 말이죠.
 - 교사: 이 밖에도 여러 제주 속담이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속담을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좋을 거 같아요.
 - 교사 질문1: 제주 속담을 하나씩 정해서 뜻을 찾아볼까요?
 - 교사 질문2: 세계의 속담 중에 독특하고 재밌는 속담을 찾아서 발표해 볼까요?
 - 교사 질문3: 우리도 팀별로 재밌는 속담 하나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6) 농경문화

- 교사: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주식은 뭐죠?
- 학생: 쌀이요/밥이요
- 교사: 네 맞아요. 한국인들은 쌀, 즉 밥을 많이 먹죠. 한국은 그래서 옛날부터 농사를 많이 짓는 농경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인사를 재밌게 하죠. 한국에서는 ‘밥 먹었니?’가 인사예요. 그리고 친한 사람과는 ‘밥 한 번 먹자’라고 하면서 헤어져요. 한국에서 식은 밥을 뜻하는 ‘찬밥’은 대접을 잘 못하는 상황을 말해요. 그 반대로 ‘따뜻한 밥 한 끼’는 정감이 가는 대접을 뜻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밥을 만드는 쌀이 귀했어요. 문전본풀이에 보면 남선비가 왜 제주도를 떠나게 됐죠?
- 학생: 쌀을 사려고요.
- 교사: 맞아요. 남선비는 쌀을 사서 제주도에서 다시 팔아 돈을 벌려고 제주도를 떠나 오동나라로 갔던 거예요. 제주도는 쌀농사가 어려워 쌀이 귀했거든요. 제주도에 쌀농사가 잘 안 된 이유는 제주도 자연환경 때문이에요. 제주도는 어떻게 생겨난 섬인지 아나요?
- 학생: 잘 몰라요.
- 교사: 제주도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섬이에요. 화산섬은 현무암으로 돼 있고 그래서 물이 잘 빠지거든요. 몇 년 전에 나리라는 태풍이 와서 제주도에 홍수가 났었는데 선생님이 살면서 제주도에 홍수가 난 건 그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시간당 150mm 비가 쏟아졌는데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의 10분의 1이 1시

- 간에 쏟아진 거였어요. 그 정도 비가 와야 홍수가 나는 곳이 제주도예요. 쌀농사를 하려면 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주도는 논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 교사: 그렇다면 제주도는 어떤 농사를 많이 지었을까요? 논농사 말고 무엇이 있나요?
 - 학생: 밭농사요.
 - 교사: 맞아요. 논밭이라고 하죠? 논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주도에서는 밭농사를 주로 했어요. 밭농사로 얻을 수 있는 곡물 중에 대표적인 곡물이 바로 ‘메밀’이에요. 제주도가 메밀 농사로 유명한 거 아시나요?
 - 학생: 아니요.
 - 교사: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메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고려시대 때 몽골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는데 그때 제주도에서 말을 길렀거든요. 그때 메밀을 보급했어요. 이때부터 제주도에서는 메밀 농사를 지어서 메밀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혹시 빙떡 아시나요?
 - 학생: 네/아니오.
 - 교사: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네요. 메밀가루를 물에 풀어서 얇게 지져서 그 안에 무를 넣고 만든 떡이에요. 제주도에서는 제사 때 먹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혹시 제사를 지낸다면 한 번 잘 살펴보세요.
 - 교사: 문전본풀이에는 쌀과 관련된 음식이 하나 더 나와요. 문전본풀이 마지막에 형제들이 어머니가 누웠던 곳 흙을 모아서 무엇을 만들죠?
 - 학생: 시루요./잘 모르겠어요.
 - 교사: 네 시루를 만들죠? 시루는 떡을 찌는 질그릇을 말해요. 그 아래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일곱 형제가 뚫었다고 나와 있죠? 제주도에서는 시루떡을 ‘침떡’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떡은 일상에서는 잘 안 먹고 명절이나 제사 때 많이 먹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됐을 때 떡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어요. 떡을 만들 때는 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떡은 제사나 잔치 때만 먹는 귀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 교사 질문1: 음식에 문화가 반영된 다른 예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 교사 질문2: 남선비가 고향을 떠났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교사 질문3: 제주도 농경문화가 반영된 음식을 집에 가서 하나씩 조사해 볼까요?

(7) 주거문화

- 교사: 혹시 제주도 전통 집을 본 경험이 있나요?
- 학생: 네/아니오.
- 교사: 여러분 혹시 올레라는 말 들어 봤나요?
- 학생: 네/아니오.
- 교사: 들어 본 학생도 있고 안 들어본 학생도 있네요. 제주도 집은 안거리와 밖거리, 그리고 마당, 정낭, 올레로 이어져 있어요. 제주도에서 대문 대신에 정낭을 설치했는데 정낭은 나무를 걸쳐두는 대문이에요. 문전본풀이에서 남선비가 어디 신

- 이 되죠?
- 학생: 정낭이요.
 - 교사: 맞아요. 남선비는 죽어서 정낭을 지키는 정살지신이 되죠.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 정낭이 있나요?
 - 학생: 아니요.
 - 교사: 정낭은 옛날 집에서 대문 역할을 했지만 요즘 집에는 정낭이 없죠? 여러분들 보기에는 정낭이 대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나요?
 - 학생: 아니요.
 - 교사: 나무를 걸쳐 둔 정낭을 대문이라고 하기에 많이 부실해 보이죠? 정낭에 나무가 없으면 주인이 집에 있다는 뜻이고 하나를 걸쳐 놓으면 근처에 가 있다는 뜻이고요. 두 개를 걸쳐 놓으면 조금 먼 곳에 가 있다는 뜻이에요. 세 개를 걸쳐놓으면 멀리 가 있으니 나중에 오라는 뜻이에요. 옛날 제주 사람들은 이 정낭에 남선비가 신이 돼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정낭을 주인 허락 없이 넘으면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믿었지요. 즉 옛날 사람들에게 정낭은 지금 대문보다도 더 든든한 존재였던 거예요.
 - 교사: 문전본풀이를 보면 녹두생인이 효자인가요?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 학생: 아니요.
 - 교사: 제주도 말고 다른 지역에는 칠성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이 문전본풀이와 비슷해요. 이 이야기에서도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같은 계모가 등장하는데 아이들 간을 먹어야 병이 낫는다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은 계모라도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겠다면서 간을 내 주려고 하는데 금사슴이 나타나서 아이들 대신 간을 내 주고 계모를 반대로 속여서 진실을 밝혀내요. 칠성풀이에는 문전본풀이에서 나온 녹두생인 같은 인물이 나타나지 않아요.
 - 교사: 제주도에서는 결혼을 하면 아들이 안거리에 살고 엄마, 아빠는 밖거리에 살 거든요. 그래서 돈도 따로 관리하고 자식과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살아요. 그래서 자식들은 비록 부모를 공경하지만 부모와 지나치게 가깝게 살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았어요. 문전본풀이에 나오는 녹두생인처럼 자기 주관적으로 아버지가 잘못하는 일을 은근히 바로 잡기도 하는 거예요. 칠성풀이와 같은 이야기인데 이야기 속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과 내용은 전혀 다르죠?
 - 교사: 제주도의 주거 문화가 곧 가족 문화고 그것이 문전본풀이에 반영돼서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 교사 질문1: 제주도에서 집을 지을 때는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제주 환경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아요.
 - 교사 질문2: 지역 환경에 따라 집을 짓는 방법이 다른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조사해서 발표해 볼까요?
 - 교사 질문3: 한국에는 옛날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다 같이 사는 대가족 제도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8) 민간신앙

- 교사: 문전본풀이는 신화에요. 신화 속에는 신들이 나오죠. 문전본풀이에 나오는 여산부인이나 녹디생인과 형들, 남선비,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모두 무엇이 되죠?
- 학생: 신이요.
- 교사: 맞아요. 이들이 모두 신이 돼요. 특히 제주도에서는 문전제라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바로 이 녹디생인에게 지내는 제사에요. 제주도에서 제사상을 차릴 때 옆에 소반에 본상에 올라가는 제물을 조금씩 올리거든요. 그 상이 바로 문전상이에요. 제물을 올릴 때 문전상에 먼저 올려야 되고, 문전제를 본 제사 전에 올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문전신이 화가 나서 우리 조상신을 집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온 속담이 문전 모른 공사 없고, 주인 모른 나그네 없다는 속담이에요. 그리고 문전제를 지낸 상을 부엌으로 보내고 본 제사를 올리는데 그때 어머니들은 그 문전제에 올렸던 제물을 또 조금씩 떼서 부엌에서 조왕제를 올려요. 조왕할머니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주도에만 있는 풍습이죠.
- 교사: 그리고 문전본풀이에서 여산부인을 어떻게 살려내죠?
- 학생: 꽃으로요.
- 교사: 맞아요. 꽃을 사용해서 어머니를 살려내죠? 제주도에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이공본풀이라는 신화가 있어요. 이 신화에서 꽃을 지키는 꽃감관이 나오는데 이 꽃밭은 서천꽃밭이고 꽃밭을 지키는 사람은 황세곤간이라고 해요. 꽃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이공본풀이 이야기를 보면 나와 있어요. 세경본풀이에서도 보면 황세곤간이 나오고 꽃으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 교사: 제주도 신화에는 꽃이 많이 나와요.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꽃으로 살리고 수레멸망악심꽃이라는 꽃으로 여러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제주도에서는 이 악심꽃을 없애는 곳을 하기도 해요.
- 교사: 여러분 그리고 문전본풀이에서 본풀이의 뜻을 아나요?
- 학생: 아니요.
- 교사: 본풀이는 신의 본을 풀어낸다는 뜻이에요. 본은 뿌리를 말해요. 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풀이해서 알려주는 이야기를 본풀이라고 해요. 문전본풀이는 문전신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풀어내는 이야기라고 해서 문전본풀이가 되는 거예요. 이 본풀이는 제주도에만 있는데 제주도 무당인 심방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굿을 하면서 하던 이야기에요. 심방이 이렇게 본풀이로 재밌는 이야기를 전하는 곳이 한국에서는 제주도가 유일해요.
- 교사: 문전본풀이에서 남선비가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아파하자 어디로 가죠?
- 학생: 점쟁이요.
- 교사: 네 맞아요. 남선비가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고 와달라고 하죠? 어째서 배가 아픈데 점쟁이를 찾아가는 걸까요? 의사한테 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사람이 아픈 이유가 나쁜 귀신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이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플 때 의사보다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었죠. 그건 제주도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픈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죠? 종교는 사람을 치료하는 힘이 있다고 믿어왔고 이 믿음은 지금도 여러 사람들 사이에 있어요.

- 교사 질문1: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는 어떤 민간신앙이 있을까요?
- 교사 질문2: 제주도에는 일만 팔천신이 있다고도 해요. 그만큼 민간신앙이 널리 퍼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는 뜻인데요. 어떤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신을 많이 믿게 됐을까요?
- 교사 질문3: 현대 사람들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종교가 주는 치유의 힘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3. 진단평가 설문지

■ 제주 옛날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얼마나 있나요?

- ① 2회 이상
- ② 1회 이상
- ③ 들어본 적 없다

■ 나는 제주 방언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잘 안다
- ② 잘 안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모른다
- ⑤ 전혀 모른다

■ 제주 속담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 ① 4개 이상
- ② 3개 이상
- ③ 2개 이상
- ④ 1개 이상
- ⑤ 전혀 모른다

■ 문화는 어떤 뜻인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 제주의 고유문화 중 아는 것이 있나요?

- ① 4개 이상
- ② 3개 이상
- ③ 2개 이상
- ④ 1개 이상
- ⑤ 전혀 모른다

■ 가족 중 제주 방언을 잘 쓰는 사람이 있나요?

- ① 할머니, 할아버지
- ② 아버지
- ③ 어머니
- ④ 형제, 자매
- ⑤ 없다

4. 캠프 워크북

<p>제주 청소년 문화 캠프 WORKBOOK</p> <p>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N EDUCATION</p>	<p>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p> <p>All right reserved Copyright©2022 by Kwantae Kim</p>
<p>제주 청소년 문화 캠프 WORKBOOK</p>	<p>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p>

WORKBOOK

1	프로그램 소개	2
2	팀 만들기	6
3	설화 읽기 활동	10
4	설화 내용 이해하기	14
5	설화 퀴즈	20
6	설화 페러디	22
7	설화 영상 준비	28
8	1일차 성찰 발표	32
9	제주 지역 탐방	36
10	영상 촬영	40
11	2일차 성찰 발표	42
12	영상 상영 및 평가	46
13	학습 정리 및 편지 쓰기	48
12	동료, 학생, 담당자, 지도교수 피드백	52

제주 청소년 문화 캠프

1 프로그램 소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알고 안전하게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가는 단계

목적

제주 청소년 문화캠프의 운영 취지를 알고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야 할 목표를 분명하게 세운다.

- ① 제주 청소년 문화캠프의 목적에 대해 이해한다.
- ② 본 프로그램이 어떤 맥락에서 운영되는지를 이해한다.
- ③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내가 이룩할 목표를 정한다.
- ④ 캠프 참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학습한다.

수행과제

문화 수업의 목적을 말해보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나의 목표를 적어본다.

자기점검	핵심 질문	5	4	3	2	1
문화 수업의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참가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이룩할 목표를 정했는가?						

2

WORKBOOK

• 프로그램 소개

❖ 목적

- (1) 제주 문화를 배우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 (2) 제주 문화와 타 문화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문화상대주의 학습
- (3) 새로운 문화 창조자로서의 태도 형성

❖ 기간: 20○○.○○.○○(○) ~ 20○○.○○.○○(○)

❖ 장소: ○○ 및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촌

❖ 세부 일정

연수일	시 간	장 소	세 부 일 정
1일차	09:00~09:30	0.5h	등록
	09:30~10:00	0.5h	1. 개회식
	10:00~12:00	2h	2. 팀 만들기
	12:00~13:00	1h	점심 식사
	13:00~14:00	1h	3. 제주 설화 읽기 활동
	14:00~15:00	1h	4. 설화 내용 이해 활동
	15:00~16:00	1h	5. 알쏭달쏭 퀴즈 게임
	16:00~18:00	2h	6. 설화 페러디
	18:00~19:00	1h	저녁 식사
	19:00~21:00	2h	7. 설화 영상 준비
	21:00~22:00	1h	취침 준비
2일차	08:00~09:00	1h	기상 및 아침식사
	09:00~10:00	1h	이동
	10:00~12:00	2h	8. 제주 지역 탐방(자연사박물관)
	12:00~13:00	1h	점심 식사
	13:00~14:00	1h	제주민속촌으로 이동
	14:00~15:00	1h	제주 지역 탐방(제주민속촌)
	15:00~16:00	1h	이동
	16:00~18:00	2h	9. 영상 촬영
	18:00~19:00	1h	저녁 식사
	19:00~21:00	2h	영상 촬영 및 편집
	21:00~22:00	1h	취침 준비
3일차	08:00~09:00	1h	기상 및 아침식사
	09:00~11:00	2h	10. 영상 상영 및 평가
	11:00~12:00	1h	11. 학습 정리 및 편지 쓰기
	12:00~13:00	1h	점심 식사
	13:00~14:00	1h	수료식 및 시상식
14:00~			해산

3

제주 청소년 문화 캠프

❖ 기대 효과

- (1) 문화 간의 접점을 찾아봄으로써 자국 문화를 새롭게 알게 되며, 다른 나라 문화권에 대한 관대한 시각을 가질 수 있음
- (2)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문화상대주의를 체험을 통해 익힘으로써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자세대 문화 전승자로서 태도 갖출 수 있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4

나의 목표

2 팀 만들기

제주문화 학습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는 단계

목적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순간 모든 '개인'은 그룹의 구성요소가 된다. 그룹의 기본단위는 '팀'이며, 팀의 기본단위는 '팀원'이다. 개인은 우선 전체 그룹의 다른 참가자와의 거리감을 줄여야 하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룹에 소개해야 한다.

5-6인으로 팀을 구성한다.

- ① 먼저 소속 팀원이 서로를 자유롭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② 다른 팀과 구분 짓기 위해서 팀 이름을 정한다.
- ③ 팀의 특징을 보여주는 동물을 정한다.
- ④ 팀의 목소리라고도 할 수 있는 슬로건을 만든다.
- ⑤ 문과 엠프 때 지켜야 할 팀 10계명을 정한다.
- ⑥ 팀 마크를 만든다.

수행과제

각 팀은 팀명, 팀장, 팀 동물, 팀 슬로건을 정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슬로건을 외쳐라.  도장 2개

팀 10계명, 팀 마크를 작성하라.  도장 1개

자기점검

핵심 질문	5 4 3 2 1				
	팀 만들기 전후로 팀원들의 거리감이 좁혀졌는가?				
팀의 팀장은 팀원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이끌고 있는가?					
'팀명', '동물' 그리고 '슬로건'은 팀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팀 만들기가 끝난 뒤엔 먼저 멘토 앞에서 피션을 수행하도록 한다.

팀 명			
팀 장		선출이유	
슬로건	<small>※ 슬로건은 팀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담은 문구를 말한다. 예) 319이다, Adu doo, / 로딩중이다, 100%를 외판 1% / 불은이다, Be The Best.</small>		
팀 동물			

팀원

이름	역할	특기, 관심분야, 성격 등 주요 특징
	Leader	
	Communicator	
	Accountant	
	Journalist	
	Designer	
	Scheduler	

멘토 정보

--

- ※ Leader: 전체 진행 상황을 총괄, 지도자.
- ※ Communicator: 발표와 협상 담당, 협상가.
- ※ Accountant: 채무 관리와 재정 담당, 회계사.
- ※ Journalist: 사진 촬영, 워크북 작성 등 기록 담당, 기록가.
- ※ Designer: 디자인 담당, 설계사.
- ※ Scheduler: 팀원들 동선 파악, 지각 관리, 일정 관리자

팀 10계명

1	
2	
3	
4	
5	
6	
7	
8	
9	
10	

<p style="text-align: right;">WORKBOOK</p> <p>팀 마크</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50px; width: 100%;"></div> <p style="text-align: right;">9</p>	<p style="text-align: right;">제주 청소년 문화 캠프</p> <p>3 설화 읽기 활동</p> <p>제주 설화를 듣고 문화적 배경 지식을 쌓는 단계</p> <p>목적</p> <p>제주 설화 한 편을 읽고, 그 안에 담긴 문화적 요소를 배우며 캠프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쌓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트가 구연하는 설화를 집중해서 듣는다. •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점은 메모하며 듣는다. • 인상적인 부분을 표시하며 듣는다. <p>수행과제</p> <p>제주 설화를 듣고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메모하라. 🔍 도장 1개</p> <p>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표시하라. 🔍 도장 1개</p> <p>자기점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th> <th style="width: 5%;">5</th> <th style="width: 5%;">4</th> <th style="width: 5%;">3</th> <th style="width: 5%;">2</th> <th style="width: 5%;">1</th> </tr> </thead> <tbody> <tr> <td>설화를 집중해서 듣고 이야기를 기억했는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적절히 표시했는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10</p>		5	4	3	2	1	설화를 집중해서 듣고 이야기를 기억했는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적절히 표시했는가?					
	5	4	3	2	1														
설화를 집중해서 듣고 이야기를 기억했는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적절히 표시했는가?																			
<p style="text-align: right;">WORKBOOK</p> <p>궁금한 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0px; width: 100%;"></div> <p style="text-align: right;">11</p>	<p style="text-align: right;">제주 청소년 문화 캠프</p> <p>인상적인 부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0px; width: 100%;"></div> <p style="text-align: right;">12</p>																		



제주 신화
 • 제주에는 '본풀'이라는 형태로 신의 탄생을 설명하는 신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세상을 창조한 '천지왕' 본풀이, 제주도를 만든 '살문대갈망' 본풀이, 저승사자 이야기인 '서시본풀'이, 집을 지키는 신 이야기 '문전본풀이', 심방들의 신 이야기 '조공본풀이', 운명의 신 이야기 '살금본풀이' 등이 있다.

4 설화 내용 이해 활동

제주 설화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단계

목적

문전본풀이의 이야기 구조를 파악하고 설화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문화적 요소를 파악한다.

- 제주 설화의 이야기 구조도를 그려본다.
- 등장인물 성격표와 관계망을 만들어본다.
- 문화적 요소를 찾아 적어본다.

수행과제

- 설화 내용을 바탕으로 구조도를 그려라. 💡 도장 1개
- 인물 성격표와 관계망을 만들어라. 💡 도장 1개
- 설화 속 문화요소를 찾아 적어라. 💡 도장 2개

자가점검

핵심 질문	5	4	3	2	1
설화 이야기 구조를 잘 이해했는가?					
설화 속 인물의 성격을 잘 파악했는가?					
설화 속 문화요소를 발견해낼 수 있었는가?					

이야기 구조 파악

■ 아래 빈 칸을 채워보자.

- ① 남선비와 여산부인이 일곱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 ② _____
- ③ 남선비는 오동 나라, 오동 고을에서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홀려 전 재산을 바치고 두 눈까지 멀어버린다.
- ④ 남선비가 돌아오지 않자 여산부인이 남선비를 찾아 나선다.
- ⑤ 여산부인은 오동 나라, 오동 고을에서 남선비를 찾아 집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 ⑥ _____
- ⑦ 여산부인으로 꾸민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남선비와 고향으로 돌아온다.
- ⑧ 일곱 아들 중 녹디생이만이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여산부인으로 변장한 것을 눈치 챈다.
- ⑨ _____
- ⑩ 녹디생이가 계락을 눈치 채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역으로 속여 진실을 밝힌다.
- ⑪ _____
- ⑫ 등장인물들이 신이 된다.

등장인물 파악

녹디생이	여산부인
남선비	노일제대귀일의 딸
녹디생이의 형들	기타()

관계망 그리기

문화 발견

가치 문화

생활 문화

언어 문화



문화란 무엇일까?

문화란 사전적 의미로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말한다.
문화에는 정제성과 제도, 사고방식 언어, 일상생활에서의 행동 양식 등이 모두 포함된다.

5 설화 퀴즈

퀴즈 대회를 통하여 설화에 대한 공부를 심화시키는 단계

목적

팀원들과 협력하여 설화 속 문화에 대한 퀴즈를 풀고 설화에 대한 지식을 넓힌다.

- 팀원들과 협력하여 게임에 참여한다.
- 퀴즈를 풀면서 알게 된 정보를 기록한다.

수행과제

퀴즈를 맞춰라. 🏆 도장 2개
퀴즈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적어라. 🏆 도장 1개

자가점검	핵심 질문	5	4	3	2	1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퀴즈를 통해 얻은 정보를 잘 정리하였는가?						

설화 골든벨!

퀴즈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적어보자.

점수는?

--	--	--

6 설화 패러디

제주 설화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보는 단계

목적

팀원들과 협력하여 제주 설화 문헌본풀이를 현대를 배경으로 다시 써보며 설화 전승의 주체가 되어본다.

- 주어진 시간 내로 설화 대본을 완성한다.

수행과제

제한 시간 내로 설화 패러디 대본을 쓰라.

🌟도장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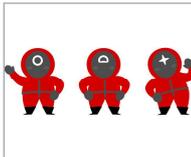
자기점검

핵심 질문

설화 패러디 대본 작성에 잘 참여하였는가?

	5	4	3	2	1
--	---	---	---	---	---

패러디 대본



패러디는 무엇일까?
 - 패러디는 '변용'과 '모방' 그리고 쓴 웃음을 짓게 만드는 '골계'가 핵심이다(김준오, 2003)
 - 패러디는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을 모방하고 재해석함으로써 그 중심을 벗어나려는 노력이며, 창작적 변용을 포함한다.
 - 우리가 즐기는 웹툰과 영화에서 패러디를 찾아보자.
 ex) 서유기, 삼국지, 홍길동전 등

7 설화 영상 준비

패러디 대본을 바탕으로 설화 영상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

목적

설화 영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팀원들이 함께 재연해야 하는 문화적 요소에 대하여 이해하고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키운다.

- 대본을 바탕으로 영상을 기획해 본다.

수행과제

팀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영상을 기획하라.

📌 도장 3개

자기점검

핵심 질문	5	4	3	2	1
영상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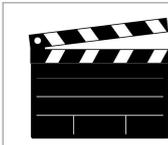
영상 기획

OST 담당:
 무대 담당:
 의상 담당:
 촬영 담당:
 편집 담당:

Scene#	내용	OST
1	배경	
	의상	
	장면	
2	배경	
	의상	
	장면	
3	배경	
	의상	
	장면	
5	배경	
	의상	
	장면	
6	배경	
	의상	
	장면	
7	배경	
	의상	
	장면	

Scene#	내용	OST
8	배경	
	의상	
9	장면	
	배경	
10	의상	
	장면	
11	배경	
	의상	
12	장면	
	배경	
13	의상	
	장면	
14	배경	
	의상	
15	배경	
	의상	

Scene#	내용	OST
16	배경	
	의상	
	장면	
17	배경	
	의상	
	장면	
18	배경	
	의상	
	장면	
19	배경	
	의상	
	장면	
20	배경	
	의상	
	장면	



영상 제작과 유통

• 우리는 지금 영상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튜브는 트위치, 틱톡 등 과거 소년지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산자로서 영상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 그만큼 우리는 영상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야 하며 상식과 도덕을 기반으로 한 영상 제작에 참여해야 한다.

8 1일자 성찰 발표
 첫날 생각한 바와 배운 점에 대해 정리하고 발표하는 단계

목적

오늘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이고 다른 학생들은 또 어떤 것을 배웠는가에 대해 공유해 보며 나의 관점을 넓혀 나간다.

- 내가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 여러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공유한다.
- 다른 학생의 발표를 들어 본다.

수행과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적어본다. 도장 1개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해 본다. 도장 1개
 다른 학생의 발표를 듣고 적어본다. 도장 1개

자기점검	핵심 질문	5	4	3	2	1
내 생각을 잘 정리했는가?						
다른 학생의 발표를 통해 생각을 확장했는가?						

제주 청소년 문화 캠프

8 1일자 성찰 발표
 첫날 생각한 바와 배운 점에 대해 정리하고 발표하는 단계

목적

오늘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이고 다른 학생들은 또 어떤 것을 배웠는가에 대해 공유해 보며 나의 관점을 넓혀 나간다.

- 내가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 여러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공유한다.
- 다른 학생의 발표를 들어 본다.

수행과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적어본다. 도장 1개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해 본다. 도장 1개
 다른 학생의 발표를 듣고 적어본다. 도장 1개

자기점검	핵심 질문	5	4	3	2	1
내 생각을 잘 정리했는가?						
다른 학생의 발표를 통해 생각을 확장했는가?						

32

제주 청소년 문화 캠프

다른 학생의 발표 내용

34

WORKBOOK

내일 프로그램 주안점

35

제주 청소년 문화 캠프

9 제주 지역 탐방
 문화 현장에 방문하여 제주 문화 배우는 단계

목적

제주 생활문화를 현장에서 배우고 제주 설화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탐방하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탐방활동을 하면서 제주 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 자신이 알고 있는 문화와 비교하여 제주 문화의 특징을 파악한다.

수행과제

제주 문화와 관련하여 내가 경험한 것을 적는다. 도장 1개
 가장 인상적으로 본 것을 적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눈다. 도장 1개
 제주 문화를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문화와 비교하여 적는다. 도장 1개

자기점검	핵심 질문	5	4	3	2	1
제주 문화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는가?						
제주 문화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다른 문화와 비교하여 제주 문화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36

제주민속박물관

- 내가 본 것은 무엇인지 적어보자.
예) 제주의 음식- 000, 000, 000

- 가장 인상적으로 본 것은 무엇인지 적어보자.

- 내가 아는 다른 문화와 비교하여 제주 문화의 특징은 무엇인지 적어보자.
예) 제주도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삼승할망 상을 차린다.

제주민속촌

- 내가 본 것은 무엇인지 적어보자.
예) 제주의 음식- 000, 000, 000

- 내가 아는 다른 문화와 비교하여 제주 문화의 특징은 무엇인지 적어보자.
예) 제주도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삼승할망 상을 차린다.



제주의 가옥
 • 제주는 삼디드라고 한다. 돌과 바윗 여자가 많다는 뜻인데 그 세 요소가 모두 제주의 집에 드러나 있다.
 • 제주는 바람이 많아 따를 열어 날리지 않도록 줄로 고정시킨 초가가 많다.
 • 제주의 좋은 돌담을 쌓는 데 쓰이며 제주 곳곳에는 아직도 돌담집이 많다.
 • 제주 여성은 장안하고 주재적이며, 이는 안거리와 밖거리로 나뉘는 제주의 집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 10 영상 촬영
 기획을 바탕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단계

목적
 페라디 영상을 실제 연기하고 촬영하여 작품으로 만들어 내면서 문화창작자, 문화전승자로서의 태도를 기른다.

- 대본과 기획에 따라 연기를 한다.
- 팀원들의 연기를 적절한 각도로 촬영한다.
-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편집한다.

수행과제

대본을 외워 감정을 담아 연기하라.
 팀원들의 연기를 촬영하라. 📷 도장 3개
 제한된 시간 내로 촬영된 영상을 편집하여 제출하라. ✂ 도장 3개

자기점검	핵심 질문	5	4	3	2	1
동창인술의 감정에 이입하여 참여하였는가?						
영상 촬영 시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해 내었는가?						
영상 편집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는가?						

<p style="text-align: right;">WORKBOOK</p> <p>영상 촬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 • 내 역할의 핵심은 무엇인가? • 내 역할에서 어려운 점과 쉬운 점은 무엇인가? • 나는 팀원들을 어떻게 도왔는가? • 내 역할을 하면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 영상 편집 시 내가 제한할 사항은 무엇인가? <p style="text-align: right;">41</p>	<p>제주 청소년 문화 캠프</p> <p>11 2일차 성찰 발표 둘째 날 생각한 바와 배운 점에 대해 정리하고 발표하는 단계</p> <p>목적</p> <p>오늘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이고 다른 학생들은 또 어떤 것을 배웠는가에 대하여 공유해 보며 나의 관점을 넓혀 나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가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 ② 여러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공유한다. ③ 다른 학생의 발표를 들어 본다. <p>수행과제</p> <table border="1"> <tr> <td>오늘 배운 내용을 적어본다.</td> <td>📌 도장 1개</td> </tr> <tr> <td>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해 본다.</td> <td>📌 도장 1개</td> </tr> <tr> <td>다른 학생의 발표를 듣고 적어본다.</td> <td>📌 도장 1개</td> </tr> </table> <p>자기점검</p> <table border="1"> <thead> <tr> <th>핵심 질문</th> <th>5</th> <th>4</th> <th>3</th> <th>2</th> <th>1</th> </tr> </thead> <tbody> <tr> <td>내 생각을 잘 정리하였는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다른 학생의 발표를 통해 생각을 확장하였는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42</p>	오늘 배운 내용을 적어본다.	📌 도장 1개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해 본다.	📌 도장 1개	다른 학생의 발표를 듣고 적어본다.	📌 도장 1개	핵심 질문	5	4	3	2	1	내 생각을 잘 정리하였는가?						다른 학생의 발표를 통해 생각을 확장하였는가?					
오늘 배운 내용을 적어본다.	📌 도장 1개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해 본다.	📌 도장 1개																								
다른 학생의 발표를 듣고 적어본다.	📌 도장 1개																								
핵심 질문	5	4	3	2	1																				
내 생각을 잘 정리하였는가?																									
다른 학생의 발표를 통해 생각을 확장하였는가?																									
<p style="text-align: right;">WORKBOOK</p> <p>2일차 성찰 일지</p> <p style="text-align: right;">43</p>	<p>제주 청소년 문화 캠프</p> <p>다른 학생의 발표 내용</p> <p style="text-align: right;">44</p>																								

내일 프로그램 주안점

12 영상 촬영 및 평가

다른 학생들이 만든 영상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단계

목적

다른 팀의 영상을 감상하고 평가하며, 우리 팀의 영상과 비교해 보고 발전적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 ① 다른 팀의 영상을 보며 평가해 본다.
- ② 우리 팀 영상의 개선점을 찾아본다.

수행과제

다른 팀의 영상을 준거에 맞게 평가하라.

👉도장 1개

우리 팀의 영상 개선점을 찾아 적어라.

👉도장 1개

자가점검	핵심 질문	5	4	3	2	1
객관적으로 다른 팀의 영상을 평가하였는가?						
우리 팀의 영상에 대한 개선점을 잘 도출하였는가?						

평가						
구분	팀명 ()					
흥미						
문화요소 반영						
창의성						
의상 및 무대 완성도						
주제의 적절성						

■ 우리 팀의 영상을 개선한다면 어떨까?

13 학습 정리 및 편지 쓰기

프로그램 종료 후 전체적인 참여 소감을 정리하는 단계

목적

전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어떤 점을 느꼈는가를 정리하고 변화된 글로벌·다문화 교육역량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프로그램 전체 참여 후 느낀 점을 정리한다.
-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개선점을 제안한다.
- 캠프에서 느낀 점, 배운 점을 중심으로 가족이나 선생님께 편지를 쓴다.

수행과제

프로그램 참여 전, 중, 후를 비교하며 느낀 점을 적어라.

👉도장 1개

프로그램 기획자에게 개선점을 제안하라.

👉도장 1개

가족 또는 선생님께 편지를 써라.

자가점검	핵심 질문	5	4	3	2	1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잘 정리되었는가?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제안이 명확한가?						
가족이나 선생님께 진심을 담아 편지를 썼는가?						



느낀점 정리

- 프로그램 참가 전에 했던 기대감
- 교육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
- 교육 후 나의 변화
- 글로벌·다문화 교육에 관한 관점 변화



프로그램 개선점

- 프로그램에서 불편했던 점
- 기간은 적절했는가?
- 체계적으로 운영됐는가?
-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가?

느낀점

개선점 제안

편지 쓰기

12 동료, 학생, 담당자, 지도교수 피드백

프로그램 참여하며 함께했던 동료나 교육했던 학생, 담당자, 지도교수의 피드백을 받는 단계

목적

전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함께한 여러 동료와 나에게 교육받은 학생들, 나를 만났던 주변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가진다.

- ① 동료나 학생, 기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
- ② 나 역시 참가 동료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수행과제

동료나 학생, 기타 주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라.
동료의 강점, 장점, 하고 싶었던 말을 전달하라.

자기점검

핵심 질문	5	4	3	2	1
타인으로부터 피드백을 잘 받았는가?					
동료에게 피드백을 잘 전달하였는가?					

<p style="text-align: right;">WORKBOOK</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font-size: small;"> <p>피드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의 장점, 장점에 대한 칭찬 · 하고 싶었던 말 · 담당자, 지도교수의 조언 </div> </div> <p style="text-align: right;">53</p>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 청소년 문화 캠프</p> <hr/>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피드백</div> <hr/> <p style="text-align: center;">54</p>
<p style="text-align: right;">WORKBOOK</p>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피드백</div> <hr/> <p style="text-align: right;">55</p>	<p style="text-align: center;">제주 청소년 문화 캠프 워크북</p>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top: 10px;"> 발행일 2022년 5월 00일 초판 1쇄 발행 역은이 김관태 발행인 김관태 발행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인쇄처 </p>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top: 20px;"> 이 책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의 부록 자료로서 저작권은 저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p>